

특집

노인과 도시

통계로 본 고령사회

고령친화도시 개념의 형성과 변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경험

재활용품수집 노인들에 대한 연구노트

길 위에 선 안내자 : 노년을 준비하는 마음

노인이 많이 가는 곳, 노인들도 많이 가는 곳 : 경로당 안과 밖

도시 노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걷나

시선과 관심

가로유형별 보행지표, 주민과 함께 만들다

천연동·충현동 희망지사업을 돌아보며

통합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 어제에서 내일로

고령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는 (사)고령친화도시민들기시민연대에서 발간하는 계간지입니다.

이천십칠년
봄

제90호

특집

노인과 도시

통계로 본 고령사회

고령친화도시 개념의 형성과 변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경험

재활용품수집 노인들에 대한 연구노트

길 위에 선 안내자 : 노년을 준비하는 마음

노인이 많이 가는 곳, 노인들도 많이 가는 곳 : 경로당 안과 밖

도시 노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걷나

시선과 관심

가로유형별 보행지표, 주민과 함께 만들다

천연동·충현동 희망지사업을 돌아보며

통합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 어제에서 내일로

걷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는 (가) 걷고 싶은 도시민들끼리만 연대해서 발견하는 계간지입니다

이천십칠년
봄

제90호

『걷고싶은도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했습니다.

이천십칠년. 봄.

발행인 김기호
편집인 안현찬
편집위원 김민수, 박승배, 최성용, 한수경
담당자 조은혜

06	편집장입니다	당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은 무엇입니까 _안현찬	06
----	--------	---------------------------	----

08	특집_노인과 도시	기획의 변 _안현찬	09
		01 통개로 본 고령사회 _한수경	10
		02 고령친화도시 개념의 형성과 변화 _안현찬	16
		0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경험 _정은하	24
		04 재활용품수집 노인들에 대한 연구노트 _소준철	31
		05 길 위에 선 안내자 : 노년을 준비하는 마음 _김병애	41
		06 노인이 많이 가는 곳, 노인들도 많이 가는 곳 : 경로당 안과 밖 _최성용	45
		07 도시 노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걷나 _이선재	50

55	사선과 관심	보행 가로유형별 보행지표, 주민과 함께 만든다 _김은희	56
		마을만들기 천연동·충현동 희망지사업을 돌아보며 _박승배	64
		생활문화 통합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 어제에서 내일로 _김남진	71

80	고정칼럼	도시스케치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_김정대	80
		여행하는 삶과 사람 대정으로 가는 길	82
		제주 대정읍성과 추사유배지_이호정	
		아빠와 만드는 마을만들기 마을생존법 : 아빠와 오지라퍼 사이_김정호	88
		매체와 도시 폭력의 도시와 로지스틱스_김민수	96
		도시를 읽다 봄에 울다_안인섭	100

102	독자위원 모니터링	『걷고싶은도시』 2016년을 떠올리며 _걷고싶은도시 독자위원회	102
-----	-----------	------------------------------------	-----

제90호
발행처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발행일 2017.03.22. 등록번호 종로바0016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54, 세종아파트 902호 전화 02-735-6046 전송 02-735-6045 전자우편 dosi1994@daum.net
편집디자인 (주)에스앤에이커뮤니케이션즈 ① 02-335-0615 인쇄 삼립인쇄(주) ① 02-469-7111

당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은 무엇입니까

편집장 입니다

안현찬 걷고싶은도시 편집위원장

매년 봄호 권두언은 새로운 특집 기획을 소개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특집 주제는 ‘사회적 집단과 도시’입니다. 사회적 집단은 모든 도시 구성원 중 어떤 특징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청년이나 1인 가구처럼 요즘 큰 이슈인 집단도 있고, 채식주의자나 애묘인처럼 새롭고 흥미로운 집단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집단은 우리 도시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걷고싶은도시』는 매 호 하나의 사회적 집단을 정해 그들이 사는 도시, 그들을 위한 도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려고 합니다.

이렇게 특집 주제를 정한 것은 최근 도시정책의 방향에 대한 동의와 방법에 대한 궁금증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서는 ‘포용도시’(Inclusive City)를 향후 20년 동안의 새로운 도시의제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20년 전 총회에서 정한 의제가 ‘지속가능한 도시’였습니다. 포용도시의 핵심은 도시에 대한 권리 보장과 다양성의 존중입니다. 불평등, 소외, 차별을 해소하는 정의롭고, 민주적이며, 통합적인 도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국민을 개폐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포용都市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실 포용都市란 말이 있기 전부터 비슷한 노력들이 꽤 있었습니 다. 여러분도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친화도시계획을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각기 다른 집단이 대상이지만 비슷한 목표와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여성, 아동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얼마나 크게 다를까요? 특정 집단을 배려하는 계획을 따로 세우는 것이 오히려 모두에게 좋은 도시환경이라는 통합적 접근을 가로막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해당 집단을 잘못 이해하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말 행정자치부는 가임기 여성 수를 기초단체별로 집계한 출산지도를 발표해 거센 사회적 반발을 샀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계획들의 밑바탕에는 ‘강자-약자’ 구도가 있습니다. 일반인 또는 주류에 비해 어딘가 약한 집단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완하는 게 목표인 것이죠. 정말 필요한 조치지만, 이것으로 다양성이 충분히 존중되리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약하지 않은 다름’이 낄 자리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취향, 생각, 문화의 차이에 따른 다양성까지 인정받는 도시가 되려면, ‘강자-약자’ 구도가 ‘보편성-개성’ 구도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친화도시계획들도 최근에는 해당 집단을 사회적 약자로만 인식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고유함과 능동성에 주목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특집 주제는 이렇게 우리 도시의 다양성을 한층 폭넓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사회적 집단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직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은 새로운 집단일 수도 있고,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지만 재조명되는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정해지면, 그들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생활, 생각, 문화를 직접 듣는 데 지면을 충분히 할애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들과 관련된 도시환경, 그들을 위한 도시 정책 및 계획은 어떠한지 살펴볼 것입니다. 적합한 필자가 있다면 그 집단과 정책과 도시환경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도 함께 신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걷고싶은도시』는 결론을 열어두려고 합니다. 어떤 사회적 집단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과 방법이 무엇인지는 독자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편집위원회가 바라는 바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열기를 더해가는 독자위원회 모임을 보면서 그 가능성에 확신과 기대를 갖습니다.

한 가지 더 바란다면, 다양성을 남의 일이 아닌 내 일로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나 역시 다른 누군가에겐 그런 상대일 수 있다는 자각이 생긴다면 이 이슈가 더 크게 와 닿을 겁니다. 그러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도시, 그래서 일일이 사회적 집단으로 묶어서 드러내지 않더라도 개성과 차이가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곳이 곧 포용都市이지 않을까요. **안현찬**

노인과 도시

- 01 통계로 본 고령사회_한수경
- 02 고령친화도시 개념의 형성과 변화_안현찬
- 0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경험_정은하
- 04 재활용품수집 노인들에 대한 연구노트_소준철
- 05 길 위에 선 안내자 : 노년을 준비하는 마음_김병애
- 06 노인이 많이 가는 곳, 노인들도 많이 가는 곳 : 경로당 안과 밖_최성웅
- 07 도시 노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걷나_이선재

기획의 변

안현찬 걷고싶은도시 편집위원장

올해 첫 번째 주제인 노인은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사회적 집단이다. 우리는 모두 늙는다. 그래서 노인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가장 보편적인 집단이다. 물론 아동, 청년처럼 생애주기에 따른 집단들은 다 그렇다. 하지만 노인은 생애주기에서 다음이 없는 마지막 단계라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노인에게 이러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탐구와 회피가 공존한다. 서점에는 관련 책들이 넘쳐나지만, 자신의 노후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노후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노인이 되면 신체기능과 사회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삶이 점차 힘들어진다. 그래서 노인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노인에게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세계적인 고령사회의 도래다. 선진국들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보다 많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50년이면 이 수치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노인이 사회적 다수가 된다면,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부양 방식도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노인의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상황도 크게 바뀌고 다양해졌다. 오늘날 노인들은 의학의 발달로 꽤 긴 시간 동안 비교적 건강하며, 이 동안 활기차게 살기를 원한다. 이전 노인에 비해 구매력이 높고, 취미·여가·사회적 교류에 대한 욕구가 강한 ‘신노년층’(1955~1968년생)의 등장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노인들도 적지 않다. 2015년 OECD 조사에서 한국의 65세 노인빈곤율은 무려 50%였다.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고, 평균인 13%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폐지 좁는 노인, 생활고로 자살을 택한 노인 이야기를 뉴스에서 듣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한 노인을 위한 사회적 대책은 주로 복지, 보건, 경제, 인권 등의 분야에서 다뤄왔다. 그런데 노인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불편함 중에는 도시환경이 있다. 특히 신체기능 약화로 활동반경이 대폭 줄어든 노인에게 일상생활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장소다. 2007년 국제보건기구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한국도 4개 도시가 동참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 조성은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끈다.

『걷고싶은도시』는 이러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노인과 도시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정해보았다. 첫째,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노인은 돌봄이 필요한 수동적 주체인가, 아니면 능동적인 주체인가. 둘째, 한국 노인들의 실제 생활, 장소, 문화는 어떠한가. 셋째, 한국의 고령화 대책, 특히 고령친화도시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실천은 어떠한가. 넷째, 이러한 정책은 한국 노인의 실제 삶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특집의 세부 내용은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구성했고, 그 중 일부는 편집위원들이 직접 작성했다. 원고를 쓰는 일은 그 동안 무관심하고 회피했던 ‘나아들’을 직면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당장은 내 옆의 노인을, 길게는 나라는 노인을 생각해보는 것. 이번 특집이 독자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란다.

통계로 본 고령사회

한수경 걷고싶은도시 편집위원

● 노인의 개념

나이가 들어 일정 수준의 노화가 이루어진 사람을 노인(老人)이라 한다. 하지만 노인이 주는 다소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어르신, 장년(長年), 혹은 영어에서 빌려온 실버(silver), 시니어(senior)라는 용어로 종종 대체되기도 하며, 통계 자료에서는 주로 고령자(高齡者)로 쓴다¹⁾.

노인은 흔히 나이로 규정된다. 최근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뜨겁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노인은 65세부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로교통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경로우대 대상)」 등 관계 법령에서 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²⁾,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경로우대제 등 노인 정책들에서도 대체로 65세 이상 인구를 정책대상자로 보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도 노인인구비율, 노년부양비 등 여러 지표 산출에 있어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집단이 가지는 특성을 각종 통계 자료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집단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1) 본고에서는 노인이란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2) 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세 이상~55세 미만을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 한국, 고령사회에 접어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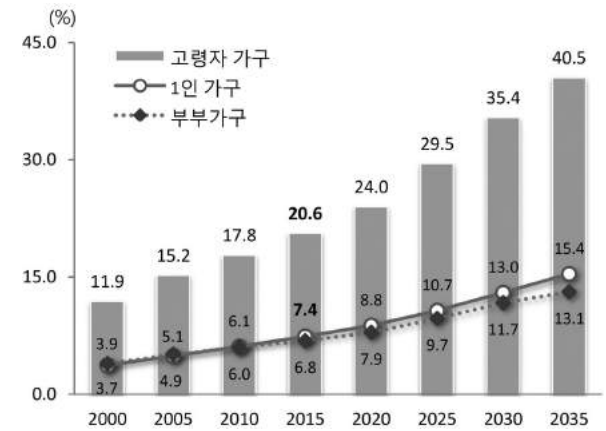
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년에 7%를 넘어선 이후 2017년 현재 13.8%로서, 바야흐로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5가구 중 1가구가 노인이 가구주인 고령자 가구이고, 이 중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7.4%로 고령자 부부 가구(6.8%)보다 많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하는 등³⁾ 줄어드는 유소년 인구에 비해 노인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제 막 고령사회의 문턱을 넘고 있는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18년 후인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에 도달하게 된다. 2060년에는 노인 비율이 40%대에 육박하여, 생산가능인구 약 1명당 노인 1.2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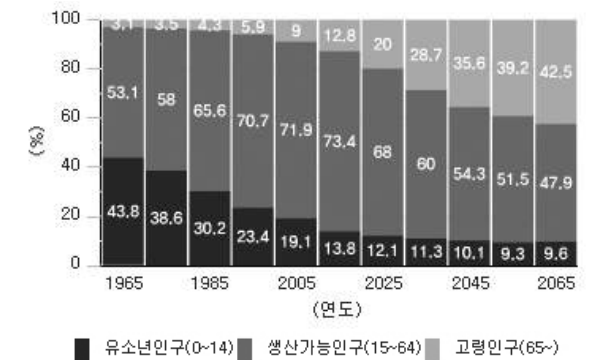
● 한국 노인의 삶

노인 인구가 유례 없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⁴⁾과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률은 최고 수준이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한국이 단연 1위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12.1%)의 약 4배 수준인 49.6%에 달

[그림 1] 고령자 가구 추이⁵⁾



[그림 2] 연령별 인구 변화 예측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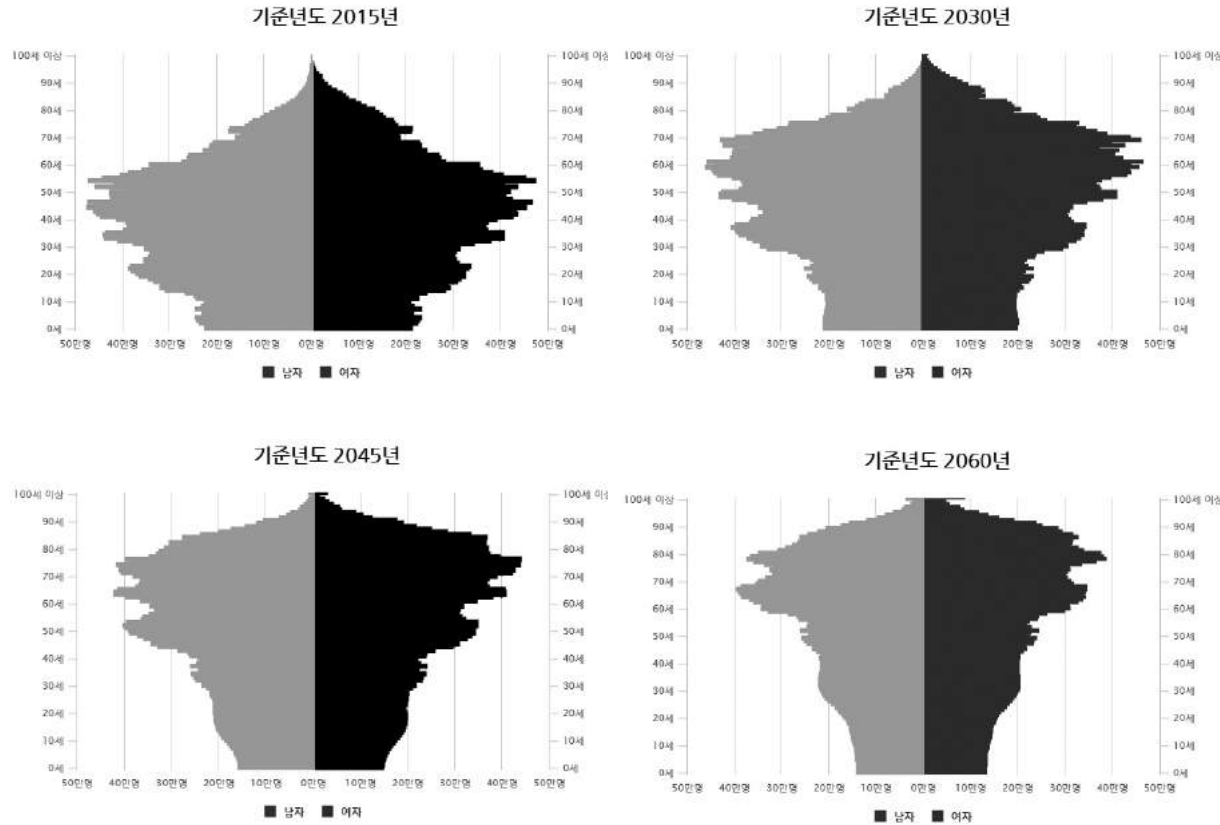
3) 2016년 12월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699만 5,652명(총인구의 약 13.5%)으로서 15세 미만 인구 691만 6,147명(총인구의 약 13.4%)보다 많았다.

4)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의 비율

5) 통계청, 2015. 2015 고령자 통계, 20쪽.

6)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3] 전국인구추계 피라미드⁷⁾



한다⁸⁾. 이는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한 호주(25.7%)와 멕시코(25.6%)에 비해서도 2배가량 높은 수치로, 다른 국가들과 큰 격차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 수준은 국내 노인 수급자 현황이나 고령자의 연금 수령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9년 이후 고령자 수급자 수는 계속 증가해왔으며,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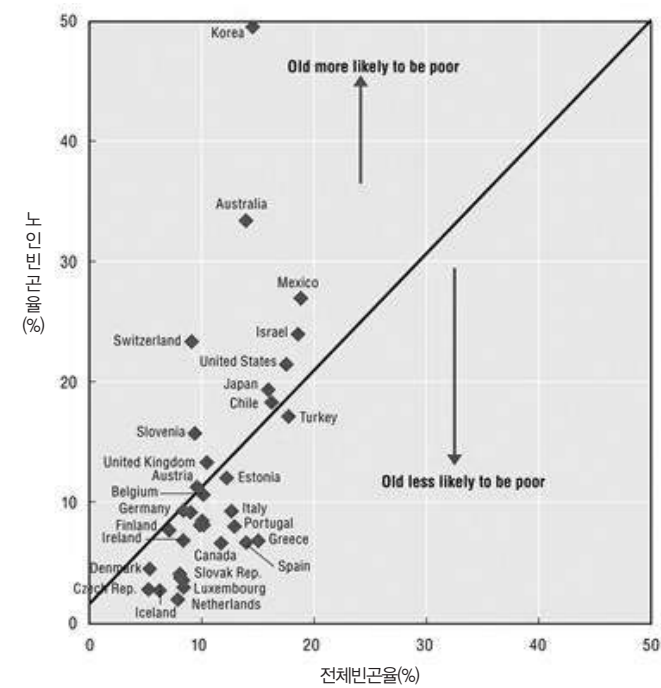
자 123만 7천 명 중 고령자는 37만 9천 명으로 30.6%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15년 55~79세 인구 중 연금(공적, 기초, 개인연금 등) 수령자의 비율은 45%(532만8천명)로서 월평균 49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연금 수령 고령자 중 절반가량(50.6%)이 월 10~25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⁹⁾.

7)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kostat.go.kr>)

8) 2012~2014년 혹은 가장 최근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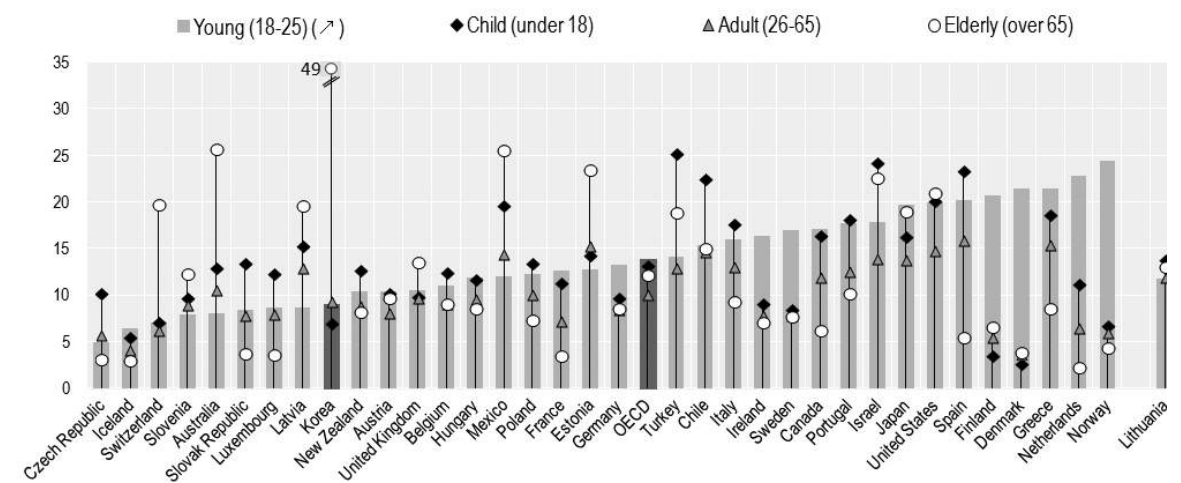
9) 통계청, 2015 고령자 통계

[그림 4] OECD 국가들의 빈곤율(2012년 혹은 가장 최근년도)¹⁰⁾



한편 OECD 회원국들의 사회적 지표들을 비교 분석한 「2016년 한눈에 보는 사회상(Society at a Glance)」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노인은 25.6%로서 비교령자(35.4%)에 비해 약 10% 정도가 낮다. 하지만 노인집단 내에서도 삶의 만족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 고학력, 유배우자, 취업자인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또한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느끼는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수준¹¹⁾ 역시 OECD 국가들 중 한국이 가장 낮아, 한국 노인의 사회적 고립감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임을 시사해준다. 높은 빈곤 수준, 낮은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지지 때문일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5년 국내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58.6명으로서, 전체 인구 자살률(10만 명당 26.5명)의 2배, OECD 평균의 3배나 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5] OECD 국가들의 연령대별 빈곤율(2014년 혹은 가장 최근년도)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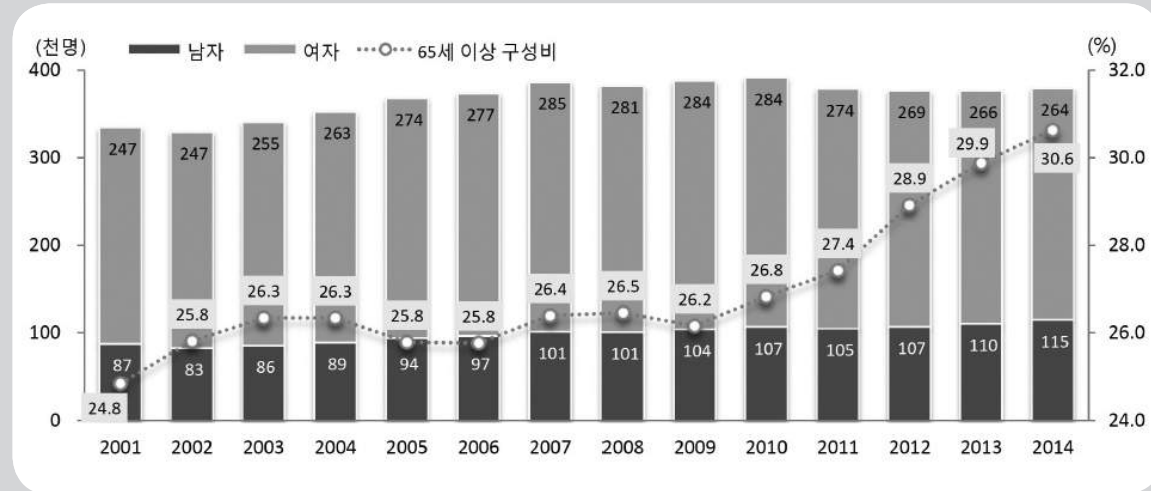


10) OECD, 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1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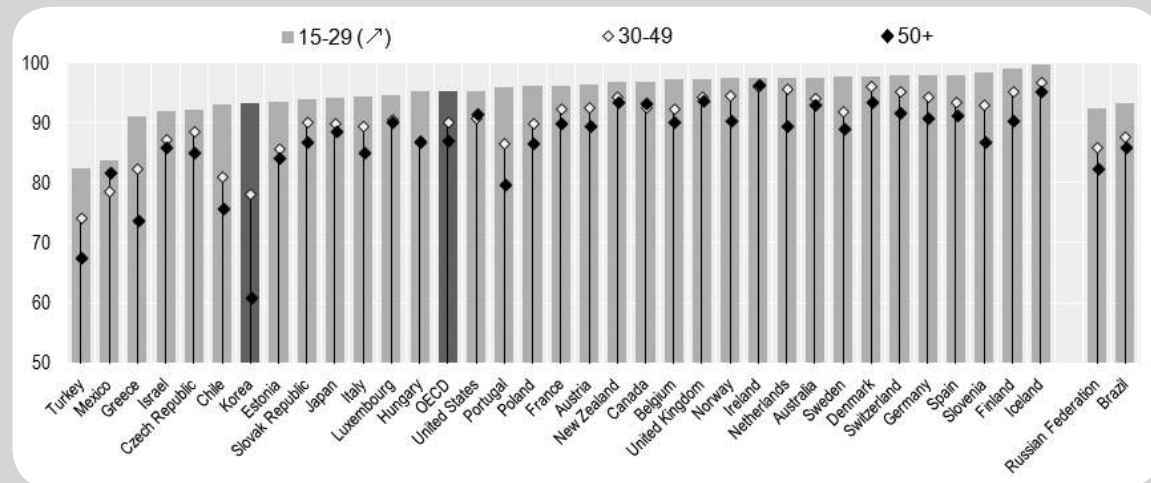
11)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인구 비율

12)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105쪽.

[그림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¹³⁾



[그림 7] OECD 국가들의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2006~2014년)¹⁴⁾



13) 통계청, 2015, 2015 고령자 통계, 37쪽.
14)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1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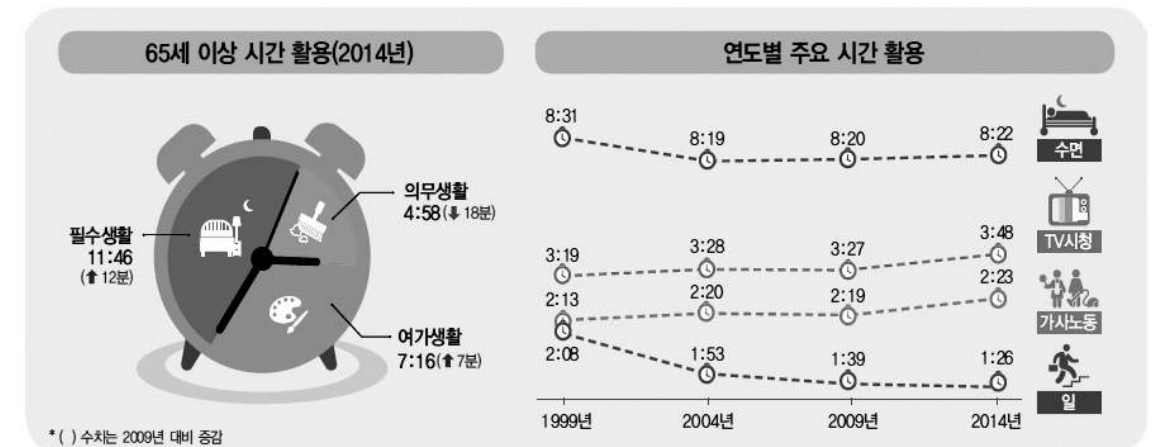
한국 노인의 하루

노인의 하루는 어떻게 채워질까.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의 절반가량(11시간 46분)을 수면, 식사 등 필수적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과 가사노동, 학습 등 의무적 활동에 20.7%(4시간 58분), 여가활동에 30.3%(7시간 16분)을 사용한다. 이처럼 노인은 평균적으로 하루의 1/3 가량을 여가활동에 사용하고 있지만, 이 중 상당 시간을 TV시청에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TV시청시간은 5년 전인 2009년보다 21분 증가한 3시간 48분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 노인일수록 TV시청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80세 이상 남성 노인은 하루에 5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인 남성이 여성보다 교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이 즐겨하는 스포츠 및 레포츠 활동은 '걷기나 산책'으로 파악된다. 노인은 스포츠 및 활동시간 49분 중 30분을 걷기나 산책에 할애하고 있으며, 65세 미만 성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20분 정도 더 많이 걷기나 산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행환경이 노인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노인, 어떻게 볼까

노인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은 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그래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고령사회,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초고령사회의 면면을 몇 가지 지표들만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노인 관련 지표들은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단순히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 속에서 가난하고 혼자 살며 사회적 유대감이 낮아 고립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더 많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노인집단이 갖는 보편적인 속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집단 내에서 조금 더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들에게 섬세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노인 위험사회로 치닫는 걸 피하려면, 가장 먼저 노인들의 삶과 노인 정책의 현주소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8] 고령자의 하루 생활 시간¹⁵⁾



15) 통계청, 2015, 2015 고령자 통계

고령친화도시 개념의 형성과 변화

안현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노인을 위한 도시는 없다

“21세기를 크게 좌우할 세계적 경향은 고령화와 도시화다” 2007년 국제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Global Age-Friendly Cities : A Guide)의 첫 문장이다. 당시 선진국들은 노인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개발도상국들의 고령화는 경제개발만큼이나 압축적이었다. 도시화의 속도는 더 빨랐다. 세계 도시화율은 2007년에 이미 50%를 넘어 인류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었다. 2050년에는 전 세계 고령화율은 22%, 도시화율은 66.4%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¹⁾. 한국은 이미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되고, 도시화율도 85%를 넘어선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노인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대. 하지만 노인이 되어서도 살기 좋은 도시는 거의 없다. 신체기능과 사회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청장년층을 전제로 도시를 만들고 발전시켜온 까닭이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도시환경을 다각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제보건기구 주도 하에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의 목표다.

고령친화都市는 구체적으로 ‘활기찬 노년’(Active Aging)과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를 추구한다. 이 개념들이 이해는 가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늙으면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죽음을 맞는 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다. 남루한

집에 남기보다 호텔 같은 실버타운으로 옮기는 게 더 멋지고 능력 있는 노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만큼 노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처에 큰 간극과 변화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고령친화도시 개념은 최근 들어 노인의 일상생활권에 다가가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지역사회에서 늙어가기’(Aging in Community)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 고령친화도시의 등장 앞뒤로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접근과 실천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좋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온 도시연대 회원들이 노인이라는 사회적 집단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고령친화도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더 욕심을 낸다면, 모두 이제껏 피하고 미뤘왔을, ‘나와 우리의 늙음’을 진지하게 대면하고, 자신이 원하는 노후의 삶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도 되었으면 한다.

● 논의의 출발점 : 신체기능 저하와 주도적 삶

누구나 나이가 들면 신체기능이 약해진다. 노인에 대한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인식이 ‘돌봄의 대상’인 것은 이 때문이다. 현대인의 노화와 죽음에 관한 명저인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쓴 의사 아툴 가완디는, 노화를 복잡한 기계의 부품이 낡고 마모되는 것에 비유했다. 과거에는 늙기 전에 병이나 사고로 갑자기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의학의 발달로 “최선을 다해 여기저기 보수하고 기워 가며 유지하다가 신체기능이 종합적으로 무너짐으로써”²⁾ 죽음에 이

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치아는 선진국의 60대들도 평균적으로 1/3을 잃는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65세 즈음에는 절반 이상이 고혈압이 된다.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는 동안 다른 근육은 점점 가늘어져, 80세에는 근육 무게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백내장이 아닌 건강한 60세의 망막에 도달하는 빛은 20세 때의 1/3 수준이다. 말초 신경이 무뎌져 운동신경과 감각도 둔해진다. 노인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옮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큰 질병이 아니라 낙상, 즉 넘어짐이라고 한다.

나이가 들면 뇌도 줄어든다. 서른 살 젊은이의 뇌는 두개골 안을 꽉 채우고 있는 반면, 70세가 되면 2.5cm 정도의 공간이 생긴다. 노인들의 뇌진탕이 더 위험한 이유다. 뇌에서 가장 먼저 수축하는 곳은 계획과 판단 기능을 하는 전두엽과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이다. 정보 처리속도는 40세 이전부터 떨어지고, 기억력과 다중작업능력은 중년부터 하향선을 그린다. 85세가 되면 작업기억과 판단력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중 40%는 경증증 치매 증세를 보인다.

개인의 유전적 형질, 생활습관과 노력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신체기능 저하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툴 가완디가 나열한 갖가지 노화 증상을 이 글에도 고스란히 옮긴 건, 결코 유쾌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고령화를 논의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화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신체기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과정이다. 문제는 신체적 독립성을 잃어간다고 해서 삶 전체의 주도권과 자유로움까지 포기해야 하는가에 있다.

1)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4)

2) 아툴 가완디. 2015. 『어떻게 죽을 것인가』 김희정 옮김. 부키. 53쪽.

●
노인 돌봄, 가족에서 사회복지로

전근대사회에서 노인을 돌본 건 가족이었다. 평균수명이 짧고 식구가 많았던 때에는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는 게 가능했다. 공공복지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터여서 다른 선택지가 없기도 했다. 노인에게 가족은 일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 공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족의 돌봄은 노인에게 심리적으로 그 무엇보다 안락하고 맞춤하다. 노인은 가족에게 돌봄을 받는 동시에 거꾸로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렇게 노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존중과 배려 속에서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가족 돌봄의 전제조건이 통째로 흔들렸다. 영양, 위생, 의료체계가 발전하면서 노인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었지만, 그중 많은 시간 동안 만성질환을 겪게 됐다. 돌봄 기간과 부담은 늘어난 반면에 대가족은 해체되었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반까지는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60%가 자녀와 함께 살았지만, 1960년대 초에는 25%로 떨어졌다. 유럽에서는 80세 이상 노인 중 10%만이 자녀와 함께 살고, 절반 이상은 완전히 혼자 살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와 자식이 ‘거리를 둔 친밀감’(Intimacy at a distance)³⁾을 선호하게 된 문화적 현상도 크게 자리하고 있다. 가족적 전통이 강했던 아시아 국가들도 시작이 늦었을 뿐 현재는 서구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가족의 공백을 메운 건 사회복지였다. 노인을 돌보는 책임과 부담을 가족으로부터 사회로 옮겨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한 것이다⁴⁾. 이때 사회복지 제도가 선택한 방법은 이른바 ‘시설 요양’이었다. 요양병원과 양로원을 대거 설립하고 노인들을 이곳으로 재배치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노인을 객체로 인식하고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대단히 근대적인 접근이었다.

사실 시설 요양의 시작은 극빈층 노인들을 위한 일종의 구휼 대책이었다. 이때는 시설과 위생이 열악하고, 노인 유기와 학대가 일어나며, 제대로 된 지원이 부족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 개선되었고, 중상류층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도 크게 늘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가난한 노인들도 요양원에서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
그곳은 집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가길 원하는 노인은 드물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어도 두렵고 외롭고 지루하다고 여긴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져도 충족되지 않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곳은 집이 아니다” 고급 요양시설에 아파트나 단독주택 형태로 마련된 이른바 ‘독립 주거공간’일지라도 집과 비슷한 곳일 뿐, 진짜 내가 살던 ‘내 집’은 아니다.

이것이 고집 센 노인들의 생떼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노인에게 집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만의 생

활방식과 신체 변화에 맞춰 공간과 물건을 최적화한 곳이다. 구석구석이 익숙하고, 필요한 것들이 제 위치에 있다. 신체기능 저하로 삶의 영역과 주도권이 축소된 노인들도 자기 집에서만큼은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집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과 편안함을 주는 유일한 장소”⁵⁾인 것이다.

하지만 공동생활을 하는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이러한 삶은 불가능하다. 독립 주거공간이더라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규칙과 간섭이 존재한다. 무엇을 해야 하고, 하면 안 되는지를 의료인과 간병인이 정하고 적용한다.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노인들에게 요양시설은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늪었다는 죄로 수감된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다.

시설 요양은 노인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빈곤노인을 보호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노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는 소홀했다.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는 것만이 결코 노년의 목적일 순 없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기 방식대로 자율성을 갖고 살고 싶은 욕구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자기 집에서 활기차게 늙어갈 수 있도록

노인들이 원하는 이러한 삶을 개념화한 것이 ‘활기찬 노년’과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다. 이런 욕구를

가진 노인은 놀랄 만큼 많다. 미국의 최대 노인단체인 은퇴자협회(AARP)의 2010년 조사에서 이렇게 응답한 노인은 88%나 된다⁶⁾. 한국 노인들은 201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74.2%가 자신의 집에서, 18.4%가 자녀와 동거하는 집에서 살기를 희망했다⁷⁾.

하지만 되짚어보면, 노인들이 시설로 옮겨가는 이유는 더 이상 자기 집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근대사회처럼 가족이 노인을 돌보자고 주장할 수도 없다. 노인들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노인들이 계속 살기 원하는 자기 집과 동네라는 도시환경을 활기찬 생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국제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는 이러한 과제를 이제부터라도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자는 선언이었다.

활기찬 노년은 “나이가 들어가도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건강, 참여, 안전을 위한 기회를 최적화하려는 과정”으로 정의한다⁸⁾. 건강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스스로 보호하기 힘든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할 때 활기찬 노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욕구에 기초한(need-base) 수동적 접근에서 권리에 기초한(right-base) 적극적 접근으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⁹⁾.

국제보건기구는 활기찬 노년을 결정하는 6가지 주요 요인도 제시했다. ①보건·복지 서비스, ②경제적 요인, ③사회적 요인, ④물리적 환경, ⑤개인적 요인, ⑥행태적 요인이다. 이 정도면 어느 사회적 집단에 갖다 붙여도 될 만큼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다.

3) 아틀 가완디. 같은 책, 42쪽.

4) Thomas W. & Blanchard, M. 2009, “Moving Beyond Place : Aging in Community”, Generations, 33(2), 12~17쪽.

5) 아틀 가완디. 같은 책, 100쪽.

6) Warner et al. 2017, “Planning for Aging in Place : Stimulating a Market and Government Response”, JPER, 37(1), 29~42쪽.

7) 이진정. (2014. 08. 21.) 개선돼야 할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12051065&code=990303)

8) 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 A Guide”, 7쪽.

9) 정경희 외. 20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 대응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8쪽.

아마도 결정요인의 세세한 내용보다는, 활기찬 노년은 개인부터 국가까지, 경제부터 공간까지 다양한 영역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또한 결정요인이 비슷하더라도 ‘문화’와 ‘젠더’에 따라 활기찬 노년이 실현되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책을 펼칠 것을 요청했다.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늙어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8가지 영역에 따른 70개 항목으로 상세하게 제시했다. 이 내용은 33개 도시에서 1,485명의 노인들,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대변할 490명의 노인 서비스 제공자와 250명의 간병인들이 직접 참여해 상호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8대 영역은 ①야외공간과 건물, ②교통, ③주거, ④사회 참여, ⑤존중과 사회적 포용, ⑥시민참여와 고용, ⑦소통과 정보, ⑧지역사회 지원과 보건 서비스다. 이 영역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고령친화도시가 과연 어떤 곳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다뤘다. ‘야외공간과 건물’, ‘교통’, ‘주거’를 8대 영역의 맨 앞에서 세웠고, 해당 항목도 총 36개나 된다. 여기에는 무장애 디자인의 적용,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노인의 신체기능에 맞춘 주택 설계와 수리 등 당시에는 혁신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노인의 집(주거) 못지않게 주변 공공공간과 그곳들을 오가는 교통도 중요하게 다룬 점은, 활기찬 노년은 집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동네 곳곳을, 필요하면 도시 곳곳을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으로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보건·복지 서비스도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에 맞춰 수정하고 발전시켰다. 8대 영역 중에는 ‘지역사회 지원과 보건 서비스’만 보이지만, 다른 영역 곳곳에 세부 항목으로 적절히 들어가 있다. 예컨대, 고령친화주택은 일반주택보다 당연히 비쌀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집이 좋아져도 요리, 목욕, 복약 등 생활 및 건강관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공임대 고령친화주택, 홈케어 서비스 등은 이런 점을 고려해 기존 주거복지, 요양서비스를 발전시킨 항목들이다.

물리적 계획과 사회서비스를 잘 결합할 때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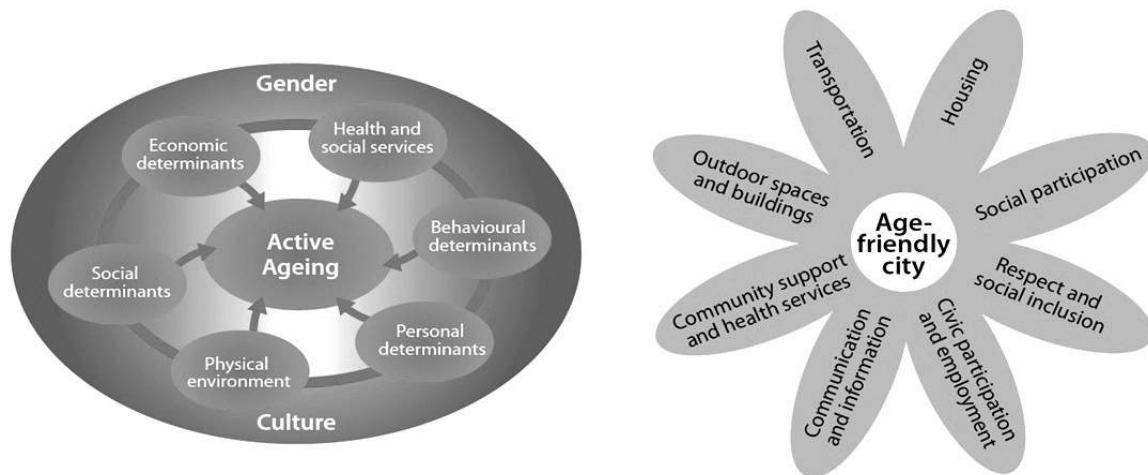
셋째, 8대 영역에 노인에 대한 ‘존중과 포용’을 포함한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위해 차려진 진수성찬이어서도 눈칫밥이면 맛이 없지 않을까. 결국 좋은 도시환경을 완성하는 건 노인과 함께 살아가는, 노인의 주도적 삶을 돕는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일 것이다. 관련 항목으로 노인에 대한 적대, 배제, 동정을 지양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노인 고객과 운전자를 배려하자는 구체적인 것까지 제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존중은 노인이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잉여가 아닌 제 위치를 갖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늙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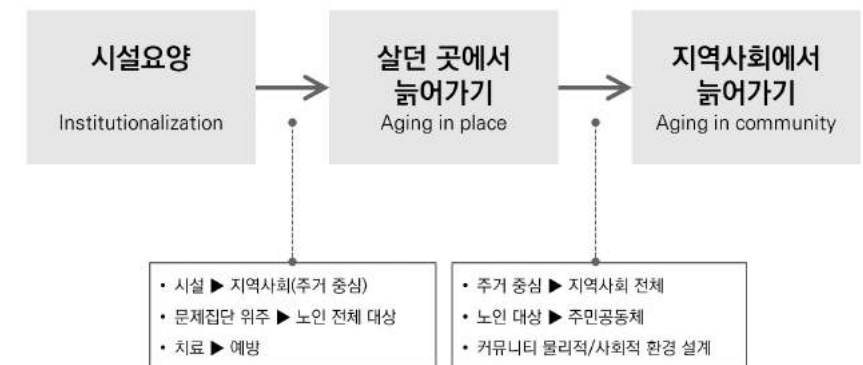
이와 같은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에도 한계는 있었다. 시설 요양의 문제점에서 출발한 배경으로 인해 개별 주택의 개조와 서비스 연계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는 점이다¹⁰⁾. 집 바깥의 도시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주거 중심적인 접근이 강했다.

이로 인해 노인의 일상생활 범위인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전망이 충분하지 않았다.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는 지역사회보다 도시 전체를 겨냥한 보편적인 원칙 위주였고,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도움과 서비스 망’과 같은 다소 추상적인 제안에 머물러 있었다. 집보다는 크고 도시보다는 작은 지역사회 단위의 구체적인 통합적인 전략이 부재했던 것이다.

[그림 1] 활기찬 노년의 결정요인(왼쪽)과 고령친화도시의 8대 주제(오른쪽)



[그림 2] 고령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¹¹⁾



10) 김선자, 2010, “서울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전략”, SDI 정책리포트, 2쪽.

11) Thomas & Blanchard, 2009 ; 김선자, 2010을 바탕으로 재작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시설 요양에 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만, 노인 개개인의 비용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개인에 맞춘 주택 개선과 홈케어는 고액 전문 서비스로 귀결되어 경제적 형편에 따른 격차와 배제가 생길 수 있다.

2009년 미국 노인학자인 토마스와 블랜차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점을 주거에서 사회적 관계로 옮길”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지역사회에서 늙어가기”(Aging in community)¹²⁾로 개념화했다. 지역 사회의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할 때 활기찬 노년이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이 개념이 가장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에서 늙어가는 정부와 개인의 경제적 자본과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적절히 혼합해서 활용한다. 실천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도 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본의 부족과 격차를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살던 곳에서 늙어가는 사회적 자본을 쓰기만 하고, 시설 요양은 오히려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이런 점에서 두 학자는 자신들의 개념이 앞선 두 개념의 단점을 해소하는 제3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시설 요양의 문제점에서 출발한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의 취지를 계승하되, 한계를 보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늙어가기의 6가지 원칙¹³⁾은 활기찬 노년의 결정요인이나 고령친화도시의 8대 영역과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지역 공동

체를 핵심적인 주체로 전면화하고,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도록 지역사회 규모를 최대한 작게 정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늙어가기 개념이 고령친화도시의 실천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국제보건기구의 가이드는 바뀌지 않았지만,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NAFC)에 가입한 도시들의 실행 계획에는 관련 의제가 늘어나고 있다. 가장 앞서는 도시는 2010년 이 네트워크에 첫 번째로 가입한 미국 뉴욕시다. 현재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실행 계획 아래에는 ‘고령친화 지역사회’(Age-friendly neighborhood) 프로그램이 별도로 존재한다. 5개 구(borough)의 13개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있다. 지역사회별로 시의원이 대표를 맡아 실행력을 담보하고, 지역 노인과 이해관계자들이 계획 수립과 실천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 당신은 어떤 곳에서 늙어가고 싶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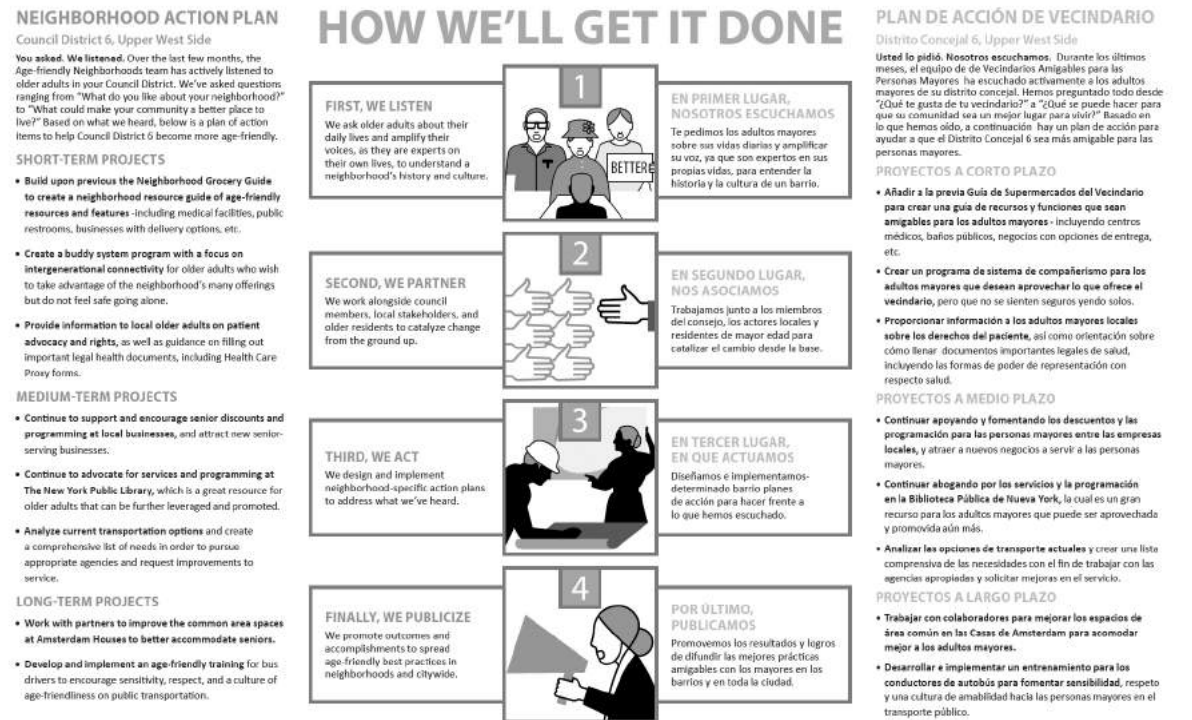
가족이 있는 집, 요양시설, 정든 집, 그리고 정든 동네……. 고령화 정책의 변화는 노후를 보내는 바람직한 장소의 변화로 요약된다. 그곳에는 우리가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누가 노인을 돌볼 것인지, 기대하는 노후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가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고령친화도시의 노인의 능동적인 주체로 바라본다. 노년도 활기찬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노년에 겪는 변화에 맞춰 정든 집

을 중심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회적으로 함께 노력하자고 주장한다. 지역사회에서 늙어가는 이러한 고령친화도시 안에서 정든 집과 도시환경 사이에 있던 빈자리를 정든 동네로 연결했다. 이제 살던 곳(Place)은 정든 집과 정든 동네를 함께 의미한다. 하지만 정책적 개념 변화가 현실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고령친화도시의 지금 그 시간 속에 있다. 뉴욕도, 우리가 사는 한국의 도시들도 아직은 노인을 위한 도시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많다. 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각자가 어떤 노년의 삶을 원하는지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최근 서점에는 고령사회에 관한 책들이 넘쳐난다. 대

부분은 우리를 겁먹게 하고, 부지런히 적금과 보험료를 붓게 만든다. 이와 비교하면 고령친화도시의 일종의 사회적 노후대비다. 여기에도 우리가 꼬박꼬박 부어야 할 게 있다. 살던 곳에서 활기차게 늙어가고 싶다는 동의, 이로부터 생겨나는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다. 지금부터 내가 사는 동네를 정든 곳으로 만드는 당사자나 이웃이 되어보는 것도 좋다. 이러한 개인적 동의와 배려와 노력이 많이 모이면 사회적 합의와 태도와 실천이 된다.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쌓일수록 고령친화도시라는 만기일은 앞당겨질 것이다.¹⁴⁾

[그림 3] 뉴욕 맨하탄 6구역 어퍼웨스트사이드의 지역사회 실천계획



12) Thomas, W. & Blanchard, M., Ibid.
13) ①포용성 ②지속가능성 ③건강 ④접근성 ⑤독립성 ⑥참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경험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서울시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이하 ‘GNAFCC’)의 국내 최초 회원 도시가 되었다. 그 이후 2017년 현재 국내 가입 도시는 총 4곳(서울, 정읍, 수원, 부산)으로 늘었고, 해외 가입 도시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 차원에서 고령사회 대비의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시작으로 하여, 서울시의 추진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서울시의 사례는 고령친화도시 실행 계획의 수립과 추진 노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최근 서울시의 관심 사항과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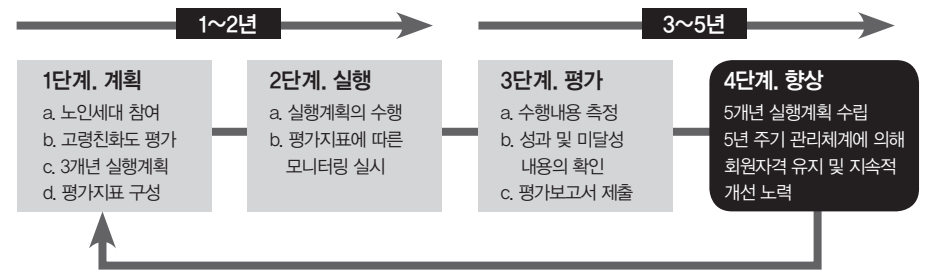
GNAFCC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¹⁾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의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 개별 도시 단위의 대응 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WHO의 고령생애국(Department of Ageing and Life Course)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2010년 미국 뉴욕시가 첫 번째 회원 도시로 가입한 이후, 이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2017년 현재 회원 가입 현황은 전 세계 37개 국

1)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2050년 전체 인구의 2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도시 거주 인구는 2030년 경 전체 인구의 6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WHO, 2007). 특히, OECD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2010년에 17.8%이며, 2050년에는 2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OECD, 2015).

가 380여 개 도시²⁾에 이르며, 앞으로도 회원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GNAFCC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별도 인증 체계에 의해서 회원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의지가 충분히 증명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추진 의지는 해당 도시의 고령친화도 및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에 기반을 둔 실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및 평가 과정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고 현실화되어야 한다. 또한, 회원 도시에게는 사례 공유 등의 교류 활동에 대한 적극적 동참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WHO는 온라인 플랫폼³⁾ 운영과 국제 행사 개최⁴⁾를 통해 회원 도시들 간의 활발한 정보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GNAFCC는 기본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기찬 노년(Active aging)과 정든 곳에서 나이들어감(Aging-in-place) 등을 주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대상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의 주요 표적 집단이 노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의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어울리며

(Inter-generation)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노인은 물론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기 편안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실행 범위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는 도시 환경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고령친화도시의 주요 지향과 실행 영역, 그리고 세부 실천 지침 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WHO가 2007년에 발간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이다. 이 가이드는 전 세계 노인 및 부양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 가져야 할 내용들 크게 8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내용 구성이 실제 당사자의 의견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폭넓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GNAFCC는 이 가이드를 참조하여 도시별 실행계획을 수립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인

[그림 1]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회원도시 관리체계⁶⁾



2) 회원 도시가 10곳 이상인 국가로는 미국(83곳), 스페인(46곳), 프랑스(35곳), 캐나다(22곳), 호주(22곳), 영국(13곳), 포르투갈(11곳) 등이 있으며, 회원 도시가 있는 아시아 국가는 중국(4곳), 대한민국(4곳), 일본(2곳)이 있다.

3) <http://agefriendlyworld.org>

4) 첫 번째 국제 행사는 2011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어 약 400명이 참석하였고, 두 번째 행사는 2013년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되어 약 700명이 참석하였다. 세 번째 행사는 2016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이 행사는 국제노령연맹(IEA)의 행사에 WHO가 공동 주최 자격으로 참여한 형태로, 고령친화도시가 하위 주제로 구성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5) GNAFCC는 회원 도시들에게 첫 번째 실행계획은 3년 단위, 그 이후는 5년 단위로 수립해나가면서, 기존 계획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6) WHO, AFC-Brochure(Cycle of WHO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표 1]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별 기본방향 (WHO, 2007)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기본방향
물리적 환경	① 외부환경 및 시설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제고 야외 환경과 공공건물 등을 포괄
	② 교통 수단 편의성 (Transportation)	이용이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편의환경 구축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③ 주거 환경 안정성 (Housing)	주거시설의 구조·디자인·위치·비용 및 공공 설계 고령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실현
사회적 환경	④ 여가 및 사회활동 (Social participation)	고령자의 가족·사회·문화·종교·여가활동 접근성 행정·정보지원체계를 통한 사회적 소속감 증대
	⑤ 존중 및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고령자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매체 활용 지역사회내 고령자 역할 강화를 통한 세대통합
	⑥ 인적 자원의 활용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고령자 욕구에 따른 자원봉사 및 취업기회 확대 시민참여활동 독려 및 지역사회공헌 활성화
	⑦ 의사소통 및 정보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제공체계 구축 정보접근성 강화로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 활성화
	⑧ 의료 및 지역돌봄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고령자 의료서비스의 충분성·적절성·접근성 강화 고령자 건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 가능성 증대

을 포함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과 다양한 영역에 관련 된 부서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추진 배경과 추진 경과

서울시의 노인 인구는 2010년에 들어서면서 100만 명 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였고, 2030년 경에는 그 비율이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한 중장기 계획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으며, 2009년 의 「9988 어르신프로젝트」와 2010년 발표된 「2020 고 령사회마스터플랜」 등이 그 결과물이다. 이들 계획에 서는 정책 과제 수립에 있어서 미래 동향에 대한 장 기적인 예측과 함께 국제적인 변화 상황에 관심을 갖 도록 하는 더 멀리 보는 시각과, 도시의 전 분야와 다 양한 대상을 고려하는 더 넓게 보는 시각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단기적이고 선별적인 시각의 사회 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한편으 로, 이러한 내용은 GNAFCC의 지향과 정확히 합치 되는 것으로서, 서울시가 2010년 발표한 「2020 고령사 회마스터플랜」에서는 WHO 가이드의 내용을 적극적 으로 받아들여,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라는 비 전과 함께 ‘고령친화도시’라는 용어가 정책 목표로서 최초로 직접 언급되었다.

「9988 어르신프로젝트」, 「2020 고령사회마스터플랜」 의 추진 경과를 세부적으로 돌아보면, 과제 점검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신규 과제 들에 대한 실행이 미흡하였다. 그러나 정책적 패러 다임의 변화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국제사회 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의 지향을 적극적 으로 받아들여, 노인복지 정책의 전환점을 제공하였 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후 2012년에 발표된 「서울어르신종합계획」 또한

앞 선 중장기계획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하 지만 이 계획은 앞선 계획들과 같이 단순한 비전 제 시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부 과제 이행을 점 검하고 평가하는 실질적인 정책 진행 관리의 틀로서 기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기능이 가능했던 것은 이 계획이 GNAFCC 회원 가입과 평 가 등의 관리 체계를 염두에 두고 수립된 것으로서, 세부 과제 실행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의 추진 기간 동안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 과정 덕분에 이 계획이 서울시 노인복지 정책 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추진 경험과 평가 결과에 토대하여, 현재 서 울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추진될 두 번 째 「서울어르신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서울어르신종합계획」(이하 제 1기 실행계획)은 GNAFCC 회원 가입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실제로 2013년 회원 가입 당시 이 자료를 WHO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GNAFCC 에서 회원 도시에 요구하고 있는 실행계획(Action Plan)인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의 궁극적인 활용 목 적은 GNAFCC 회원 가입을 위한 WHO 제출 자료로 서의 의미보다는, 서울시의 고령사회 대비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로 고령친화적인 변화를 유도해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즉, GNAFCC의 지향이나 WHO 가 이드는 계획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었고, 이를 받아들 여 완성된 계획을 GNAFCC 가입 시 근거 자료로 제 출한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고령사회 대비 전략 이 GNAFCC의 지향과 합치하고, WHO 가이드 8대

[그림 2]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1기 실행계획(서울어르신종합계획) 6대 영역 ⁷⁾



7) 정은하. 2015.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 실행계획 수립. 서울시복지재단.

영역이 노인 정책을 구성하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절한 운영 체계(계획 수립, 평가, 향상된 계획 수립)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GNAFCC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오해는 회원 가입을 위한 실행계획은 WHO 가이드에서 제시한 8대 영역과 세부 지침을 한 도시가 수행해야 할 절대적 과업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실행계획 구성 과정을 도시의 특성과 가능한 역량을 무시한 채 오직 회원 가입만을 위한 것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8대 영역은 도시에서의 삶을 노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해 줄 수 있는 기회와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8대 영역은 각 도시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어르신종합계획」은 8대 영역이 아닌 6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시 이 외에도 실제로 많은 도시들에서 영역 구성은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2개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행계획을 몇 개의 영역으로 구성하든, 가이드에서 제시한 도시 생활 전반의 영역을 모두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8대 영역 중 물리적 환경에 관한 3개 영역(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 주거)을 모두 포괄하여 살기편한 환경의 영역으로, 존중 및 사회 통합과 의사소통 및 정보에 관한 영역을 통합하여 존중과 세대통합의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5개의 영역에 제2인생 설계 지원이라는 영역을 신규 구성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50대 및 60대 초반의 연령대에 분포하며 전체 서울시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1955~63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이 향후 고령사회 대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도시별 실행계획 수립은 해당 도시의 현안과 특성, 현실

에 맞는 것으로 얼마든지 구성 가능하다.

서울시의 제1기 실행계획은 6대 분야 총 35개 실행 과제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준비하던 시기(2011~2012년)만 해도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가 본격화되지 않아,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부적인 이해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고령사회 대비 정책이라는 계획 수립의 목표와 이 전에 수립되었던 중장기 계획들의 지향은 잘 담아내었지만, 세부적인 실행 과제 구성 과정에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노인 관련 정책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즉, 각 영역별로 핵심적인 사업들과 실행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5~6개의 과제만이 선정되었는데, 그 결과 실제 서울시의 정책 과제보다 훨씬 적은 35개 과제만이 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제1기 실행계획의 중간 점검 및 최종 평가 결과, 핵심 과제들은 대부분 당초 목표한 정량적 실적들을 차질 없이 달성하였으나, 신규 과제는 초기 계획과는 달리 내용이 대폭 수정 또는 대체되거나, 제대로 추진이 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실행 과제의 영역 구성이 적절치 못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어르신종합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던 과제들 또는 발표 이후 추진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는 35개 과제에 대해 설정되었던 추진 목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과 함께, 각 영역별로 35개 과제의 범위를 넘어서 전반적인 서울시의 성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서울시 노인정책 전반을 정리하는 동시에 노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영역별로 체감되는 최근의 변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는 작업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의 조직 및 예산상의 변화도 알아낼 수 있었는데, 서울시는 어르신복지과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던 인생이모작지원과를 2015년 분과하여 50대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였고, 노인 정책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노인은 각 영역별로 서울에서의 노인의 삶이 더욱 더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제1기 실행계획의 세부과제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향상된 제2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영역 구성 및 세부 과제의 현실성과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노인 정책을 아우르는 포괄성 등을 주요하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실성 확보를 위해 실행 주체가 되는 현장 전문가의 참여와 함께 노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포괄성을 위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 부서의 노인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향후 정책 점검과 평가를 위한 부서의 협력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소규모 지역사회 중심의 고령친화도 향상 방안

제1기 실행계획에서의 한계 중 한 가지는 서울시의 규모적 특성과 25개 자치구와의 관계성을 깊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프로젝트의 실행 주체들 사이에서는 인구 20~30만 명의 소도시나 자치구 단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지역사회에 적용할 때 효과성이 높을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이 의미 있고 설득력 있는 것이,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Megacity)인 서울시에서 구성한 제

1기 실행계획에서는 거시적 정책 수준에 머무르는 과제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과제의 구성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실행계획상의 한계로 인해 실제 노인 인구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활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력에 대한 일반 시민의 체감도 또한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수립될 제2기 실행계획에서는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실제 서울시의 자치구 중에는 개별적으로 GNAFCC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들 자치구를 대상으로 가능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아직 고령사회에 대비한 인식과 노력이 부족한 자치구에는 GNAFCC의 지향을 반영하여 미래 전략과 실행 과제를 구성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접촉면을 자치구 단위를 중심으로 더욱 크게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지원과 협력을 통한 간접적인 접근을 넘어서,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직접적인 실행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자 한다. ‘고령친화마을 시범 사업’으로 명명되어 올해 진행될 이 사업은, 해외 여러 고령친화도시(뉴욕, 브리티시컬럼비아, 아일랜드, 스페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친화 비즈니스’(Age-friendly Business)를 적용한 사업한 것이다. 고령친화 비즈니스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고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상점을 고령친화적으로 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함께 노인이 존중받고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그 동안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를 표방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시민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동안 진행되어왔던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력을 가시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해외에서 시작된 이 사업이 서울시에 적용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도시를 고령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벗어나 도시 환경의 대부분을 이루어 일반 시민들이 가장 자주 접촉하는 상점시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실험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고령친화마을 시범 사업’은 2~3개의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민선 6기 이후 강조해온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성 회복의 지향이 노인 인구를 주요 집단으로 하여 실현될 수 있는 기회로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GNAFCC의 주요 지향인 활기찬 노년, 정든 곳에서 나이들어감, 세대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結

이렇듯 서울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GNAFCC의 지향과 요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GNAFCC 회원 가입을 단순히 국제기구의 프로젝트에 동참한 것으로서 의미를 두기보다는, 실제 서울시의 고령사회 대비 정책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보다 발전된 계획을 수립해나가기 위한 유용한 도구와 지

원 체계로서 파악하고 활용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른 도시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해왔으며, GNAFCC에 대한 국내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해왔다. 하지만 제1기 실행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 결과,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토대로 보다 향상된 제2기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계획이 진행되는 향후 5년은 시민의 고령친화적 변화의 체감도를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단위에서의 실행 과제를 적극 지원하거나 직접 실행하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³⁾

재활용품수집 노인들에 대한 연구노트

소준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 들어가며

나는 노인과 노인들의 생활세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¹⁾. 2015년과 2016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을 거점으로 노인들의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의 생애사, 생활공간인 경로당의 현재, 노인들의 식생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²⁾. 연구자로서의 본령(本領)인 역사사회학/사회사 분과에서 해방 후 도시계획 하에 강북 지역의 농마주이와 고물상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현장 연구의 여진(餘震)이 상당하다. 어쩌다 이런 연구자(지망생)가 되었는지 털어놓으며, 나름의 연구 방편(方便)을 소개할까 싶다. 알고 보면 역사사회학/사회사 전공자다 보니 이론과 사료(史料)를 오가는 일이 보통의 연구법이다. 그렇기에 오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혹은 서울역사편찬원과 같은 도서관·자료관, 박물관이나 온갖 온라인-아카이브들이 현장이다. 별난 현장이라 해봤자 단골 헌책방이나 박물관이고, 답사를 빙자한 골목(안 맛집)탐방이었다. 그런데 이 골목-탐방이 ‘현장’이 될 줄은 몰랐다. 노포(老鋪)를 찾아 골목을 걸을 적에 여기저기 쌓인 박스더미를 심심찮게 발견했고, 아침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재활용품을 줍는 노인들을 지나쳤다. 어느 날 서울 강서구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작은 골목을 지나가는데, 일 킬로미터가 채 안 되는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줍는

- 1) 노인의 정체는 항상 골칫거리다. 팻 테인(2012)의 지적대로 노인은 모든 연령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다양하다. 팻 테인, 2012, 『노년의 역사 : 고정관념과 편견을 걷어낸 노년의 초상』, 안병직 옮김, 글항아리. (원제 : The Long History of Old Age, 2005)). 노년은 60대에서 100세가 지난 사람까지 포함하며, ‘청년’이나 ‘중년’의 범위보다도 훨씬 크다. 게다가 노년의 신체적 활력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매우 활동적인 사람’과 ‘심하게 노쇠한 사람’ 역시 한 카테고리에 포함한다. 계급·계층으로 볼 때에도 상위층과 하위층까지도 포괄한다. 이런 난점은 노인관련 법령들에서 ‘다양한’ 노인을 설정하는 데서 살필 수 있다.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법은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 이상),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 2) 북아현동에서의 연구(2015·2016)는 서울연구원의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연구지원 사업 덕분에 가능했다. 무엇보다 타분과 학문 동료들과의 협동연구였다. 2015년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은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로 서종건과 2016년 『빈곤한 도시노인과 지역내 자원의 흐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민족학전공 박사과정 이민재와 함께 했다.

노인 여럿을 본 적이 있다³⁾. 물론 그/녀들이 함께 다니는 건 아니었다. 그/녀들은 경쟁 중이었고, 갈림길에 다다르자 뿔뿔이 흩어졌다. 그때엔 몰랐지만, 고물은 먼저 발견한 사람의 차지가 되니까 남의 뒤를 따를 필요가 없던 것이다. 한 소설의 설명이 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고물은[고물줍기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였다. 물건이 나올 시점을 잘 잡아 때맞춰 돌아다녀야 했다⁴⁾” 모두가 다른 편인, 재활용품 줍는 노인 무리를 보고 나서 무작정 연구를 시작했다⁵⁾.

현장연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처지라, 조은·조옥라의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 사당동 재개발지역 현장연구⁶⁾』와 조은의 『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⁷⁾』(이하 사당동)을 연이어 읽기 시작했다. 지난한 과정이 될 줄은 몰랐지만 훌륭한 방편을 깨쳤다. 김홍중 역시 나와 같은 지점에서 『사당동』이 알려 준 방편의 가치를 되짚는다. “『사당동』은 해당 사회현실로부터 ‘통계적 일반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대신, 수많은 도시빈민과 그들의 셀 수 없이 많은 삶의 이야기들 중에서 오직 하나의 사

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세부(細部), 돌려 말하자면 하나의 모나드를 설정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집중한다. 그 가족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본다.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 생활세계의 의미영역들을 차분히 가시화한다. 그런 방식으로 개발된 가족의 삶의 현상은, 가족을 품고 있는 한국사회 자체의 다양한 문제들을 응축(표현)하고 있다⁸⁾” 선배연구자의 연구를 디딤석로 박고, 한 사람의 생활의 사회적 위치와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 볼 요량으로 ‘현장’에 진입했다.

현장에 진입하자, 가난을 상대하는 자세, 즉, 연구의 목표 설정이 중요했다. 최현숙이 기획하고 쓴 『천당허고 지옥이 그만큼 청하가 날라가?』⁹⁾와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면 다시 가느다란 길이 나왔어』¹⁰⁾를 읽었다. 최현숙은 기존의 가난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가난은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가장 온당한 존재 방식”이며, “가난은 잘만 살면 좋은 삶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자 가장 온당한 존재 방식”이란 서문이 인상적이었다¹¹⁾. 일상과 학계는 가난에 대해 “저임금 노동—과로—노동—빚—병으로 점철된 삶”¹²⁾이라 대변(對辯)하며 담론을 구상한다. 그러나 “자

급하는 삶”을 통해 “자존감”있는 삶이라면 ‘좋은 삶’이라는데 이견을 달 수 없다. 부유한 삶이 항상 좋은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재의 처지를 ‘가난하다’고 전제하는 걸 피하고, 사람의 역사와 이야기를 통해 ‘어떤’ 가난, 즉, 자급하는 삶인지 아닌지, 그 생활을 세밀하게 관찰하기로 했다. 그러나 돌파해야 할 것들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첫째, ‘재활용품 수집’일을 하는 노인들에 대한 일종의 ‘가난한 노인의 일’이라는 신화를 털어내야 했다. 최초의 실태조사인 이봉화의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생활실태와 개선 방안¹³⁾”은 재활용품 수집의 계기를 묻고 있는데, 노인들의 응답은 “용돈 마련”과 “생계유지”나 “부업”, “소일거리”와 “운동 삼아”로 나뉘었다. 재활용품 수집의 계기가 가난이라는 동정심을 반박할 여지가 보인다. 돌려 말하자면, “소일거리”나 “운동 삼아”라는 (적은 수의) 응답은, 늙지 않은 그리고 은퇴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답이다. 재활용품 수집은 생계의 방편일 뿐 아니라, 생활의 방편인 셈이다. 재활용품 수집 행위는 가난한 노인의 표상(表象)이지만, 한편으로 어떤 노인들은 ‘자급하는 삶’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 경우는 각각 다르게 읽어야 한다. 가난은 해결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문제 지점이지만, 그/녀들의 삶이 새겨진 근육을 보며 ‘가난’하다며 눈시울을 붉히거나 혀를 찰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둘째, 노인의 생활을 알아야 했다. 특히, 도시 단위가 아닌 동 단위에서 생활을 알 필요가 있다. 동네를 몇 바퀴 돌고 그저 방을 얻어 사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알 수 없었다. 북아현동은 다른 빈민주거지역

이나 마찬가지로 “가시적인 빈곤이 사라진” 공간이다¹⁴⁾. 그렇기에 대면하지 않고 단순한 관찰로는 속사정을 알 수가 없다. 그나마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거주하는 ‘방의 층수’, (판매 이전에) 재활용품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지를 ‘보고’ 지레짐작할 뿐이다. 2015년의 연구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이라는 행위에 국한하여 관찰하는데 그쳤고, 2016년의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제도·정책과 인간관계에 대해 가능한 세밀하게 살폈다.

● 넙마에서 폐지로 : 재활용품 줍기의 간략한 역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다.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지적대로, 제도와 산업이 곳곳에 스며든 공간이다¹⁵⁾. 재활용품 수거는 단순한 정책이라기보다, 제도와 산업이 스며든 행위이다. 재활용품 수거는 1980년 들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한동안은 재활용품 수거, 특히 분리배출은 기대만큼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 역시 재활용품의 수거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게다가 재활용품 산업이 별달리 성장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재활용산업을 위한 수거보다 매립 혹은 소각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분리수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들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생겨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흔히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재활용품은 분리해 배

3) 기존의 연구(소준철·서종건, 2015; 소준철·이민재, 2016)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행위를 ‘폐지수집’이라 불려왔다. 그러나, 수집 대상이 굳이 폐지로 국한되지 않다는 점과 (이전 시기 넙마주이까지 한 흐름으로 포함할 의도로)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으로 수정한다.

4) 이유, 2015, 『소각의 여왕』, 문학동네, 23쪽.

5) 아직까지도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학계에 제출된 연구는 사회복지학계에서 이뤄진 배명선·김정자·최송식(2016)의 『폐지수집노인의 생활실태와 노인복지정책적 대안』이 유일하다. 이 연구는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폐지수집 노인 200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 이외에 이봉화(2011)의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생활실태와 개선방안』과 소준철·서종건(2015)의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과 같은 정책보고서가 있다. 여기에 고물상을 중심으로 자원순환—시장을 보고한 강재성(2016)의 『“재활용인”들의 시장경제적 자원순환: 고물상의 경험을 중심으로』에서 다루며, 소준철·이민재(2016, 미출간)의 『빈곤한 도시노인과 자원의 흐름』에서 일부 다루고 있다. 반면에 언론의 보도는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르포르타주 방법을 차용한 기사에서부터 제도의 문제로 다룬 기사까지, 취재와 기사 작성 방법도 다양하다. 허나 상당수의 기사가 ‘고발’에 지나지 않는다.

6) 조은·조옥라, 1992, 『도시빈민이 삶과 공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7) 조은, 2012, 『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또하나의문화.

8) 김홍중, 2017,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407쪽.

9) 최현숙, 2012, 『천당허고 지옥이 그만큼 청하가 날라가?』, 이매진.

10) 최현숙, 2014,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면 다시 가느다란 길이 나왔어』, 이매진.

11) 앞의 책, 11쪽.

1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한국의 가난한 여성에 관한 연구』, 민중사, 120쪽.

13) 이봉화, 2011,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생활실태와 개선 방안”, 『월간 복지동향』 148쪽, 38~45쪽.

14) 조문영, 2014, “글로벌 빈곤의 퇴마사들”, 『정치의 입체, 공공성의 모험』, 해안, 236쪽.

15) 앙리 르페브르, 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기파랑에크리, 132쪽.

출한다’는 원칙을 세운 시기다. 이전까지 넝마주이와 고물상이 재활용 업체와 직접 거래를 해왔지만, 이 시기부터 공공영역이 재활용품 산업에 개입하였고, 관리의 직접적인 주체가 됐다.

불가능한 상상을 해보자. 자원순환이 완벽하게 기능하는 사회를 상상하는 일이다. 필요한 도시의 물리적 기반시설로 쓰레기통, 중간처리시설, 소각장, 재활용—자원생산시설이 있다(여기에서 분리수거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수집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중간처리시설에서 분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쓰레기를 수집하는 청소부, 그리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노동인력을 상정해보자. 완벽한 자원순환이 가능하다면, 다르게 말하자면, 골목과 대로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정부의 제도에 의해 완전히 보장되고 기능한다면, 인민(人民)들은 재활용품이란 단어를 쓸 이유가 없다. 쓰레기를 버리면, 제도/절차에 의해 알아서 처리되니, 개인은 알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기에 우리가 딱히 알 필요 없는 은어로 남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재활용이란 단어와 그 실체는 생활에 무척 밀접한데, 이를테면 제도와 산업에 의해 완벽하게 굴러가는 자원순환은 여태껏 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재활용품 수집가들의 처지란, 제도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 하는 빈틈을 순종하는 개인이 메워온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비약일까? “다시 말해, 그/녀들은 정책과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한 문 앞과 골목까지 찾아와 방치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를 대신한다기보다, 폐지 수집은 정책과 제도의 빈틈이

만들어 낸 변종의 직업이라고 보아야 한다¹⁶⁾”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의 역사적 계보를 간략하게나마 그려보겠다. 넝마주이가 언제 어떻게 짜잔 등장했는지 아직 알 수는 없다. 고물상이 등장할 즈음에 활개를 핀 게 아닐지 추정할 수 있다. 누군가 버린 것을 주워 와 자신이 재사용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고물상이나 재활용업장에 팔아 돈을 버는 일이니, 넝마주이와 고물상은 등장 시기가 비슷할 것이다.

남이 버린 물건을 주워와 일부를 재사용하고, 쓰레기를 재활용—자원으로 삼는 곳에 판매하는 일은 필경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¹⁷⁾. 관찰의 사례로 식민지기의 한 기록이 있다. 1924년 아카마 가후(赤間騎風)라는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이 경성에 대해 쓴 르포르타주, 『대지를 보라』에 나오는 이야기다. 아카마는 현재의 오장동에 있는 넝마주이 소굴에 간다. 그리고는 한 넝마주이의 망태에 담긴 쓰레기들을 기록한다. “넝마, 마루마게(丸鬚) 가발, 염소가죽인지 돼지가죽인지 서너 치[약 10cm]쯤 되는 길 40—50매 묶은 것, 현 계타(げた) 짝, 유리병, 유리조각, 털 지스리기, 진흙투성이 조선 빗, 털 빠진 브러시, 왼쪽뿐인 털장갑, 낡았지만 멀쩡한 알루미늄 주걱, 조선 가구의 놋쇠 장식, 구리 선, 자개 단추, 망가진 장난감 납 시계¹⁸⁾” 같은 것들을 모아놓았다. 이 넝마주이들은 등에 망태를 걸머지고 손에 쇠꼬챙이를 들고 다닌다. 쓰레기를 수집하는 공간은 주로 쓰레기통이며, 모은 것 중 일부는 고물상에 팔았다. 특히, ‘마루마게 가발’에서 나오는 솜을 꺼내, 고물상이 아니라, 다리집(かもし屋)¹⁹⁾에 직접 가져다 팔았다.

1955년 동아일보는 서울로 올라와 종로 어귀에 살며 넝마주이 일을 하는 18세 정모의 사연을 보도한다. 정모가 줍는 건, “깨어진 병, 종이, 쇠토막, 양은, 깨어진 것, 유리판쪽[유리판 조각], 홍겹조각[형겹조각], 뼈다귀” 등이다. 넝마를 줍는 방법이란 식민지기의 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커다란 광주리를 등에 걸머지고 쇠꼬챙이를 엇잡 삼아” 줍는데, 기자는 이를 두고 “쓰레기 사냥”이라 표현한다. 자신(과 속한 넝마주이 조직)이 ‘나와바리(구역)’ “삼은 여관, 회사, 학교, 은행, 다방, 신문사 등의 쓰레기터[쓰레기장]”에서 팔 수 있는 쓰레기를 쫓아 온다.

1980년대 들어 넝마주이들의 활동 공간이 줄어든다. 1980년이 기점으로 보인다. “폐품활용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당시 환경청 산하에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한다. 연이어 1981년 12월부터 일부 시·도에서 분류수거[현재의 분리수거]를 실시했고, 1982년 전국적 확대를 시도한다. 이 시기 들어 주부들이 폐지나 빈병을 모아 직접 고물상에 파는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고물상은 넝마주이 뿐 아니라 주부들까지 상대하게 되었다. 반면, (전업) 넝마주이는 이제 서울의 대로변과 골목이 아니라, (1978년 설치된) 난지도 매립지로 향한다. 이들의 모습은 1980년대 도시 하층민을 다룬 민중문학에서 반복하여 확인할 수 있다²⁰⁾.

넝마주이가 재활용품 수집 노인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며, 연원(淵遠)한 경로를 주장할 수는 없다. 가령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노인들, 특히 당대 주부였던 여성들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사이에 ‘고물’을 팔아 돈을 번 습관을 이어가는지도 모른다. 즉, 이즈음

생계를 위한 넝마주이의 재활용품 수집뿐만 아니라 가윗돈을 버는 재활용품 수집/판매 방식이 만들어졌다.

● 재활용품 줍기와 노인의 방법

현재의 재활용품 수집 노인을 정리하면 “몸과 (혹은) 마음이 불안정한 처지로 인해 골목에서 재활용품을 주워 파는 노인”으로 볼 수 있다²¹⁾. 사회에서 역할이 크게 변치 않았다는 해석 하에, 새로운 넝마주이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이는 가윗돈 벌이의 수단으로 재활용품을 모아 판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작업 활동을 구분하면, ‘진입→수집→운반→보관→판매’로 볼 수 있다²²⁾. 노인들이 재활용품 수집에 진입한 계기를 살펴보면, 노인의 처지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처지이며, 그나마 장사를 한다 해도 개인사업자라 해도 쇠퇴(衰退)한 지경에 처한 처지라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이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종류는 가지각색이다. 종이상자와 신문지 같은 폐지는 물론이고, 금속 파이프, 오래된 텔레비전, 나무액자, 의자 등, 고물상에서 사줄 법한 물건들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수집한다. 이 수집 과정은 주로 미개발된 골목이나 주변의 상권에서 이루어진다. 북아현동 지역에서 수집 방식이란 여섯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골목에서 이루어지는 수집으로 ①문전수거 방식으로 배출된 재활용품 수집, ②재활용정거장에서 재활용품 수집, ③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품 수집, ④이웃들의 도

16) 소준철·서종건, 2015,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 서울연구원, 22쪽.

17)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넝마주이’를 검색하면, 1959년에 처음 등장한다. 또한 ‘양아치’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명칭은 다르지만 넝마주이에 대한 기록을 1920년대에도 찾을 수 있다.

18) 아카마 가후(赤間騎風), 2016, 『대지를 보라』 서호철 옮김. 아모르문디, 66—67쪽. (원제: 大地を見ろ, 1924)

19) 다리집(かもし屋)은 다리(かもじ)라고 불린 가발, 특히 부분가발을 만드는 집을 말한다(앞의 책, 68쪽의 주석 14참조).

20) 다음 세 권의 책이 대표적이다. 이상락, 1984, 『난지도의 딸』, 실천문학사; 유재순, 1985, 『난지도사람들』, 글수레; 정연희, 1985, 『난지도』, 정음사.

21) 소준철·이민재, 2016, 『빈곤한 도시노인과 지역내 자원의 활용』, 서울연구원, 77쪽.

22) 자세한 내용은 소준철·서종건, 2015,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 서울연구원, 59—80쪽을 참조 바란다.

움으로 재활용품 수집이 있다. 나는 조사 과정에서 노인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①과 같이 문전수거 방식으로 배출된 재활용품을 줍고 다닌 적이 있다. 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문 앞에 재활용품을 내놓아야 하는데, 골목을 따라 줍다 보면 보통 한 시간 동안 박스 십여 개 이상을 줍는다. 그러나 그 값은 몇 백 원이 안 되었다. ②와 ③은 실상 재활용품 더미를 헤쳐 팔 만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일인데, 동사무소 직원, 주민, 재활용정거장 관리사 등의 눈초리를 피해 남몰래 이루어진다. 이는 신체의 활력이 현격히 떨어진 노인이나 생계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 근처 이대 앞이나 충정로, 서대문역, 광화문 등지를 걸어다니며 ⑤상업지구에서의 재활용품 수집을 한다. 마지막으로 사무용 빌딩 혹은 사업장에 들어가 청소와 같은 단순노무를 하고 합당한 임금 대신에 ⑥대가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견 대개 여성들의 일이다.

운반 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이전 녀마주이와 달리, 무척 다양하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작은 차이가 있다. 남성을 대개는 리어카를 끄는데, 간혹 리어카에다 오토바이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으며, 혹자는 오래된 자동차를 끌고 다니며 시트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온갖 고물을 넣었다. 여성은 등에 가방을 짊어지는 사람, 노인용 보행기를 끌고, 카트를 이용하고, 간혹 리어카를 직접 끄는 사람이 있다. 관찰한 한에서, 할머니들은 카트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은 여성처럼 노인용 보행기나 카트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다. 다만, 남성들은 여성에게 위협적이라는 건 알아둬야 한다. 재활용품 수집이란 몸이 경쟁하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별다른 운

반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북아현동에서 만난 A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재활용품을 줍는 방법을 택했다. 그래서 ‘가방’을 꼭 메고 간다. “길에 버리는 옷이라도 거기 있으면, 신문이라도 거기[가방에] 담으면은 챙피하지가 않는다[않아]. 구루마 끌고 다니면은 보이잖아. 그래서 안갖고 와. [가방에다] 별거 다 주워가지고 와²³⁾”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을 더 하면, 심야 시간에 수집·운반하는 노인들에 대한 접근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조사 과정에서 노인들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즉, 잠을 자고 일어나서 나선다. 그러나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골목을 오가는 노인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의 경우는 생계를 위해, 생활의 곤궁함을 해결하기 위해 수면을 포기하고 거리에 나선다. 또한 심야 시간은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심야에 골목을 걷는 일은 교통사고에 직결되기 쉽다. 여러 지자체에서 안전장구를 제공하지만 착용하는 노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차라리 골목 안에서 차량이 자연스레 속도를 절감하게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일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녀들은 재활용품 수집을 마치면, 집에 돌아온다. 그러나 바로 집에 들어가지 못 한다. 돌아오자마자 재활용품과 운반수단을 보관한다. 보관방법은 다섯 가지 정도로 나뉜다. ①벽이나 담 근처에 재활용품을 따로 빼 포장/보관하거나, ②집 근처에 운반수단에 실은 채로 보관한다. 건물 주인과 주민들의 명시적/암묵적 동의를 얻어 ③건물 현관 입구나 건물 내 자투리 공간에 보관한다. 물론 ④집 안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드물게 집단적으로 수집하는 노인들의 경우 ⑤경로당과 같은 합의된 거점공간에 모으기도 한다. 노인들이 판매만큼 중히 생각하는 건, ‘수익’과 직

결되는 보관이다. 모아놓은 재활용품뿐 아니라 운반 수단까지 도난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품을 판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사용할 물건을 선별한다. 옷과 신발, 그릇 같은 일상적인 가재도구들은 쓸 만한 것들을 골라 두고,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주변의 노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그리고 팔 만큼의 재활용품이 모이면, 고물상이나(보통 1톤 트럭을 끌고 다니며 재활용품을 매입해다 선별업체나 보다 큰 고물상에 파는 중개상인인) 나카마(なかも)에게 판다. 이 재활용품의 가격²⁴⁾은 널리 알려진 대로, 재활용—자원의 최종 구매자적인 제지업체, 자원업체에서 정한다. 폐지의 경우, 제지업체가 수율기초로 매입가격을 결정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처리업체가 자신의 이윤을 계산해 고물상 등에 매입가격을 고지한다. 고물상 역시 자신의 이윤을 계산해 노인들에게 폐지 가격을 통보한다²⁵⁾.

한 재활용품 수집 여성노인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A²⁶⁾는 가윗돈의 형태로라도 생계비에 보태기 위해 재활용품을 줍기 시작했다. “돈(이) 다 없어졌어. (그

래서) 여기 오자마자 했지 뭐”라며 말이다. 우선 그녀의 한 달 생계비를 따져보자. 한 달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16만 원(기초연금)과 20만 원(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총 36만 원이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1년 가운데 9개월만 일하기 때문에 3개월은 16만 원(기초연금)으로 지내야 한다. 1년 단위로 치면 약 756만 원의 수입을 가진다. 고정적으로 내는 돈은 다음과 같다. 휴대폰 요금으로 한 달에 9,670원 정도의 비용을 낸다. 내야 하는 공과금은 첫째, 건강보험료 지출이다. 대략 13,000원 정도를 내고 있다. 대중교통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A는 걸어서 이동하기 힘든 거리는 무료로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을 택한다. 주로 식사와 난방비로 쓰이는 가스비는 “1,100원” 정도를 낸다. 전기요금은 “요새(2016년 여름), 여기 전기요금, 텔레비전 안보니까 3,000원”이다. 보고 싶은 티비는 “여기(경로당)서 노상 보”고 “냉장고 하나 쓰니까” “기초만[기본적인 비용만] 나갈거”라 말한다. 다만, 친목회 같이 기존에 자신이 활동하던 사회참여는 그만 둔 상태다. 경조사비를 내는 게 부담

24) 소준철·서종건, 앞의 책, 28~30쪽을 참조 바란다.

25) 이유는 자신의 소설에서 폐지 가격결정구조를 아래처럼 묘사한다. (이유, 2015, 『소각의 여왕』 문학동네) “그날은 해미 혼자 할매, 할매들을 상대했다. 지하철역 앞에서 샌드위치를 파는 박씨가 어디서 주워왔는지 고철을 놓고 갔다. (중략) 용이 할매는 천원짜리 지폐를 세더니 잔돈을 한참 들여다봤다. 계산을 제대로 한건지 큰 소리로 물었다. 저번 달보다 돈이 적다고 했다. 저번 주보다도 적다고 했다. 어제도 한 소리고, 그제도 한 소리였다. “할매, 그거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다.” 해미도 할매와 똑같이 큰 소리로 말했다. “뭐라는 거야?” 분명 알아들었을 텐데 할매는 못 들은 척 소리를 질렀다. 따질 거면 거기 가서 따지라고 해미가 말했다. “새벽마다 제지회사 직원이 전화해서 파지값을 공지하는 거다. 그 가격이 아니면 사주지 않는다는데 어떡해?””

26) A는 북아현동 인근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왔다. 1934년생인 그녀는 황해도 출신으로 한국전쟁이 인천으로 피난 왔다. 젊은 시절, 인천에서 경찰공무원이 되었으나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뒀고, 인천을 떠나 남편이 생활하는 춘천에 갔다. 1969년, 남편이 돈을 벌어오겠다고 중동에 가자, 아이들 셋을 데리고 그나마 고모할머니와 작은엄마가 가까이 있는 대흥동으로 이주해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아현동으로 이주해왔고, 쭉 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1970년대 들어 미군부대 근처에서 물건을 떼다 색식집에 가져가 팔았고, 동시에 장사에 도움이 되겠다고 새마을부녀회나 국제승공연맹 같은 지역단체에서 활동을 해왔다. 1980년대 남편이 돌아와 부유층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색식집을 상대하는 장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연 건 아니지만 가끔 청계천에 가서 옷을 떼다 동네 아낙들에게 팔았다. 이 생활은 꽤 길었다. 1970-1980년대의 생활은 2000년대까지 쭉 이어졌다. 1990년대에도 장사를 했지만, 대학까지 마친 자녀들이 용돈을 주었기에 장사는 ‘조금씩’ 했다. 그렇지만 몇 번의 사연에 의해 가세(家勢)가 생각보다 나빠졌고, 현재는 남편과 따로 떨어져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다. 허나 전셋 때문인지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속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활발한 지역활동은 나이 들어서도 빛을 발한다. 경로당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고, 지역단체에서 알아주는 ‘활동가’ 기질이 다분한 노인이다.

23) 소준철·이민재, 앞의 책, 79쪽.

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A는 “그짓말해서 남의 돈(을) 꾸기도 싫고, 내 양심껏 살아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내가 살기가 힘드니까” “누굴 (돈을) 주지(는) 못”하는 처지이다. 이 외에 여기저기 쓰는 돈을 합치면 “잘 하면 50,000원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것저것”이라 파악한다. 한 달에 39만 원에서 40여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3~5만원의 고정 지출을 두고, 나머지 금액은 필요에 따라 지출한다. 2016년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649,932원이며, 생계급여가 471,201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자. 1인당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A가 서울이란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무척 놀랍다.

A가 언제, 어떻게 폐지와 재활용품을 주워 어떻게 파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그녀가 폐지를 수집하는 시간은 의외로 규칙적이다. 이는 그녀의 하루 생활이 아침시간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와 경로당 활동이라는 비교적 규칙적인 일과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기상(5~6시) → 아침식사 → 노인일자리사업(인근 주차장 청소 : 일주일에 이틀, 한 달 열 번) → 경로당(10시~11시) → ‘점심시간/경로당’ 내부 혹은 바깥(월, 화, 목 : 경로당. 수, 금 : 교회) → 경로당 문 닫기/저녁 식사 → 채소트럭 알바(18시~21/22시) → 취침”으로 이루어지며, 하루 생활 가운데 상당 시간이 경로당에 이어진다. 그녀는 폐지를 수집하기 위해 일부러 골목을 돌아다니지는 않는다. 그저 다른 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검사점사 골목에 내놓은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그녀가 말한 노하우가 하나 있다. 무작정 골목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사 가는 사람이 있는지 눈 여겨 보고, 소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사대행업체의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사 간 사람들. 이삿짐센터 (차가) 있을 때는 분명히 거기서 나오거든 그런 게 갖다 주는 거지. 그럼 내가 필요한 거 이

제 가져오는 거야” A에게 재활용품 수집은 가윗돈을 버는 방편이다. 지역 내외를 돌아다닐 때 폐지나 재활용품을 주워 집 마당에 쌓아놓는다. 모은 재활용품을 파는 건 정기적이지 않다. 파는 시기도 꽤 떨어져 있는데, 일 년에 몇 차례 되지 않는 모양이다. 최근에 재개발지구의 한 주차장에서 임시영업하며 “딸딸이”를 끌고 북아현동 일대를 쏘다니는 ‘나카마’-부부나, 윗동네에 있는 고물상 할아버지를 불러 판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팔아 받는 돈은 아무리 많아도 2~3만 원 정도다.

•

공동의 인정, 혹은 어려움의 타개

A는 삶에 필요한 최저물품을 상정하고, 각 물품을 구하는 각각의 요령과 방편을 나름대로 구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A에게 경로당은 다양한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녀의 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Platform)이다. 단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봉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자원 조달을 위한 일을 한다. 우선, 그녀는 임원이란 위치를 이용한다. 경로당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데 임원으로 앞장선다. 자신의 봉사를 통해 회원들의 암묵적 동의를 얻는다. 또한 관과 개인 사이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경로당에서 정보를 선취할 ‘자격’을 얻는다. 무엇보다 ‘회계장부’를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경로당 내 회원들에게 공개하면서 회원들의 견제를 방어한다. 젊은 시절부터 이어 온 조직 생활의 뛰어난 방편이다. 이처럼 경로당에서 봉사(와 일)는 자원조달을 위한 A만의 방편 중 하나다.

재활용품 수집 역시 A가 경로당에서 ‘인정’을 받는 방

편이다. 사실 A가 재활용품을 줌은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 때문이다. ‘경로당의 소득’으로 삼을 재활용품과 ‘자신의 소득’으로 삼을 재활용품과 ‘팔지 않고 자신이 재사용해 쓸 것’ 그리고 ‘팔지 않고 나눌 것’을 명확히 나누어 수집한다.

무엇보다 ‘경로당을 위해 팔 재활용품’은 무척 성가신 수집이다. 경로당에서 상시적으로 식사를 하는 인원이 적잖다. 여자방의 경우 보통 13명 내외²⁷⁾, 남자방은 16명 내외이다. 부족한 쌀은 지역사회단체로부터 기부를 받는 방식으로 감당하고, 부식비가 부족하기에 반찬을 가정에서 조달하거나 값싼 재료를 사온다. 문제는 믹스커피 같은 기호품의 조달이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믹스커피를 사서 비치하기도 하지만, 항상 기댈 수는 없다. A는 재활용품을 모아 팔자고 제안했고, 같은 건물의 공무원들에게 요구해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폐지를 모아 수집하고 있다. 게다가 A를 주축으로 경로당 회원들 중 일부가 폐지 수집에 참여한다. 그 결과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처럼 100~130kg의 폐지 · 의류 · 신발 등을 모아, 정한 양이 모이면 재활용품을 팔아 기호품 비용을 충당한다. 그러나 재활용품 수집을 불편하게 여기는 회원들이 ‘눈치밥’을 주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특히, 그녀는 주변의 눈치밥을 신경 쓴다. A는 자신의 경로당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다. 가방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운반수단을 들고 다닌 날엔 눈치밥을 먹기 일쑤다. “그걸 또 왜 들고댕겨. 들고댕기면(중략) 주책이라고” 그래서 그녀는 재활용품을 주워다 넣을 ‘가방’을 멘다.

더욱이 어떤 노인들은 재활용품을 쌓아놓는데 대해 불평불만을 털어놓는다. 그렇기에 그녀는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하고, 재활용품 판매의 당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내가 박스를 착착 쌓아놓거든. 지저분할까봐. 그렇게 해서 요거 팔면 또 커피 살 거니까요. 지저분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중략) 내가 이걸 내 개인 사유로 하는 거 아니니까, 보태는 거니까 내가 돈을 못 쓰니까 그런 거라도 내가 해야 하잖아”라고 말이다²⁸⁾. 간혹, 팔아서 제 몫을 챙긴다는 말도 듣는다. “[노인들이 뭐라고] 그래”서 “나 여기서, 노인정에서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라고 변명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사적인 소득을 얻지 않냐’는 의심을 산다. 눈치밥과 의심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가장 필요한 건 필요에 따라 원조를 구해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는 빈곤함을 온전히 증명하지 못하고, 각자도생해야 하는 처지이다. 필요에 따라 경로당에 그릇을 가져다 놓기도 했다. 이사 가며 버린 그릇들은 A의 눈에 “쓸만 한 것들”이었고, 그 양이 적지 않았다. 나누는 일이란 단지 온정적인 공유의 일만은 아니다.

필요한 자원을 얻고, 나누기 위해 재활용품을 수집하기도 한다. 자신이 쓰고,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것은 대개 옷과 신발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옷을 주워입는 건 아니다. 노인정에 한 두 사람 정도가 “메이카 있는 옷”만 사 입지만, A는 “그런 걸 안 사 입잖아”라며, 자신은 옷 사는 돈을 아낀다고 힘주어 말한다. 만약 산다 해도 “만 원 짜리 이상 사 입는 일이 없”고, “누가 주면 입고”, “오천 원, 만 원”짜리 정도의 옷을

27) A는 현재 ○○경로당 여자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인원이 북아현동 일대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와 노환으로 인한 사망과 병환 등으로 인하여 꾸준히 감소한 결과라고 말하면서 가장 많았을 때에는 여자경로당에만 30명 내외의 사람들이 모이기도 한다.

28) 이런 사람이지만, 집에서 보관하는 건 다르다. “영망이야, 너무 지저분해. 두서가 없어서 지저분해서 못 봐. 나만 요렇게 댕겨”라는 말처럼 그녀가 사는 한옥집 마당에는 사람 키 높이만큼 쌓인 재활용품들이 잔뜩 널브러져 있다.

산다. 그럼에도 버린 옷이지만, “너무 좋은 옷(을 사랑들이)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라 한다. 덕분에 “이름 있는 것”만 입고, 굳이 “사 입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옷과 신발은 “(남들이) 버리는 걸 주워 신”는다. 버리는 옷이나 신발이 많이 나오기에, “밀려가며[물려가며] 신어 (중략) 물려가며 신는다” 집에도 열 켄레 정도의 주워온 신발이 있고, 색도 종류도 다양하다. 그리고 입을만한 것은 더 주워와 경로당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재활용품 수집은 단순한 개인의 난국을 타개하는 방안만은 아니다. 지원이 부족한 경로당이라는 공동체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이며, 한편으로 이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공동의 인정을 얻는 방편으로도 사용된다. 여기에는 장사를 위해 시작했던 사회활동과 그 안에서 임원으로 지내왔던 덕에, 자신의 ‘체면’이 활동과 생활에 미칠 파급을 정확히 이해하는 개인적 특성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책맞은’ 일을 ‘해볼 만한’ 일로 바꾸는 시도로도 볼 수가 있다. 이를테면, 폐지수집 하는 일을 돈이 없어 하는 일이 아니라 믹스커피 백개들이를 사기 위한 집단의 노력으로 이끌어내는 일 말이다. 삶의 긍정성과 일의 긍정성은 분명 다른 지점에 속해있다. 바깥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스스로 찾아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각자도생해야 하는 처지인 셈이다.

• 나오며

우리는, “늙는다는 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적인 것이 된” 사회에 살고 있다²⁹⁾. 도시에 사는 노인의 처지는 굉장히 유별나다. 서구가 400여 년에 걸쳐 겪은 변화를 40여년 만에 이뤄낸 급격한 산업화과정의 탓인지도 모르겠다. 공동체의 보살핌은 사회와 도시의 변화 속에서 급속히 약화되었다. 유별난 이유란, 이 급격한 변화와 함께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 역시 인류가 처음 겪는 문제이기 때문은 아닐까?

노인들은 젊은 시절, 자신들을 위한 ‘사회적 장치’를 단 하나도 만들지 못 했다. 그렇기에 그/녀들은 늙은 상태에 사회로부터 보장받을 마땅한 방법 역시 갖기 힘들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늙을 줄 몰랐거나, 가족의 부가 증대되면 (마치 자신의 부모세대처럼) 오래 가족의 부를 통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들은 늙었고, 자식들은 ‘가족의 부’를 나눠가졌을 따름이다.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늙은 그/녀들 역시 각자도생해야 할 처지이다. 청년은 ‘노오력’하고, 노인은 ‘노력’이 끝나지 않는다. 이 “끝나지 않는 노력”은 노인의 모습이다. 재활용품 수집은,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편이지만, 한편으로 노인들이 자원을 ‘수집’하고 ‘이용’하는 유효한 방편이다. “이 앞에서 우리의 안쓰러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그/녀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를 다시 생각해보자. 그/녀들은 나름대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연구, 행정, 혹은 남몰래 가진 사소한 감정에서도³⁰⁾ **존재**.”

29) 팻 테인. 앞의 책, 401쪽.

30) 소준철. 2016.12.14. “폐지줍는 일을 하는 노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http://oasis.seoul.go.kr/front/intro/newsletter/view.do?sn=32>)

길 위에 선 안내자 : 노년을 준비하는 마음

김병애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골목길 해설사

“할머니, 70세부터 다시 시작이란 것 아시죠? 이제 돌잔치 하신 거예요. 행복하게 저희들과 오래오래 사시면 돼요. 사랑해요” 며칠 전에 맞이한 일흔 한 번째 생일날 여덟 살 손자가 쓴 카드 글귀이다.

55세가 노인의 기준이었던 때도 있었으니, 1947년 생인 나는 아들딸 혼사도 안 치룬 나이에 ‘노년층’이 되었으나, 노년기의 시작연령은 100세 시대를 맞으면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 60대 초반에도 “어르신”이라 불리는 데 익숙하지 않았으나, 이제 머리칼은 반백에서 백발이 되었고 경로우대카드를 사용함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는 두 손주의 할머니가 되었다.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한다. 작년에 칠순을 넘긴 지금 앞으로 펼쳐질 길에 대한 기대와 준비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지난 세월을 걸어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70살 + 1살, 대학입학 50년 + 2년, 결혼 40년 + 5년……’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는 데 굵직한 전환점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것을 익혀 이를 전달하는 역할에 몰입하며 즐거웠던 시간으로 돌아가 보고자 한다.

1960년대 말에 사범대학에서 “교육”을 화두로 공부했고, 중학교에서 7년간 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을 만났다. 교수법을 연구하여 현장에 적용하며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청얼거리는 첫 아이를 떼어 놓고 출근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둘째를 임신하고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하였다. 한창 왕성한 의욕으로 교사생활을 하고 있던 서른 살에 퇴직하겠다는 나를 교장선생님께서는 극구 말리셨지만,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으로 어린 자식들에게 집중하기로 하고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이듬해 남편의 직장을 따라 백일 된 아들과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익산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6년 동안 두 아이를 키우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따금 만나는 옛 동료들이 안정된 연금제도로 경제적인 걱정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 부러울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쌓아둔 가족간의 충분한 유대는 내가 새로운 일에 집중할 때 마다 아낌없는 지지를 해 주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딸아이가 가족들이 숨도 크게 못 쉰다는 고3 수험생이 되던 해에 영업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일을 그만두었으나, 몇 개월 되지 않아 나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다. 50세 전후의 또래 여성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는 고교후배의 교육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 쉽게 풀어가르치며 컴퓨터는 운전을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안전한 물건이고 앞으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이해시키며 배울 것을 권유받았다. 수험생 엄마로서 잠시 망설였으나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은 나는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다. 그리고 가르치는 특기를 살려 나이 들어 컴퓨터를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장년의 학생들에게 편안하게 접근하고 쉽게 가르치는 ‘컴선생 하하 아줌마’로 불리게 되었다. 2년 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을 출판해 보자는 제의를 받았고, 그 당시 가르치던 내용들을 ‘나의 언어’로 풀어 나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둘째 아이가 고3이 된 해인 1995년 9월에 『자신 있는 엄마 자신 있는 컴퓨터』라는 제목으로 활용서를 출판하게 되었다. 그 해 12월 윈도우즈 95가 시판되며 DOS 시절이 문을 닫게 되어 나의 책은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고전’이 되었지만, 컴퓨터를 배우기도 쉽지 않은 마흔아홉에 활용서를 썼다는 것이 회자되어 많은 매체에서 인터뷰를 요청받았다. ‘왜 컴퓨터를 배웠는가?’,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배우고 나니 무엇이 달라지던가?’ 등을 물어왔다. 신문과 잡지에 연재를 하게 되는 등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

운 일에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쉽게 갱년기 고개를 넘어갔다. 쉼 셋에 교육공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만학도로 어렵게 논문을 쓰고 졸업하니, 고교 후배였던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 강단에서 대학생들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경기도 여성회관 실버컴퓨터 교실에서 전문강사로서 노년의 여성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일도 하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발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에 뒤처짐을 염려하며 주저하고 있던 내 또래의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 공간을 소개하는 ‘하하 맘’이 되었다.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적극 참여, 활용할 수 있게 힘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길 위의 안내자가 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여고시절 통학 길에 알게 된 지 40여년이 지난 2005년 12월에 그 때의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암동에 자그마한 ‘우리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집 주변은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별장이 있었던 곳으로, 15세기 세종조의 유적지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1447년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곳의 이야기를 듣고 그린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빼놓고는 안평대군을 이야기 할 수 없다. 그 그림과 유사한 경관을 지닌 이 곳에 무계정사를 짓고 집현전 학사들을 자주 모아 문무를 즐기던 옛터다. 주택가 복판인 이 곳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부암동 사랑모임’이라는 웹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하하 맘’이라는 별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려나갔다. 그러던 중에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아끼는 문화계 인사들과도 함께 하게 되었고,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며 벼룩시장을 열어 주민들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쌓여갔다. 마침내, 구청에 민원을 제출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 곳을 공영주차장

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2014년에 익선동에 있던 근대 한옥인 오진암의 자재를 옮겨 짓게 되었고, “무계원”이라 명명하여 종로 구민 뿐만 아니라 부암동을 찾는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소로 열린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이 ‘마을을 살리는 풀뿌리 운동’으로 매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내일모레 일흔을 바라보는 사람이 뭘 그리 열심히 하나는 걱정도 들었지만, 동네의 운치를 한층 더 해 주는 무계원의 처마를 바라보면서, 주차장에 드나드는 차들이 내뿜는 매연과 소음 걱정 없이 손주들과 골목길을 거닐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다.

공영주차장 건립도 취소되고 무계원 공사가 한창이었던 2012년, 나는 65세에 부암·평창 골목길 해설사가 되었다. 동네에 얹힌 재미난 이야기나 들어볼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때는 석 달 후에 양성과정을 수료한 17명 중 최고령의 해설사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12주의 교육은 이론-실기-해설기법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는데, 오랜만에 하는 공부도 재밌었고 동네 구석구석 깃들여 있는 조선조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방법을 궁리하고 자료를 모으며 집에 돌아와서도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주차장 건립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하며 내가 사는 동네에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었었기에,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데 누구보다도 집중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새로운 것을 익히고 전달하는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운치 있는 골목길을 매일 걸을 수 있는 부암동에 살면서 이 길을 해설할 수 있다는 것에 신바람이 났다. 해설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동년배 친구들부터 도시문화연구팀, 역사 연구팀, 정치인들의 모임 등 다양하다. 방문팀을 만나면 우선 어떤 모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코스 선정이나 해설 내용을 절충하여 진

행한다. 때론 “우리 어릴 적에 다니던 골목길이 부암동에는 아직도 있네”, “종로구에 이런 숲이 남아 있다니……”, “안평대군과 안견의 몽유도원도의 이야기가 깃들은 곳이 부암동 계곡이라니……”라며 추억에 젖는 탐방객들과 시간여행을 하게 되기도 한다.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애정과 수 십 년 전 교단에서 익힌 전달력에 특유의 밝은 웃음과 낭랑한 목소리로 해설을 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안평대군의 슬픈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기에 안평대군이나 화가 안견에 관한 해설을 할 때면 더욱 흥이 난다. 지방이나 해외에서 온 분들이나 어린학생들이 많은 방문팀에게는 부암동 뿐만 아니라 경복궁 주변의 서



촌, 북촌의 이야기, 육조, 시전행랑의 옛이야기 등등 해설의 범위를 자유자재로 깊고 넓게 눈높이를 맞추기도 한다. 두 세 시간 탐방객들에게 해설하며 걷는 일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도리어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었다. 동네에 깃든 역사와 문화를 명료하게 전하는 일은 다소 긴장이 되는 일이어서 틈틈이 공부하고 연습하게 되니 맑은 정신을 가다듬게 된다. 걷고 싶은 골목길을 안내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온 길이 다른 사람에게 함께 걷고 싶은 길로 느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곤 한다. 지나온 인생길 위에서 나를 소개하던 타이틀은 여러 가지였다. 중등교사, 서예교실 훈장, 웅진본부장, 컴퓨터 강사, 컴퓨터 책 저자, 대학 강사, 여성회관 강사, 부암동사랑모임 대표, 부암동 골목길 해설사, 그리고 두 손자에게 올인하고 있는 할머니……. 앞으로 어떤 수식으로 나를 소개하게 될지 기대가 된다. 중등교사를 계속 했더라면 저러한 경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중등교사로 시작 된 ‘가르치는 일’은 그 모양을 달리하며 계속되었다. 지나온 길 위에서 그래왔듯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과 경험을 전하는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노인들이 많이 가는 곳, 노인들도 많이 가는 곳: 경로당 안과 밖

최성용 걷고싶은도시 편집위원

1

직장을 그만 둔 젊은(‘어린’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나는 평일 낮 12시, 동네 근처에 있는 시립수영장에 있었다. 수영을 좋아하는 나에게 수영장은 익숙한 곳이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동네 수영장을 다녔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 직장 근처(내 직장이 있었던 광화문에 있었으니, 꽤 변화한 업무지구다)에 있는 수영장에 다녔다. 즉, 평일 낮 12시 동네수영장은 처음이었다. 시간이 바뀌면 공간도 바뀐다.

실내수영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수영장 이용에 관해 조금 설명하자면, 한 여름 풀장처럼 계속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시간 단위로 수영과 휴식을 반복한다. 50분의 수영이 끝나면 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나오게 한다. 약간의 휴식시간이 끝난 후 새로운 한 시간이 시작될 때 강사의 구령이나 음악에 맞춰 준비운동을 한다. 준비운동이 끝나야 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날, 평일 12시가 조금 안 되었을 때, 난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샤워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수영장 쪽에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음악은 여태껏 내가 수영장에서 들었던 음악 중에서 가장 신나는 음악이었다. 8비트 유로댄스를 넘어선 16비트 트롯. 재생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한 그 음악에 살짝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좀 독특 하네’ 정도로 마음을 정리했다. 하지만, 탈의실을 나와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난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약 40여명의 여자노인이 너무도 즐겁게 음악에 맞춰 춤 같은 준비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 40여명의 여자노인 사이 어딘가가 내가 서서 준비운동을 해야 할 곳이었다. 내 눈동자는 40여명 사이를 방황했고, 모르긴 몰라도 20여명의 여자노인들은 내 방황하는 눈동자를 눈치

했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여자노인들은 나를 힐끔 보았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나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남자탈의실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고, 무심한 척 춤 같은 준비운동 대신 나만의 준비운동을 하고 얼른 물 속으로 들어갔다. 40여명의 여자노인 사이에 어리진 않지만 충분히 젊다고 말할 수 있는 남자 한명이 있는 상황은, 그 남자 한명에게 뿐만 아니라 40여명의 여자노인에게도 어색한 상황이었다. 단, 어색함을 온 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젊은 남자 한 명과는 달리, 여자노인들이 느끼는 어색함은 1/40로 나뉘어졌다가 곧 수영장 풀의 물과 함께 흩어져버렸을 것이다. 수영장 어디에도 평일 낮 12시에는 여자노인만 온다고 적혀있지 않았다! 무슨 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 그 수영장은 여자노인들이 점령했으며, 아무도 나에게 그만 다니라 말한 사람이 없었지만 난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다른 수영장을 찾아 떠났다(주택가에 있지 않은, 업무시설이 있는 곳의 수영장으로 갔다. 나에겐 남자, 또는 최소한 젊은 여자가 필요했다). 나는 그곳을 떠났지만, 아마 아직도 평일 낮 12시 그 수영장에는 40여명의 여자노인들이(구성원은 바뀌었을지 모르나) 신나게 준비운동을 하고 왁자지껄 대화를 나누며 수영장을 확보할 것이다.

2

동네에서 포레들과 수다 떨고 소일거리하며 지내길 좋아하는 노인들에게 경로당은 꽤 괜찮은 공간이다. 우선 경로당은 마을마다 하나씩은 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단지 하나가 하나의 마을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이렇게 집과 가까운 곳에 있으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찾아가기에 참 좋다. 노인복지법 제36조는 경로당을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지역’, ‘노인’, ‘자율적’, ‘여가활동’, ‘장소제공’이 그것이다. 지역의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경로당의 목적이다. 법에 어떤 시설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많은 경우 세금이 지원됨을 의미하는데, 경로당도 그렇다. 또 보통의 경우 세금은 그 시설의 기본적인 운영과 핵심적인 활동에 지원 되니, 경로당에 세금이 지원되는 곳을 알아보면 경로당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다. 3항에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의 감면혜택이 명시되어 있다. 운영에 대한 지원이다. 재미있는 것은 2항인데 쌀 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법률이 정한 지원의 전부이니 경로당의 핵심 활동은 모여서 밥해먹는 것이라 봐도 된다. 즉, 별도의 프로그램 같은 건 없어도 된다.

별다른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경로당은 동네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 왔다.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의 수가 늘어나니 경로당이 전성기를 맞이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말이 쉽다 평생 직장생활을 하던 노인이 갑자기 마을 노인의 일원이 되어 같이 밥해먹고 수다 떨기란 쉽지 않다. 그런 생활에 잘 적응하려면 원래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있거나, 누군가 잘 아는 사람이 경로당에 정착했거나, 오지랖이 넓어야 한다. 이사가 잦고, 주거공간과 경제활동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대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노인들에게 경로당 입성은 40명의 여자노인들 틈에 끼서 16비트 트롯에 맞춰 춤 같은 준비운동을 하는 젊은 남자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노인의 연령 폭이 넓어지면서 70세 정도는 어린애 취급을 받고, 텃세가 있는 경우도 많고, 나이가 많고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 이외의 공통점을 미리 알 수 없는 조직에 발을 담근다는 건 꽤나 어려운 일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보인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인들의 정주성을 높이는 일이고, 또 하나는 경로당에 각종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일이다.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로 통칭되는 온갖 마을활동들은 그 특성상 마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며, 그 사람 중에는 노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경로당을 사랑방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쌀값만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법률과는 달리 많은 지자체 조례에는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증진, 공동작업장 운영 등 일자리 관련, 지역 자원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발적인 운영에 방점이 찍힌 법률과 달리 상당수의 조례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158개 지자체에 경로당의 지원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됐다.



3

한 20년 정도 된 것 같다. 꽤 젊은(어린'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은) 나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에 있었다. 빠끼 서넛이 몰려와 “예매 했어요?”라고 물었다. 서넛 사이를 방황하는 눈동자를 들킨 채, “네……했어요……”라고 말하고 지나가려 하니 팸플릿 하나를 내 가슴께로 탁 내밀었다. 그 위세가 청량리역이나 부평역의 아줌마들보다 훨씬 당당했고, 난 그걸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 알았다. 그것이 이곳 ‘대학로’의 질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뭣도 모르는 이방인이 함부로 그 질서를 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난, 난생 처음 연극을 보러 가던 길이었고, 혜화역 1번 출구도 처음이었다. 연극이라니, 대학로라니.

지성인이나 문화인들이 즐기는 예술의 세계에 첫발을 내딛는 것 같았다. 앞으로 뭔가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 흥분도 있었고, 그 흥분은 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했으며, 평소와는 다른 심장 박동수는 그날의 기억을 오랫동안 남겨주었다. 하지만 정작 내게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은 혜화역 1번 출구를 처음 나왔을 때의 두리번거림과, 빠끼의 팸플릿과 햄릿을 연기한 배우의 절규가 아니라 연극이 끝난 후 카페의 풍경이었다.

당시는 커피를 파는 곳의 이름이 다방에서 커피숍으로 옮겨오고, 이제 막 카페라는 이름이 치고 나오던 시절이다. 파르페와 헤이즐넛을 팔고, “7598번 호출이요~”라 외치는 카운터가 존재하던 시절, 대학에 와서 처음 커피숍이라는 곳에 간 후 내가 간 모든 커피숍에는 나와 비슷한 또래들만 있었다. 당연하게도 커피숍은 젊은이들의 공간이었다. 어른들에게는 다방이 있지 않은가! 그 날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당시 동행과 함께 갔던 곳은 분명 다방이 아니라 커피숍이었다. 그런데 그 곳에 두 분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 둘은 나 곱한 어투를 썼고, 모두 빵모자를 썼다. 두 분은 노인이었고, 그곳은 다방이 아닌 커피숍이었지만 그들은 그 공간에 너무도 잘 어울렸다. 그곳은 커피숍이었지만, 대학로에 처음 온 젊은 나는 공간과 뼈격거렸고, 늙은 저 두 남자는 그 안에 녹아들었다. 나에겐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이것이 대학로의 힘인가! 아니면 저 노인들의 힘인가! 난 그것이 뭔지도 잘 몰랐지만, 그냥 이런 생각을 했다. ‘저런 노인이 되어야지’

4

점점 경로당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기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가장 큰 차이는 프로그램의 존재여부다. 노인복지관에는 각종 학습프로그램, 노래교실, 댄스교실 등 다양한 활동이 존재한다. ‘친목도모’는 두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용목적이었지만, 어쨌든 경로당은 모여서 뭔가를 하는 곳이고, 노인복지관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이 두 장소의 가장 큰 공통점은 ‘노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노인복지법」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을 60세 이상으로 정해놓았다).

점점 늘어나는 노인들은 노인만의 공간에 머물러있지 않다.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노인의 비중은 늘어난다. 도서관은 노인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장소 중 하나다. 한쪽이 늘어나면, 원래 그 곳을 주로 이용하던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도서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내가 자주 가는 수영장 옆 도서관에는 평일 오전에 남자노인의 수가 급증했다. 신문을 보는 곳은 거의 다 남자노인의 차지이고,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자리의 상당수도 남자노인이 차지하고 있다. 남자노인들은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일찌감치 자료열람실의 책상을 차지한다. 이 노인들에 대한 선호는 좀 걸린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노인들이 젊은이들의 공간을 점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신문을 큰소리로 넘기고, 전화를 받기도 한다. 계속해서 헛기침을 해대고,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침을 발라놓는다.

저녁시간이 되면 또 다른 풍경이다. 최근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평일 낮 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직장인들을 고려해 평일 저녁 시간대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배치된다. 나도 그런 프로그램을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노인이 있어서 조금 놀랐다(당시 강좌의 주제는 과학이었다). 인천의 한 도서관에서는 성인대상 학습프로그램 수강자 중 47%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고 한다. 많은 수의 노인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노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인지 어쨌는지 그 분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이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함께 수업을 들었던 노인들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수업에 임했다. 많은 나이에 또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그들의 모습은 약간 감동스럽기까지 했다. 노인들은 여기저기로 진출한다.

종로에 있는 햄버거가게에 가보면 꽤 많은 노인을 볼 수 있다. 젊은이들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들어간 그곳에 많은 노인들의 존재는 어색하고 불편하다. 왜 난 20년 전 대학로의 카페에 있던 노인들에게서는 동경을 느꼈는데,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함을 느끼는가? 생각해 보면, 대학로 카페의 노인을 보고 ‘저런 노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젊은이들의 공간에서도 하나도 어색함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의 역량이었던 것 같다.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공간에 멋들어지게 어울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렴풋이나마 그들의 삶을 본 것 같았다. 내가 종로의 햄버거가게에 있는 노인들에게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노인이어서가 아니라 나와는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 그곳에서 내가 즐기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것 같은 느낌 때문일 것이다. 내가 같은 도서관에서 어떤 노인들에게서는 호의를 느꼈지만 어떤 노인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던 것 역시, 그들이 단순히 노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기존의 질서를 망가트리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잘 지켜지던 도서관에서의 질서는, 그 질서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지,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 것인지, 패거리의 힘을 믿는 것인지, 손에 침을 뿜뿜 문혀가며 언젠가는 내 입으로도 들어갈지도 모르는 침을 책장 하나하나에 문혀놓는 모습이 불쾌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의 오류는 만약 어떤 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 개인의 일탈로 치부했을 일을, 그 노인의 행동을 보고는 ‘노인층’의 문제로 생각했다는 점에 있다. 생각해 보면, 도서관에서 전화를 받거나, 헛기침을 해대는 젊은 사람도 많이 있다. 사실 종로의 햄버거가게에 있던 노인들도 별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들은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다. 나와 다르게 교류가 없었던 무리의 등장은 경계심을 주고, 개인을 너무도 쉽게 집단으로 판단하게 만든다.

5

매주 토요일이면 대한문 앞에 노인들이 모인다(이 글은 2월 24일에 썼다). 광화문 앞에는 그 밖의 사람들이 모인다. 대한문 앞은 노인의 공간이 되고, 광화문 앞은 그 밖의 사람들의 공간이 된다.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젊은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한 이 시대의 노인들을 비난한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2월 10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탄핵찬반여론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60%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 수치는 다른 세대에 비해 여전히 낮지만, 노인들 중에도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음을 보여준다. 노인은 대한문 앞에도 있지만, 광화문 앞에도 있다. 단지, 대한문 앞에는 거의 노인들만 있고, 광화문 앞에는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있을 뿐이다. 노인들로만 구성된 모임들은 노인 전체를 대변하는 듯 보인다. 그러다보니 노인이 모두 대한문 앞에 가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지 위해 일부러 광화문 앞에 나오는 노인도 있다.

노인을 위한 공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뜻이 노인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난 세상을 살면서 몇 차례 노인들과 함께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고,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난 노인이 다른 세대와 좀 더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젊은이들도 노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어색하지 않게 어우러질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키워내는 것이 노인정책으로도, 공간으로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최소한 23년 안에는. 아무래도 난 경로당에 갈 것 같지는 않다. 

도시 노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걷나¹⁾

이선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머지않아 다가올 초고령사회, 대다수의 노인들은 ‘지금 사는 곳에서 계속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돌봄이 필요하겠지만, 그들은 ‘가능한 한’ 익숙한 장소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이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정해진 노인의 기준과는 다르게, 여전히 건강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인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이 주로 겪는 생활고립, 운동부족, 영양불균형 등의 문제는 신체적, 정신적인 쇠약을 불러와 점차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다양한 접근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도시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선, 위에서 제시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크게 ‘사회적 교류 및 신체활동 증진’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이 실제로 원하는 현재 거주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사는 것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보았습니다. 저는 신체적 기능을 개선시키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²⁾를 바탕으로, 노인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노인 보행의 증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보행이란 모든 행위의 기본이 되는 이동 수단이자 신체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인이 집밖으로 더 자주 나와서 다양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이 걷게 되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의 눈에는 얼핏 너무나 단순하고 뻔한 해결책 같지만, 노인에게 있어서 우리 도시, 동네에는 여전히 걷기에 환경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기존의 도시 계획은 걷기보다는 자동차 통행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계획대상 역시 청장년층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이 자주 집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

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걷기 불편한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과 공포감은 지속적인 외출, 신체활동 증진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나 노인이 많이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동네계획 방향의 전환’의 시급성에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현재 거주하는 노인만을 위한 동네계획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과 같은 신체적 약자가 걷기 좋은 동네는 모든 세대에게 걷기 좋은 환경이 될 뿐만 아니라, 젊은 주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노인이 되어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Aging in Place’(이하 AIP) 개념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실제 AIP가 실현되는 곳은 적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늘릴 수 없으니 재정적 자 감축을 위해 커뮤니티 중심의 지역 단위 접근을

강조하는 기존의 방식 때문입니다. 지역(Place)의 범위를 실제 노인의 보행권이 아닌 지자체의 행정 편의대로 보는 것은, 노인이 말하는 ‘익숙한 지역’과는 동떨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방식에서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역 격차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결국 노인친화 계획에 따른 동네의 실질적인 물리적 환경 변화 없이는 AIP가 제대로 실현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필요한 노인의 삶과 생활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의 도시 내 실제 이용행태를 보행 어플리케이션³⁾의 서울특별시 데이터를 통해 관찰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앞서 노인의 도시 내 이용행태를 크게 그 지역에 ‘생활하는 노인’과 ‘방문하는 노인’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노인의 지하철 이동은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AIP의 문제점으로 지적

[그림 1] 조사 대상지의 선정 기준⁴⁾

노인인구	
높음	낮음
노인인구	높음
	낮음
노인인구	<p>[유형 1] 노인이 많이 살고, 많이 내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이 많이 살고 이용할 것도 많은 보다 노인친화적인 지역 방문하는 노인도, 생활하는 노인도 많은 각각은 동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청량리역, 제기동역, 구산역
	<p>[유형 2] 노인이 적게 살고, 많이 내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은 적는데 이용할 게 많은 보다 노인 위주로 돌아가는 지역 왜 노인이 방문하고 모이는 걸까? 노인을 모이게 하는 시설 및 특징은 무엇일까? 동묘앞역, 신설동역, 종로3가역, 동대문역
노인인구	<p>[유형 3] 노인이 많이 살고, 적게 내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은 많은데 이용할 게 별로 없는 청년, 젊은이 위주로 돌아가는 지역 노인에게 불편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는 양태는 어떨까? 여의도역, 녹사평역, 이태원역
	<p>[유형 4] 노인이 적게 살고, 적게 내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이 적고 이용할 것도 적은 청년, 젊은이의 대표적인 활동영역 노인이 별로 가지 않고, 살지 않으므로 노인의 행태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의미가 적다 강남역, 신논현역, 홍대입구역, 합정역

3) ㈜스왈라비의 ‘WalkOn’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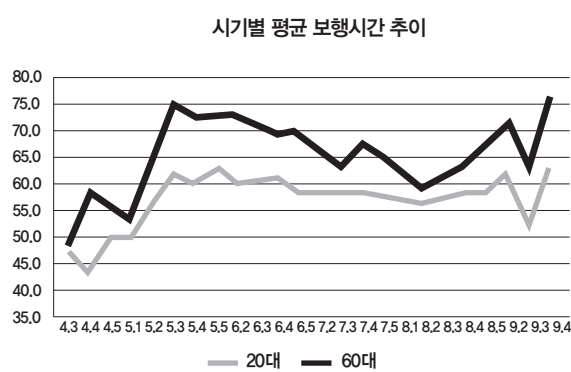
4) 이선재, 앞의 논문, 31쪽.

1) 이 글은 「노인보행 실증분석을 통한 지하철역 중심의 시설 이용 실태」(이선재, 2017)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4 체육백서』 동기관.

[그림 2] 노인과 청년의 보행양태 비교 ⁵⁾

평균	노인(65세 이상)	청년(20대)
걸음수 (1분당)	102.36걸음	130.94걸음
보행거리 (1분당)	47.94m	86.47m
총보행량 (하루)	6,607걸음	7,311걸음
보행시간 (하루)	약 64.6분	약 55.8분



되는 지역격차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지하철 이동을 통해 방문한 지하철역 일대의 보행권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주거지에 노인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사대상지를 <그림 1>과 같이 유형화했습니다. 본고에서는 우선 노인의 전반적인 보행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노인보행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이 많이 살고 또 많이 방문하는 제기동-청량리 지역에

서 관찰되는 ‘생활하는 노인’과 ‘방문하는 노인’이 만들어내는 이용패턴을 통해 노인의 도시 공간 이용행태를 분석했습니다. 노인의 보행행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선행연구⁷⁾를 근거로 하여 노인과 청년의 1분당 걸음수와 보행거리를 추산한 것이 <그림 2> 왼쪽 표입니다. 예상대로 노인이 청년에 비해서 짧은 거리를 천천히 걷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집한 하루 동안의 총보행량 역시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루 동안의 보행시간은 노인이 청년보다 더 많습니다. <그림 2>의 오른쪽 그래프는 시기별 하루 동안의 평균 보행

[그림 3] 제기동-청량리일대의 현황과 역세권⁶⁾



[사진 1] 노인비율이 높은 제기동 모습



©이선재

[그림 4] 방문하는 노인의 목적지 온도지도⁸⁾



[그림 5] 생활하는 노인의 목적지 온도지도⁹⁾



시간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도 시기에 상관없이 노인이 청년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걷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보행시간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는 청년에 비해 노인의 경우는 계절에 따른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천천히 오래 걷는 노인들에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지하철역 노인하차율(%) : 제기동역(53.0), 청량리역(36.7), 용두역(32.7)
- 노인인구비율(%) : 청량리동(20.4), 제기동(17.8), 용신동(16.0), 전농1동(14.5)
- 노인인구수(명) : 용신동(4,779), 제기동(4,537), 청량리동(4,405), 전농1동(4,304)

다음으로 구체적인 지역에서의 실제 보행이동 패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기동-청량리 일대는 [유형 1]에 속하는 곳으로서 노인인구가 많고, 노인들의 지하철역 하차율 역시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보행경로를 출발점의 지하철역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2개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지하철역을

출발점으로 하는 경우’는 귀가를 제외하면 외부에서 방문하는 노인에 의한 보행 비중이 높고, ‘지하철역을 출발점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거주하는 노인에 의한 근린보행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의 노인집단에 의한 보행경로의 목적지 분포를 보여줍니다. 두 온도지도를 비교하면 집단별로 목적지의 분포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자와 거주자의 동네 이용행태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노인들은 주로 약령시, 한의원, 약재상을 필두로 하여 콜라텍, 사우나 등을 찾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원이나 다방, 은행 등 단골 위주의 장사를 하는 곳으로의 방문이 많았으며, 이러한 분포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지하철역을 출발점으로 하지 않는 경로의 목적지는 재래시장, 식당가, 주민 편의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하철역 보다는 주거지에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하는 노인들이 주로 찾는 시설은 일반주거 지역에 설치될 수 없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주로

5) 이선재. 앞의 논문. 26쪽.
6) 이선재. 앞의 논문. 42쪽.
7) 손호희 · 김은정. 2013. “보행경로 너비에 따른 노인의 시·공간적 보행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444-451쪽.

8) 이선재. 앞의 논문. 45쪽.
9) 이선재. 앞의 논문. 45쪽.

[사진 2] 방문권에 속하는 약령시 풍경



©이선재

[사진 3] 생활권에 속하는 재래시장 풍경



©이선재

속해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하는 노인과 방문하는 노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곳이 각각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목적지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시설별로 얼마나 멀리서 접근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이동경로별 평균걸음수를 분석했습니다. 순위가 더 높을수록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평균걸음수가 더 많은, 즉, 더 멀리에서도 시설 이용을 위해 방문함을 보여줍니다. 문화센터, 교회, 성당의 경우는 멀리 있어도 기꺼이 가는 편이고, 병원은 보다 가까운 곳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업시설의 경우 이동경로가 짧을수록 이용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노인은 시설이용에 있어서 거리에 민감하며, 이에 따라 방문하는 거리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설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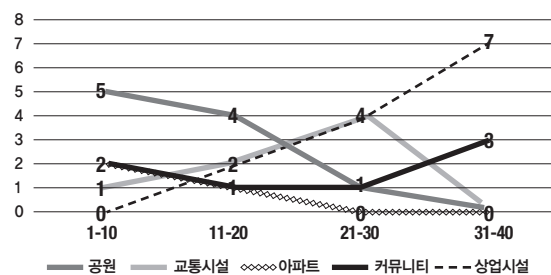
로 기꺼이 방문하는 거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반영한 동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노인은 천천히 오래 걷고 환경에 민감하다는 것, 시설 분포에 따라 동네 이용패턴이 거주자와 방문자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을 지하철역과 주거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배치해야 좋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별로 기꺼이 방문하는 거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통해 노인친화 동네계획을 통한 신체활동 증진의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 도출한 결과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으며, 노인의 실제 보행이동패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더욱 많습니다. 결국, 노인이 도시에서 어디로 이동해서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노인을 위한 노인이 걷기 편한', 또한 신체활동이 증진되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인친화 동네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자세가 노인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선과 관심

- 01 보행
가로유형별 보행지표, 주민과 함께 만든다 김은희
- 02 마을만들기
천연동·충현동 희망지사업을 돌아보며 박승배
- 03 생활문화
통합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 어제에서 내일로 김남진

[그림 6] 보행량 순위에 따른 목적지 분포 경향¹⁰⁾



10) 이선재, 앞의 논문, 63쪽.

가 로 유 형 별 보 행 지 표 , 주 민 과 함 께 만 들 다

●
도시연대와 보행운동

1994년, 도시연대의 전신인 시민교통환경센터가 문을 열면서 선언한 운동은 ‘어린이 교통안전’이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가생활도로가 거점이어야 하며, 이 운동의 주체는 바로 ‘주민’이라고 판단했는데, 『주택가 생활도로 정책 개선방안 및 학교권역 설치에 관하여(1994)』는 이러한 고민이 외화된 현장밀착형 연구보고서로 이를 계기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마을만들기 운동’을 시작한다.

통학로를 중심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한 지역에서 보통 2천명이 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았다(당시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3~4천명을 웃돌았기에 가능했었다).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동네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주민들이 당당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을만들기운동’ 미래상을 그려보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생활도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관계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는 단순한 주제로만 접근하다보니 모든 동네에서 동일한 형태인 지점별 보행안전시설물 설치(그것도 아주 기초적인)로 귀결되는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래로부터 개선해나가는 운동방식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보행환경은 기대치만큼 나아지지 못했으며, ‘생활도로에서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자괴감으로까지 연결되었다.

1995년 10월, ‘보행조례제정운동’을 구상하게 된 것은 시설물 중심인 보행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개선운동을 확장하고 질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조건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1996년,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는 ‘보행조례제정운동·서울시청 앞 보행자광장만들운동·횡단보도설치운동’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활발한 시민운동을 펼쳤다. 1997년 서울시 보행

조례 제정, 1998년 서울시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2004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조성은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의 성과였다.

2002년부터 4년 간 진행된 ‘연천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 전문가 네트워크

크를 기반으로 시설물 중심에서 벗어나 도로구조와 시설물, 운영관리 및 규제를 통합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기반은 철저히 ‘주민참여’였다.

[표 1] 미완성인 도시연대의 보행운동과 정책 변화

년도	도시연대 활동	보행 정책
1994	● 시민교통환경센터 창립 / 주거지 이면도로에서의 교통행동 및 사고특성 토론회 / 생활도로개념 제시 / 어린이에게 안전한 마을만들기 시작	지구교통개선사업
1995	● 어린이보호구역 도입 요구 / 어린이자전거안전교실 및 면허시험	어린이보호구역역지정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1996	● 걷고싶은서울만들기운동본부 출범(서울시보행조례제정요구 / 횡단보도설치요구 / 시청 앞 보행자광장 요구) ●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창립 ●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과 현실화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1997	● 5호선 지하철 역 주변 횡단보도 복원 요구 / 안전한녹번초등학교 통학로만들기운동 / 통학로교통안전지도 제작 / 교재-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교통안전 발간	인사동, 관철동, 명동 차 없는 거리 시행 서울시 보행조례 제정 덕수궁길 보행자중심의 시범거리 사업
1998	● 버스공영제 도입 요구 및 시민공청회 (도시연대, 녹색교통운동, 서울YMCA)	걷고싶은도시조성 종합계획 수립 서울시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횡단보도 복원사업, 지하철 편의시설설치
1999	● 광화문횡단보도 설치 요구 / 걷고싶은거리만들기사업평가연구	
2000	● 1회 청소년교통학교 운영 / 한강시민공원접근성에 대한 조사연구 /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도로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걷고싶은거리조성 1단계 시범사업
2001	● 2회 청소년교통학교 운영 / 차 없는 날(car free day) 참여	걷고싶은거리조성 2단계 시범사업
2002	● 시청 앞 보행광장 조성 재 요구 ● 생활도로 보행안전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성 조사연구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사업
2003	● 버스개편시민회의 발족 / 연천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시작	노유거리 조성사업 / 청계천복원사업
2004	● 서울광장 관리조례 개정 요구	서울광장 조성 / 버스개선프로그램 시작
2005	● 차 없는 거리 40개소 모니터링	송례문 광장 복원 광화문 사거리 횡단보도 전면 복원
2006	● 연천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완료	
2008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주민참여분야) 참여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 제정
2009		광화문 광장 조성
2012	● 삼촌아 걸어가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제정
2013		아마존사업 / 보도입계명 / 생활권 보행자 우선 도로 / 광화문광장+세종로 차 없는 거리 시행
2015	● 광화문광장 차 없는 거리 모니터링	생활도로 존 30 시행

[표 1]은 도시연대의 보행운동과 정책적 성과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 구성해본 것이다(아직 미완성이고 기억의 한계와 오류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연대 회원들의 의견이 하나 둘씩 더해지면서 완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 표를 살펴보면 보행운동의 한계들이 명확해지기도 하고, 정책과 연관성 속에서 긴장관계가 보이기도 하는데 추후 시기별로 '왜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고, 정책변화가 운동에 미친 긍정성과 부정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이후에 도시연대 외의 많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에 의한 보행운동도 활발해졌지만 행정의 정책변화도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1997년 서울 종로구 관철동 '차 없는 거리' 시행을 시작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그 외 문화의 거리 등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재정비사업, 보행우선구역지정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아마존사업,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이 자치구나 중앙정부로부터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반면 도시연대의 보행 관련 활동들은 상당히 축소되기 시작한다. 물론 횡단보도 설치 요구, 통학로를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활동, 학습프로그램 등을 지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행운동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현 시기 보행운동의 의미와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보행운동은 지점별 시설 설치나 도로구조 개편 등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가로의 기능을 규명하고, 가로의 기능과 성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관점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활동과 참여'만이 아니라 '주민과 전문가, 행정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방식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일상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생활도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할 것인지를 찾아나가야 한다.

● 왜 보행지표인가?

보행운동은 '안전성'과 '쾌적성'을 중시하는 환경개선운동에서 벗어나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특성과 다양한 삶의 행위를 복원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이 만드는 보행지표'를 시작하게 되었다.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 평가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행지표가 아니라 가로별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가로별로 어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주민과 함께 찾아나가기 위한 '도구로서 보행지표'를 설정한 것이다.

물론 보행지표에 대한 연구나 정책들은 매우 많다. 실제 본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전문가들에 의해 수많은 지표들이 개발되었고 시행되고 있는데 왜 또 보행지표를 만드는가'였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표를 어떻게 주민들이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전문가들의 결과와 뭐가 다른가'라는 의구심이었다.

우선 기존 보행지표들은 다양한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으며, 또한 현장조사 내용이나 방법들도 매우 정교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한 만족도 설문도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용하거나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즉, 전문가 중심, 시설물 중심, 보행행위 중심, 만족도 중심의 보행지표이기 때문에 주민

들은 수동적 응답자에 머물게 된다. 시설물 관리 상태 등에 대한 평가는 그 시설물이 그 가로에 적합한가 아닌가라는 판단은 유보시키며, 걷는 행위에만 국한되는 평가는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와 정책들은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가로 위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과 환경들로 매우 포괄적이다. 예를 들면 가로에 인접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소음도 보행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보행정책을 단순히 걷는 행위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보편적 삶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도시환경과 도시정책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통중심의 보행지표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또한 보행정책은 가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보행지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가로에서 현재와 같은 보행지표는 가로의 기능을 되살리는 정책방향 설정 도구로 자리매김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보행지표는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시설물 설치나 관리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기인하는데 이로 인해 시설물 과잉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장래 보행정책의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생략된다. 보행은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있음으로 그 가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체감만족도가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가로를 어떻게 만들고 싶다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보행정책에 대한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주민과 함께 만드는 보행지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냈는가? 솔직하게 이야기하

면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끊임없이 모색했는데 식상하게 들리겠지만 '주민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풀어나가고자 했다.

실제 그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며 해당 가로에 대해서는 그들만큼 잘 알고 어렵다. 따라서 주민들의 관점에서 보행환경을 재해석하고, 관련 용어들도 보다 친숙한 일상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일회적 참여가 아니라 지속적 참여, 직접 참여주민과 비 참여주민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어떻게 진행했는가?

주민참여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제 다들 식상해한다. 주민협의체에 대표성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현재와 같은 직접참여방식이 갖는 한계, 참여주민과 비참여 주민간의 갈등, 엄청난 노력을 통해 주민참여과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집행에 들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고충들까지 당위로는 인정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한계에 봉착하는 것이 주민참여다.

서울시가 어린이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시작한 아마존(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사업만 보더라도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구성, 현장답사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통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이는 현재의 문제점 파악과 문제해결에 치중하면서 가로의 성격에 따른 관리방안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시설물의 적합성이나 효과성 분석과 공유 부재로 인해 새롭게 설치한 시설물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으며, 문제 대

응형 시설을 대안으로 설정하면서 시설물 과잉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다른 정책과 연계성을 고민하고 접근해야 하나 ‘교통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간과했으며 이해관계 상충이 벌어지는 현상은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제공 부재’에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은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나 단계별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주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관련 정책이나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정책이나 제도의 한계는 또 무엇인지 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정보를 미리 구축하고 제공했어야 했다. 즉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실천을 모색하는 과정마다 적절한 정보들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 적합한 정책을 찾아낸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보행지표는 ‘현재의 문제점 진단 + 보행에 대한 이중적 태도나 다른 견해 차이 파악 +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 + 향후 발생할 문제가 무엇인지 예측 + 우리 동네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동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파악 + 보행에 대한 미래가치를 만들고 공유하는 과정’을 갖고자 했다.

① 모든 문제를 나열하기

11개 대상지별로 포커스 그룹들을 구성해서 지도를 펼쳐놓고 주요 가로별로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체크하게 했다. 이는 보행을 단순하게 교통문제나 시설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관점을 갖기 위함이었는데 걸으면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과정

이다. 그리고 문제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갔는데 사람의 문제, 정책의 문제, 시설의 문제, 이용행태의 문제, 가로 구조적 문제 등 원인들은 중첩되기도 하고 또 단순하기도 하다. 11개 거점 34개 가로들을 대상으로 나온 의견들은 총 375건이었다.

② 기초분석 및 현황을 정리하기

375건을 유사한 내용끼리 분류한 후 각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28개 개선항목은 참여한 포커스그룹들에 의해 정리된 것으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방향이다. 이를 다시 구분한 결과 7개 보행지표가 도출되었는데 보행지표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참여 주민들에 의해 사업내용과 정책방향을 수립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물론 개선항목이나 보행지표는 좀 더 섬세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지만 주민들이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매우 현실적이기도 하다. 문제점 나열에는 아주 심각하게 제기된 주차문제가 개선항목으로 전환되면서는 ‘보도 위 주차차량 단속’으로 축소되는데 이는 주차형태나 주차차량 소유관계, 골목길 이용형태에 따른 주민들의 현실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주차문제는 정책적 실패에 따른 문제이며, 이는 주차정책으로만 풀기보다 다양한 정책들이 총합된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표 2] 보행 지표 및 개선항목

개 선 항 목	보 행 지 표
속도규제 승용차 통행규제 대형차량(공사차, 관광버스 등) 통행 규제 난폭운전규제 일방통행 시행 보도 위 주차차량 단속	차량규제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신호등 보행시간 충분히 제공 횡단보도 대기 공간 충분히 확보 횡단보도 대기 시간 간격 조정	횡단안전
보도, 가드레일 등 입체 보행 공간 확보 보행량을 고려한 유효 보도폭원 확보 보행자 우선도로 형태로 도로 포장 도로 파손 및 물고임 정비 눈, 비올 때 도로 미끄럼 개선	보도안전
교차로 및 곡선부에서 시야 확보 노면표지 및 표지판 시인성 확보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위험 개선 어두움과 으스스함 개선	통행안전
소음개선 (자동차, 호객행위)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화단 및 가로수 등 녹지공간 조성 휴게 공간 및 쉼터 설치	건고심은도시조성 종합계획 수립 서울시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횡단보도 복원사업, 지하철 편의시설설치
길찾기를 위한 안내지도, 표지판 설치 역사적 장소에 안내시설 설치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확보	
볼거리와 즐길거리 필요 역사와 문화 경관 및 건축물 보존	거리문화

③ 가로유형별 보행지표 선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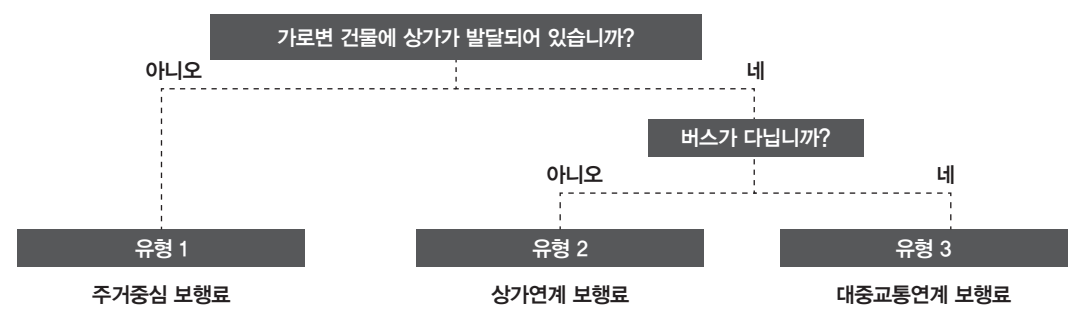
주민참여는 ‘주민들만의 참여’가 아니라 ‘주민을 중심에 둔 다양한 네트워크의 참여’이며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유형구분이나 이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전문가의 몫이다.

포커스 그룹과 함께 정리한 28개 개선항목이 각 가로 유형별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는 34개 가로별 28개 개선항목 적정성에 대한 설문조사, 군집분석, 군집분석결과와 현장조사결과 비교분석을 통한 이루어졌는데 가로유형 구분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용도를 주거중심과 상업중심으로 구

분하고,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집분산도로 기능을 버스통행과 버스 미통행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주택가 생활도로는 크게 3가지 유형(주거중심보행로, 상가연계보행로, 대중교통연계보행로)으로 구분되었고 각 유형별 보행지표 역시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즉, 가로유형별 정책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중심보행로는 차량속도, 난폭운전, 보도 위 주차 등 차량 규제가 가장 시급하며 이미 설치된 보행관련 시설물의 효용성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가 필요했다.



상가연계보행로는 횡단안전, 차량규제, 보도안전이 가장 시급하며 가로 특성상 발생하는 문제 및 이해관계자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연계보행로는 차량규제, 통행안전, 횡단안전이 가장 시급하며 세부 개선사업으로 보·차

도 명확한 분리와 보도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 횡단안전확보 등이다.

④ 보행지표 현장적용하기

포커스그룹들의 의견을 가로별로 재정리하여 일반 주민들과 피드백하는 과정은 ‘주민과 주민간의 공유’를 하기 위함이었다. 녹번초등학교와 안


평초등학교를 시범으로 진행했는데, 각 학교별 500명의 학부모들이 포커스그룹의 의견을 검토하고 설문에 대해 응답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들을 빼곡히 적어서 보내줬다. 이를 토대로 2개 초등학교 각 가로의 보행지표와 실질적인 개선사업을 설정한 후 현재 서울시의 정책사업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무리

이 글은 보행지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보다 보행운동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행지표가 보행운동의 방향에 어떠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하게 소개한 글이다(상세한 과정과 단계별 결과물은 이후에 발행할 「주민이 만든 보행지표」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계도 명확하다. 지표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인 조사와 평가를 통해 보완해야 하며, 사례 가로도 확대되어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 가로 유형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분류체계도 수립되어야 하며,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시스템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주민이 만든 보행지표는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면서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정책방향을 수립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깊게 고민하고 한 발짝 앞선 방향을 찾아나갔던 절묘함도 포커스 그룹의 지속적인 활동과 일반 주민의 검증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개인욕구’ 차원에서 ‘사회공동체’ 관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수동적인 이용자에서 ‘견고 싶은 도시’의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적극적인 이용자로 전환한 것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

야만 다양한 개선방안 모색과 단계별 실천을 도모할 수 있음을 다시금 배우게 된다. 

[표 2] 가로유형별 보행지표 현장적용 결과 (일부가로 예시)

가로명	가로유형	보행지표	개선항목	주민동의	적용
서오릉로	주거중심 보행로	차량규제	통과차량규제	63%	
		차량규제	교통위반차량규제	35%	
		보도안전	보도확장	67%	
은평로13	상가연계 보행로	차량규제	주차차량규제	78%	◎
		차량규제	속도규제	75%	◎
		보도안전	보도설치필요	81%	◎
은평로21	상가연계 보행로	차량규제	통행차량규제	82%	◎
		보도안전	보도단절 개선	76%	◎
		통행안전	주차장 진출입로 안전확보	78%	◎
		차량규제	공사차량통행규제	75%	◎
		횡단안전	횡단보도에 신호등설치 필요	73%	◎
녹번로	대중교통 연계보행로	차량규제	속도규제	66%	
		차량규제	학원차량주차규제	48%	
		차량규제	주정차단속	57%	

천연동 · 충현동 희망지사를 돌아보며



● 들어가며

3월이다.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과 충현동에서 진행한 희망지사업(이하 서대문 희망지사업)이 끝난 지 두 달이 됐다. 그사이 천연동 · 충현동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하 활성화지역)에 선정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해 지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기회를 얻었다. 축하할 일이다.

6개월 간 진행한 희망지사업의 평가가 긍정적이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어떤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탈락한 곳은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사건이지만 희망지사업이 6개월 간 지역주민의 참여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선정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평가 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주민참여의 노고를 격려했으면 하는 생각과 자기 지역의 활동이 어떻게 평가됐는지 알아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 희망지사업의 배경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사업 구역인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진행하는 예비단계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과업을 미리 시도하여 주민참여 역량을 진단하고 본 사업을 잘 하는데 필요한 점들을 점검하는 예령(豫令)이다. 활성화지역은 2014년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해 규정한다. 이 법률에는 희망지사업이 없다. 도시재생사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시책이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서울시는 그간 추진해 온 주거환경관리사업, 마을공동체 정책, 도시재생 시범사업 등의 경험을 통해 주민참여의 원동력인 마을공동체 역량이 기대보다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간단히 말해, 이들 사업을 해보니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 수에 비해 주민설명회, 주민교육, 주민워크숍 등에 참여하는 주민 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말이다. 물론 주민참여 수준을 참여주민 숫자로만 간주할 수 없음을 서울시가 모를 리 없다. 더 많은 주민이 사업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도겠다.

또 하나 중요한 취지는 그간 정해진 사업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사업을 설명하는 데 소진해서 정작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생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다. 그래서 희망지사업의 전 과정은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주민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일로 요약할 수 있겠다.

● 천연동과 충현동

희망지사업 대상지인 서대문구 천연동과 충현동 일대는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5호선 서대문역, 3호선 독립문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안에 위치한다. 대상지 면적은 23만㎡, 대상지 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3만 명이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충정로와 서대문 역세권, 전통시장인 영천시장 상권이 떠들썩듯 주거지를 에워싸고 있다.

주거지에는 도시형한옥과 단독주택이 일부 남아 있고 대개는 다세대와 다가구 빌라로 형성되어 있다. 도심부와 가깝고 지하철 3개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이 편리해 젊은 세대 및 가구가 많이 거주한다. 반면 고령자,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서대문구 평균보다 높다. 치우침 없이 여러 세대와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의 정서는 길 건너 돈의문 뉴타운이 들어서기 이전의 교남동과 닮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큰 대로가 두 지역을 나누고 있지만 서대문구 천연동과 종로구 교남동은 영천시장을 중심으로 같은 생활권이라 볼 수 있다.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간에 지연과 학연이 유지되는 지역은 많지 않을 것으로 짐작한다. 교남동이 그랬는데 이곳 천연동과 충현동이 그렇다.

2016년 희망지사업 공고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이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법정최저 기준을 세 개 중 두 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이었다. 첫째, 인구가 줄어들거나 고령자 수가 늘고 있는 곳, 둘째,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줄어드는 곳, 셋째,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곳이다. 천연동과 충현동은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희망지사업을 6개월 진행하고도 쇠퇴의 요인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한 점은 부끄럽다. 앞으로 활성화

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쇠퇴요인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희망지사업의 역할주체

서울시는 주거재생지원센터를 해체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추진반'(이하 추진반)을 구성했다. 2017년에는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반은 서울시 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 희망지사업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추진반이 가장 먼저 진행한 일은 '서울시 도시재생활동가포럼'(이하 활동가포럼)이다. 활동가포럼은 도시재생관련 현장사무를 교육하여 주민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활동가를 직접 양성한다. 희망지사업 체계를 유지하는 가중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2016년에는 90여 명이 교육을 받았고, 실제 20개 현장에 배치된 활동가가 대상지 별로 2~4명인 것으로 안다.

다음으로 지원단체가 있다. 도시연대는 우수한 엔지니어링 회사인 '온공간연구소'와 서대문 희망지사업의 지원단체로 참여했다. 서울시는 선정지역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협약을 지원단체와 체결한다. 행정적으로는 관련 사무의 총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원단체는 주민조직,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부터 현장사무의 일정 부분까지 책임을 맡는다. 하지만 추진반은 희망지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주민조직과 활동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추진반이 주민조직이나 활동가의 실무에 대해선 꾸준히 모니터링한 것과 달리 지원단체의 역할과 권한은 제대로 명시한 게 없고, 사업운영에 따른 비용도 예산에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희망지사업 추진경과

① 서울시 통합사업설명회~희망지사업 지원단체 선정 (16.01.28. ~ 16.03.04.)

2016년 1월 추진반은 서울시통합사업설명회 및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희망지사업의 목적과 취지, 내용이 공개되었고 자치구별 관련부서가 희망지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동가 및 지원단체와 미팅을 시작했다. 그간 추진반이 양성한 활동가들은 나름대로 실습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역을 조사하고 주민을 만나는 훈련을 받아 왔다. 이 실습대상지가 그대로 희망지사업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 새로운 지역이 스스로 사업요건을 갖춰 희망지사업을 제안한 경우도 있었다.

서대문구의 경우 활동가들이 임의로 정한 실습대상지는 다른 곳이었다가 구청의 제안으로 천연동과 충현동을 대상지로 변경했다. 선정을 앞두고 어느 지역이 더 적합하겠다는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청 내부적으로 천연동과 충현동 일대를 도시재생 측면에서 고민해 왔던 배경이 있었다. 돈의문, 아현 뉴타운 사이에 위치한 이곳의 상대적 침체와 고립이 서대문구의 정책의지를 자극했고, 결과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도 활성화지역 선정 여부를 검토할 만큼 정책적 관심과 필요성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② 희망지사업 공고~주민모임 구성과 제안서 제출 (16.03.09. ~ 16.04.22.)

일단 활동가와 지원단체 등 외부 참여주체들이 구성되고 2월부터 4월까지의 희망지사업의 홍보와 주민조직을 만나는 일을 진행했다. 엄밀히 2월까지의 천연동과 충현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누구도 희망지사업에 대한 공식적이고 정확한 정

보를 듣지 못했던 터여서 만일 주민 여론이 '그런 사업은 불필요하다'고 손사래 친다면 아무 일도 추진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미 다른 대상지들이 그곳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과 주민이 앞장서는 상황이라면 천연동과 충현동은 처음 시작하는 백지와 다를없었다.

추진반이 파견한 활동가들이 주민홍보에 열중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희망지사업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묻는 일은 지원단체가 맡았다. 이 정책이 가진 바른 취지를 온전히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다.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한 공식적인 행사에 많은 주민이 오지는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던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 주민 중에서도 유독 한 명이 희망지사업과 생각이 맞닿아 있었다. 그 사람은 그동안 동네 부모커뮤니티 모임에만 참여했었는데, 우리와 직접 소통한 것을 계기로 주민모임 대표가 되었다. 주민모임 이름은 '안산자락마을주민모임'(이하 안산자락마을)으로 정하고 대표 한 명과 회원 11명으로 시작했다. 주민모임을 구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권유와 회유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 공고 이후 사업제안서 작성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천연동과 충현동에서 설명회를 열거나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주민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처음 만나는 주민들과 복잡한 도시재생을 전제로 희망지사업 제안을 위한 사전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어색하다. 다시 이 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주민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설명회와 워크숍을 진행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주민 앞에 놓인 필

기도구와 책상과 단상, 설명자료의 부담에 눌러정작 필요한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아 적지 않은 회의가 들었었다.

③ 희망지사업 선정~주민모임 운영위원회 구성 (16.06.01. ~ 16.10.28.)

서대문구 부구청장과 회의도 하고, 여러 자문위원과 주민들에게 주민제안자가 직접 설명하는 발표회도 진행했다. 고위 공무원과 현장 사무에 대해 회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권장할 일이다. 대개 공무원들의 딱딱하고 어색한 분위기에 민간인들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시재생 활동가나 지원단체가 그럴 필요는 없겠다. 현장 사무에 대해 솔직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건 사업현장과 참여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희망지사업 단계에는 천연동과 충현동에 관한 정보만 다루는 정도지만,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면 자치구 정책, 연계 가능한 각종 사업을 함께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물론 성과만 골라내서 보고하는 가짜 회의는 불필요하다.

주민제안자의 발표 중심으로 진행된 선정심사에서 서대문구 희망지사업은 최종 선정됐다. 6월 한 달 동안 과업정리를 하고, 7월 19일 전체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나중에 주민에게 사업선정된 걸 자랑만 하다 끝난 설명회였다고 불멘소리를 들었다. 뭘 하겠다고 임팩트를 주지 않는 설명회니까 당연하다. 여전히 주민참여형 계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희망지사업으로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체감하지 못하는 주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희망지사업 자체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도시재생사업의 예비단계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아마 다수의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걸로 알고 갔을 수도 있다.

현장사무가 시작되자 지원단체와 활동가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장사무를 누가 이끌고 누가 따라야 하는지 질서를 합의하기가 어려웠다. 그간 지원단체와 활동가의 파트너십에 대해 별도의 고민이 없었다. 제안서에 일부 업무 분장 계획을 담았지만, 계획과 실전은 엄연히 차이가 났다. 아차 싶었지만 다행히 서대문구청의 조정과 중재로 이 문제는 서서히 완화됐다. 다른 지역 어딘가가 희망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활동가의 활동 영역과 지원단체의 지원 영역의 충돌지점에 대해 지난한 시나리오 플랜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7월 전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거점공간 운영, 마을자원조사, 도시재생교육, 주민회의, 주민공모사업 등의 필수사업이 진행됐다. 계획한 내용에 비해 활동가 실무 역량이 더더 버거운 와중에 안산자락마을 참여자 수가 12명에서 백여 명으로 늘어났다. 주민모임 구성원에 대한 정보 전달과 공유체계가 느슨해졌고, 나중에 참여한 주민들이 주민대표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주민모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필수사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희망지사업을 적극 이해할 것으로 여긴 단일함이 문제였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안산자락마을 주민모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구성해 사태를 정비하고자 했으나 참여자가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운영위 구성은 번번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또한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준비과정이어서, 적극 참여하기에는 아직 확실한 게 없다는 이유로 주민모임 참여들의 관망세가 길어졌다.

서둘러 운영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내부 여론에 맞춰 결국 10월에 이르러서야 운영위가 구성되었다. 희망지사업까지는 현 대표 중심으로 주민모

임을 운영하고,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역의 여러 조직과 주민모임의 배경에 맞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주민협의체를 새로 구성한다는 공약으로 안산자락마을이 지역 내에서 신임을 받게 되었다. 서대문구 희망지가 다른 곳에 비해 운영위 구성이 늦었는데, 생각해보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7월부터 3개월 안에 운영위가 구성됐으니 내 기준에서는 빠른 편이었다고 생각한다.

④ 주민모임 운영위 구성~활성화지역 최종선정 (16.10.28. ~ 17.02.16.)

대표에게 집중되었던 부담이 운영위 구성 후 분산됐다. 운영위 구성원 간에 성향 충돌이 없어 놀라웠다. 40대와 50대 주민이 주축이 되어 활동력과 기동성이 높고 의사결정도 신속한 편이었다. 솔직히 취향이 세련된 편은 아니었다. 취향에 공감 많이 가는 쪽은 현장거점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0대에서 60대 여성들이었다. 운영위는커녕 희망지사업의 프로그램 참여도 주저하는 편이지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현장거점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즐겼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에서 그리는 현장 스케치에 어울리는 쪽이다. 다행인 것은 운영위나 주민 동아리 모임이 서로 호감을 가지는 분위기다. 자기 말만 옳다고 끝까지 설득하려는 주민이 없다. 거침없이 주장하고 납득도 쉽게 하는 편이다. 1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원만한 분위기는 보기 드물었다.

운영위는 마지막까지 더 많은 주민들에게 희망지사업을 홍보했다. 결국 2017년 2월, 서대문 희망지는 활성화지역에 최종선정 됐다. 무엇이 선정 근거였을까. 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천연동과 충현동의 입지 환경 때문이다. 대상지 주변이 전부 재개발된 아파트이고 맞은편 돈

의문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해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회생의 필요성이 부각된 점, 역세권 상권과 전통시장이 주거지와 연결되어 지역경제와 생활의 활성화와 안정이 공동으로 모색되는 점, 도심과 가까운 생활권이면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점, 그로 인해 근린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문화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모델로 확장 가능하다는 데 힘이 실렸다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건전한 주민활동이다. 천연동과 충현동은 필요한 것에 솔직담백한 공동체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1년 간 지켜본 주민들은 자신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에 솔직하게 묻고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추상적이거나 낙관적이지도 않고, 체면을 차리거나 불필요한 겸양도 없다. 주민모임의 운영위와 주민 동아리 활동이 희망지사업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날로 활발해지는 이유다. 이걸 나 혼자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서대문 희망지사업을 함께 했던 행정과 주민이 왜 천연동과 충현동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지를 자문하고 답을 찾았던 결과다. 서대문구청의 도시재생 비전이자, 주민 활동의 경험이기도 하다.



● 나오며

행정의 비전과 주민의 필요는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희망지사업에서 도시연대와 온공간연구소 같은 지원단체, 추진반이 양성한 도시재생활동가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걸까. 행정의 비전과 주민의 필요가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 독립적일 수는 없다. 행정의 비전은 실현되어야 정책으로 지속될 것이다. 주민의 필요는 충족되어야 다른 지역으로 도시재생의 목표와 가치가 확산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를 프로그래밍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희망지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지원단체나 활동가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활동가, 지원단체 등 사업의 총괄주체가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애매한 말을 때문에 스스로 자기 활동도 모호하게 할 수 있다. 행정의 비전과 주민의 필요를 프로그래밍하려면 활동가와 지원단체의 전문성이 아주 중요할 텐데, 희망지사업은 이 점에서 몇 가지 이슈가 있다.

첫째, 일단 전문가를 믿고 정했으면 의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력이 의심되면 쓰지 말았어야 한다. 현장 사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없어야 한다. 정확한 메시지가 없는 소통은 간섭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 말은 전문가가 자신의 실력을 설명할 수 있을 때를 전제한다.

둘째, 문제 발생을 문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희망지사업은 여러 주체가 협력해서 진행하는 만큼 현장 사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지꾸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평가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 발생 자체를 잘못됐다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문제를 감추는 노력을 하게 된다. 문제가 감춰진 사업으로는

정책이 올바르게 나갈 수 없다.

셋째, 참여는 팩트일 뿐 열정이 아니다. 앞선 이슈들에 성실히 대응한 후에 참여주민 수는 객관적인 정보로만 다뤄져야 한다. 어떤 프로그램에 주민이 많이 오면 관심이 높은 일이고, 적게 오면 관심이 적은 일일 뿐이다. 관심이 적은 일 중에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법이고, 참여자가 적다고 굳이 많이 오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선물 같은 걸 주거나, 개그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주민의 참여 숫자 자체가 단순한 정보이고 정보는 분석하고 대응해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면 된다. 이걸 주민참여의 설계와도 관련 있다. 도시

연대는 ‘참여’를,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는 개념이라 보고 이를 지지한다. 가령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소수 주민들에게 자기들 입장만 내세우는 참여를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도 옹호하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관계, 맥락이 제공되는 주민참여 설계가 중요할 것이다. 서대문 천연동과 충현동 외에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여러 지역의 주민참여가 지역의 형편과 사정을 더 높고 세련된 수준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통합 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 어제에서 내일로

● 장애 어린이의 놀 권리를 생각한다

어제 일간지 사회면에 “바닥 더럽힌다” 장애인 휠체어 막은 키즈카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어린이와 부모가 키즈카페에 입장하려고 하자 키즈카페 측에서 입장을 막은 사건들을 고발한 기사였다. 기사에서는 장애인의 이용을 차별할 경우 미국 「장애인법」(ADA법)에서는 최초 적발 시 최대 8,600만 원, 재적발 시 1억7,000여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한국에서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단속되지 않아 키즈카페에서 차별 행위가 버젓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사의 댓글을 보니 키즈카페 측을 비판하고 장애인 차별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부모 입장이나 업주 입장에서는 다른 어린이들이 다칠 것을 걱정해 휠체어 반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키즈카페는 주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는 장애인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규모와 상관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어린이들이 놀다가 휠체어 때문에 다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입장을 막는 키즈카페 측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무관심 속에 공공연하게 차별 행위가 용인되고 있다.

내가 일하는 곳은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라는 단체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중심으로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한다. 도시연대와는 1990년대부터 보행권 운동을 계기로 연대하면서 접근권과 보행권의 접점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놀이터 만들기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도시연대와 경기도 대학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정작업소 울, 부천대 도시공간재생연구소와 함께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통합놀이터를 만들면서 ‘요즘 아이들은 어



디서 놀까'를 조사했을 때 다수의 유·아동이 실내 키즈카페를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키즈카페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놀이터는 야외 놀이터이지만, 실내 키즈카페 또한 우리의 관심사이다. 위의 기사를 통해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유·아동의 보호자나 업주들(비장애인) 대다수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장애인의 인권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현실을 재확인했다. 사실 우리가 통합놀이터를 만들 때도 '안전'은 '통합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그룹(물론 어른)의 최대 관심사였다. 통합놀이터에서든 일반놀이터에서든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놀다가 다칠 수도 있다. 장애 어린이끼리 놀다가도 다칠 수 있고, 비장애 어린이끼리만 놀다가도 다칠 수 있다. 그런데 '안전'이 장애 어린이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데서 담보되는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휠체어나 장애 어린이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 같이 놀게 할 수 없다'는 시각을 바꿔 보자.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노는 환경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 '내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함께 놀 권리'와 '어떻게 하면 함께 놀 수 있을까' 관점에서 통합놀이터를 바라봤으면 한다.

● 왜 통합놀이터일까

통합놀이터가 생소할 수 있는 분들에게 통합놀이터를 소개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배경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겠다.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 '꿈틀꿈틀놀이터'라는 통합놀이터를 실제로 만들게 된 것은 아름다운재단과 대웅제약

의 힘이 컸다. 대웅제약은 서울숲과 여의도 국회 어린이집에 무장애놀이터를 만드는 사회공헌활동을 해왔고, 그 세 번째로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이번 놀이터 조성 공사비를 후원했다. 아름다운재단은 그냥 놀이터를 만들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무장애연대를 통해 '통합놀이터 만들기 네트워크'가 연구와 놀이터 조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통합놀이터 연구는 한 번의 놀이터 조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통합놀이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지만, 놀이터처럼 단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기 힘들기 때문에 중요성이 간과되기 쉽다. 그래서 아름다운재단의 연구 지원은 참 가치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세 번째 무장애놀이터를 최초의 통합놀이터로 기획했다. 물론 100% 완벽하다고 답하기엔 아쉬운 점도 많지만, 무장애놀이터가 아닌 통합놀이터이기 때문에 최초라는 수식어보다는 그 과정에 좀 더 주목했으면 한다. 무장애놀이터는 뭐고, 통합놀이터는 뭔가. 언뜻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지만 1년이 넘는 꿈틀꿈틀놀이터 기획 과정에서 네트워크 내부에서는 통합의 개념을 합의하는 데 무엇보다 많은 노력을 쏟았다. 여기서도 먼저 그 차이를 짚고 가야겠다.

무장애는 장벽이 없는 'Barrier free'를 의미한다. 이때 말하는 '장벽'은 물리적 장벽, 태도의 장벽, 정보의 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벽이 없는 놀이터를 무장애놀이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합이란 뭘까. 통합은 무장애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공간이나 세대의 통합처럼 다양한 통합이 논의될 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장애와 비장애의 사회적 통합'을 전제했다. 가령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비장애인의 편견이나 차별적 시선을 제거하기 위

[그림 1] 플레이어의 통합놀이터 7가지 원칙



해 접근성을 높인 장애인 전용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치자. ‘무장애놀이터’는 될 수 있지만 ‘통합놀이터’는 될 수 없다. 만약에 물리적 장애물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편견 없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면 그게 ‘통합놀이터’이다. 물론 우리는 물리적 장애물을 최소화하면서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동등하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접근성은 통합놀이터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놀이터는 결국 장애와 비장애를 분리시키고 장애를 배제시켜 다양한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지 못하는 놀이터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꿈틀꿈틀 놀이터 조성사업은 ‘플레이코어’의 통합놀이터 7가지 원칙을 토대로 진행했다.

원칙은 찾았지만 우리의 고민은 이어졌다. ‘통합놀이터와 일반놀이터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떤 차별성을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다. 기존 무장애 놀이터와 일반놀이터의 현황을 살펴보고, 7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5개의 물음을 설정했다. 이 물음은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물음이다.

- ☒ 놀이시설물 접근에 어려움은 없는가?
- ☒ 놀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가?
- ☒ 어울려 같이 놀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 ☒ 연령·신체·성격 등의 차이에 따른 배려가 있는가?
- ☒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가?

•

장애 어린이 사용자 그룹의 결정

또 하나의 주된 고민은 ‘통합놀이터의 사용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였다. 정해진 공간에 정해진 예산으로 어떤 놀이터를 만들까, 그 안에서 놀게 될 아이들은 누구인가.

일단 장애의 유형부터 파악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분류한 장애의 유형이 15가지인데, 통합놀이터의 관점에서는 이보다 더 큰 범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장애 어린이의 놀이 특성은 장애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이 15가지 장애 유형은 각각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장애유형으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지체장애, 청각장애처럼 단순히 구분해서는 범주를 정할 수 없다. ‘통합놀이터 만들기 네트워크’는 내부 워크숍을 통해서 통합놀이터의 사용자 그룹을 설정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으로 놀이터 사용자 그룹을 결정하기보다는 놀이터에서의 놀이 활동을 바탕으로 사용자 그룹을 설정했다. 이 과정에는 장애 유형과 사용하는 보조기구 종류, 놀이에 따르는 제약,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 등을 신체 활동 측면의 장애, 감각 측면의 장애, 인지 측면의 장애 그리고 이들의 중복 장애의 사례별로 정리했다(『무장애통합놀이터 만들기 매뉴얼』 제3장 참고¹⁾). 그 결과로 꿈틀꿈틀 놀이터 사용자 그룹은 다음과 같이 설정됐다.

- ☒ 지체장애 : 전동휠체어 사용 어린이/수동휠체어 사용 어린이/보행장애 어린이(목발 사용 어린이 포함)
- ☒ 시각장애 : 전맹 및 저시력 어린이
- ☒ 청각장애 : 난청어린이 포함(보청기 사용)
- ☒ 발달장애 : 지적장애 어린이/자폐성장애 어린이

통합놀이터 사용자 그룹을 설정한 후에는 디자인의 기본구상과 참여 디자인으로 나뉘서 연구를 진행했다. 물론 디자인 기본구상을 위해서는 참여 디자인 과정이 선행되어야 했다. ‘통합놀이터 만들기 네트워크’에서 도시연대는 장애 어린이의 부모와 특수학교 및 통합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심층 면접조사를 시작으로 장애 어린이의 놀이관찰과 간담회 등을 통해 사용자 그룹의 욕구를 면밀히 조사했다. 동시에 기본구상팀에서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접근성 실태조사와 비장애인의 장애체험 및 놀이터 이용 관찰, 통합유치원 어린이들의 워크

숍과 놀이관찰 등을 진행했다. 드디어 통합놀이터에 구현해야 할 요소들이 정리되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놀이터가 기획, 조성되고 있다.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놀이터는 주로 놀이시설물을 중심으로 디자인된다. 지형이나 자연물을 그대로 살린 생태놀이터, 자연놀이터는 놀이시설보다는 공간과 놀이 행위를 고민하여 디자인된다. 이러한 작업들은 향후 여러 가지 형태 또는 주제를 가진 개성 있는 통합놀이터 디자인으로도 이어질 거라 기대한다. 우리는 통합놀이터 기본구상에서 놀이시설보다는 통합이 이뤄지는 공간, ‘터’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민했다. 동시에 장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전무한 현실에서 ‘탈 수 있는 놀이기구’에 대한 사용자 그룹의 욕구 또한 반영해야 했다. 그래서 공간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장애 어린이를 비롯해 기존의 놀이터에서 소외되기 쉬운 유아 등을 고려한 놀이시설물의 개발도 병행했다.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놀이시설물 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놀이시설물 업체를 우선 선정했다. 디자이너는 몇 달에 걸쳐 우리의 의도를 반영하여 놀이시설물을 디자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묵묵히 함께 해주었다.



1) 『무장애통합놀이터 만들기 매뉴얼』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http://www.accessrights.or.kr>)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누리집(www.do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주)

●

장애 대상화를 허무는 통합놀이터를 목표로

통합놀이터에 대한 아이디어는 연구진의 해외놀이터 문헌조사와 독일 놀이터 탐방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통합놀이터’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지만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해외의 놀이터와 공원 시설들에 대한 문헌연구는 통합놀이터의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놀이시설물과 놀이 행위에 대한 고민은 독일 놀이터 탐방을 통해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독일의 놀이터에서 만난 어린이들은 한국이나 독일이나 다르지 않았다. 달랐던 것은 어른들이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독일 놀이터도 크게 시설이 남다르거나 획기적이지는 않았다. 장애 어린이가 놀기 힘든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장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시설들이 구성되어 있었다. 비장애 자녀를 데리고 놀이터에 놀러 온 한 어머니는 ‘통합놀이터’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당연히 놀이터는 누구나 같이 노는 곳인데 통합놀이터라는 말이 왜 필요한지, “자녀가 장애 어린이와 함께 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설물보다 ‘함께’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만드는 일이다. 놀이터에 더 많은 장애 어린이가 와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한 공간에서 어울려 노는 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면, 그래서 장애에 대한 편견과 대상화를 깰 수 있을 때야말로 진짜 통합놀이터가 완성된다.

이러한 의도는 놀이터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했다. ‘꿈틀꿈틀놀이터’라는 이름은 시민의 공모를 통해 선정했는데, 입에 잘 붙고 재밌으면

서 어린이들과 친숙한 한글 이름이다. ‘꿈이 움트는 곳’, ‘꿈이 담긴 틀’이란 의미이면서 동시에 무언가 꿈틀꿈틀 시작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통합놀이터 만들기 네트워크’는 놀이터의 이름을 비롯해 놀이터라는 공간에서 장애가 부각되거나 장애가 대상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굳이 놀이터 이름에 ‘무장애나 통합’ 같은 단어를 넣어 장애를 연상시키지 않기를 바랐다. 물론 후속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통합’을 강조했어야 했나, 하는 새로운 고민이 들기는 했지만 말이다.

1년에 걸친 기획과 2개월의 시공을 거쳐서 2016년 1월에 한국 최초의 통합놀이터가 어린이 손님을 맞았다. 꿈틀꿈틀놀이터 개장식에 맞춰 공사하는 동안 안전을 위해 설치했던 펜스를 걷어내고 놀이터를 개방하자 기다렸다는 듯 서울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어린이들과 개장식에 초대된 장애 어린이들이 눈빛을 반짝이며 즐거워했다. 날이 추워서 개장 초반에는 어린이가 많지 않았지만 강해지는 봄기운과 함께 꿈틀꿈틀놀이터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한다. 꿈틀꿈틀놀이터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을 찾는 각양각색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꼭 한 번씩은 들러 놀다 가는 곳이 되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에는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개인 및 단체, 가족 단위 방문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다. 특히 봄과 가을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서울어린이대공원 전체가 성황이고,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바로 꿈틀꿈틀놀이터다. 어린이들은 이곳이 통합놀이터이든 뭐든 그냥 ‘놀이터’일 뿐이다. 거기서 노는 어린이들이 휠체어를 타든 소통이 힘들든 그냥 놀러 온 애들일 뿐이다. 요즘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유치원과 학교에서 장애에 대한 기본 인권교육



을 받고 있다. 장애를 유달리 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섞이지만 않는다면 놀이터는 아주 자유롭고 즐거운 곳이 될 것이다.

●

통합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에 튼튼한 떡잎이 돋았다

‘통합놀이터 만들기 네트워크’는 꿈틀꿈틀놀이터가 완성된 후 조성 과정과 고민, 제안을 담은 『무장애통합놀이터 매뉴얼』을 만들었다.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지자체나 기관 그리고 놀이터를 만드는 시공업체와 시설물업체, 설계업체 등이 참고하여 통합놀이터 발전과 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2016년에는 ‘후속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꿈틀꿈틀놀이터에서 놀이관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앞으로의 놀이터에 대해 고민했다(『무장애통합놀이터 후속 모니터링 보고서』 참조²⁾). 그리고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선도형 모델, 네트워크형 모델이라는 3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매뉴얼에 적었듯이 향후 개선해야 할 법적·제도적 과제, 운영 프로그램과 함



2) 『무장애통합놀이터 후속 모니터링 보고서』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누리집(<http://www.accessrigh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주)

게 지속적인 우리의 연구 주제이자 운동 방향이 될 것이다.

반가운 것은 한국 최초의 통합놀이터인 꿈틀꿈틀놀이터 이후에 통합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부산 기장군에 통합놀이터가 준공되었고, 전주시, 전북교육청 등의 지자체와 기관에서 통합놀이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7년 1월에 그간의 통합놀이터 프로젝트를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통합놀이터 만들기 네트워크' 주최로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때 서울시장 시민청 태평홀을 가득 채운 열기에 무척 감동을 받았다. 놀이터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통합놀이터로 이어진 점이나 실제 공원, 놀이터 기획에 필요해서 찾은 지자체와 기관 담당자들, SH공사나 LH공사 등 놀이터와 밀접한 주택공사 담당자, 사회복지 현장에서 장애의 통합을 고민하는 실무자 등이 통합놀이터에 참석했다.

'통합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의 결실인 것만 같아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지난 1월 31일에 조배숙 의

원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심사 중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제도 마련 등의 의무만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새로 2항을 신설하여 '장애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국가와 지자체에 통합놀이터 조성 및 유지 의무를 갖게 함으로써 향후 놀이터를 만들 때 장애어린이의 놀 권리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국회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통합놀이터가 일반놀이터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될까 걱정이다. 통합놀이터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놀이터가 아니다. 예산 안에서 얼마든지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도록 고민하며 만들어가면 될 일이다. 단지 놀이시설물에만 몰두하게 되면 돈은 많이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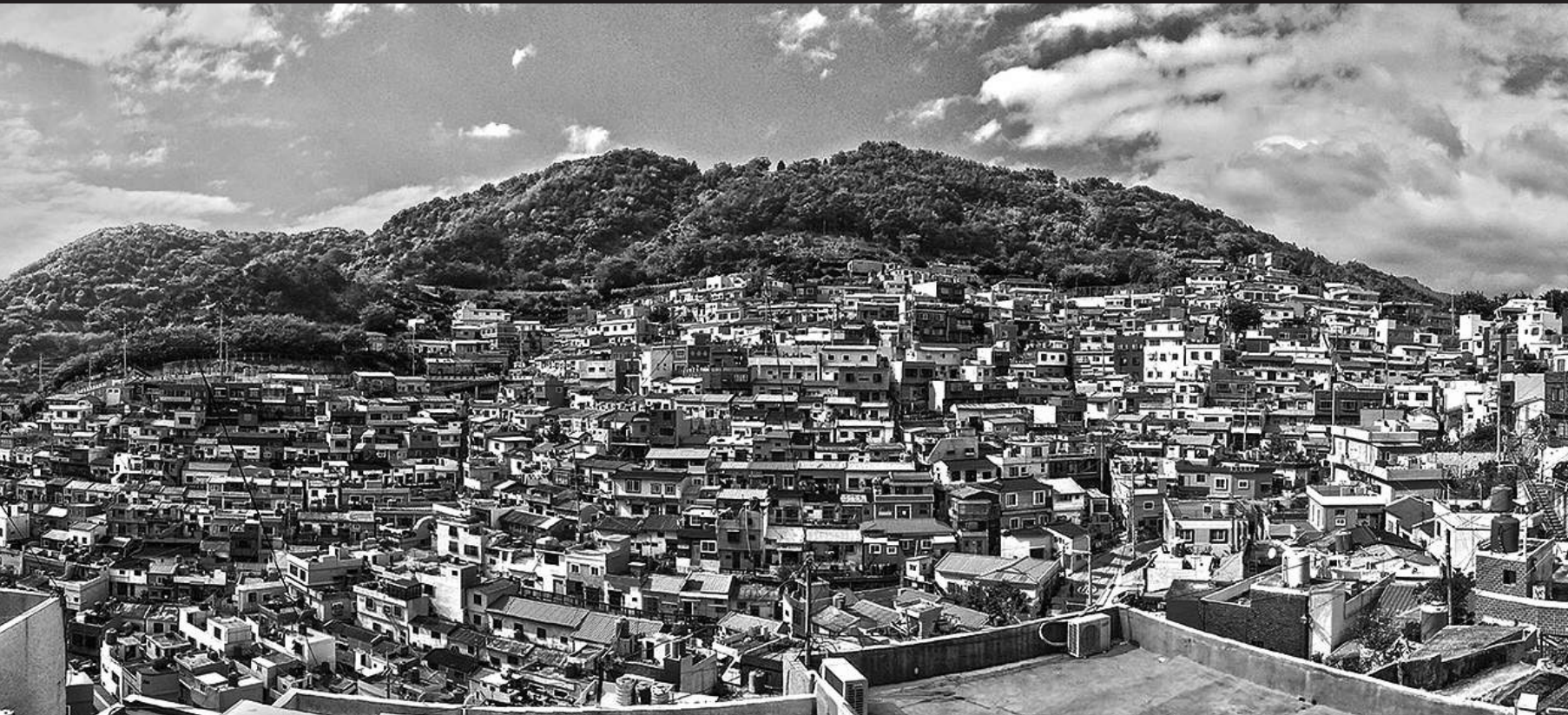
수밖에 없다. 일반 놀이터라면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카탈로그에서 골라서 제작, 설치만 하면 되겠지만, 통합놀이터에 설치할 새로운 놀이시설물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에서 장애 어린이의 접근을 위한 아이디어를 더하는 데 드는 개발 비용은 당연히 필요한 비용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놀이터가 발전되어 오지 않았다. 단순히 비용을 핑계로 장애 어린이의 놀 권리를, 그리고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놀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어린 시절 공터만 있어도 즐거운 놀이터가 되었던 것처럼 놀이터는 시설물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다. 함께 놀고 싶다는 마음 말이다.

그간의 연구와 경험으로 볼 때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인식 확장이 필수이다. 왜 우리가 통합놀이터를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공론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하면서 인식을 확장해야 한다. 지자체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알리

는 작업도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에는 통합놀이터 연구와 홍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프로젝트로,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사용자의 욕구, 전문가의 전문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형태의 단기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있다. 놀이터 사용자 그룹은 놀고 싶은 놀이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놀이터를 만드는 제작 그룹은 전문성을 활용해 구체적인 모델링을 제안하고, 아이들의 관계와 소통에 관심이 있다면 놀이프로그램이나 제도적으로 실행해 볼만한 운영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통합놀이터에 관한 국내외 문헌과 영상 등의 정보를 정리한 아카이브를 추진해보고 싶다. '통합놀이터 만들기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과제로는 놀이시설물 안전 기준과 설치기준을 점검하고 정비해나가는 정책 연구와 통합놀이터를 설치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곳들을 위한 자문활동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 번째 통합놀이터 만들기 작업을 올해엔 꼭 시작하고 싶다.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달동네……

도심의 산자락 중턱에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살던 동네를 예전에 부르던 이름이다.
집들도 허름하고 동네도 어둡고 지저분하며 앞집의 지붕이 우리집 마당이기도 했던,
동네의 환경이 좋지 않아 외부 사람들이 찾지 않던 그런 동네의 기억만이 있다.

세월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면서 도시와 마을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그 옛날의 어둡고, 지저분하고 좋지 않은 기억이 많았던 달동네는
요즘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변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명소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마을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새롭게 마을을 키우는 씨앗이 되는 요소들을 동네 여기저기에 담아내면서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불리는 명소가 태어나기도 하였다.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마을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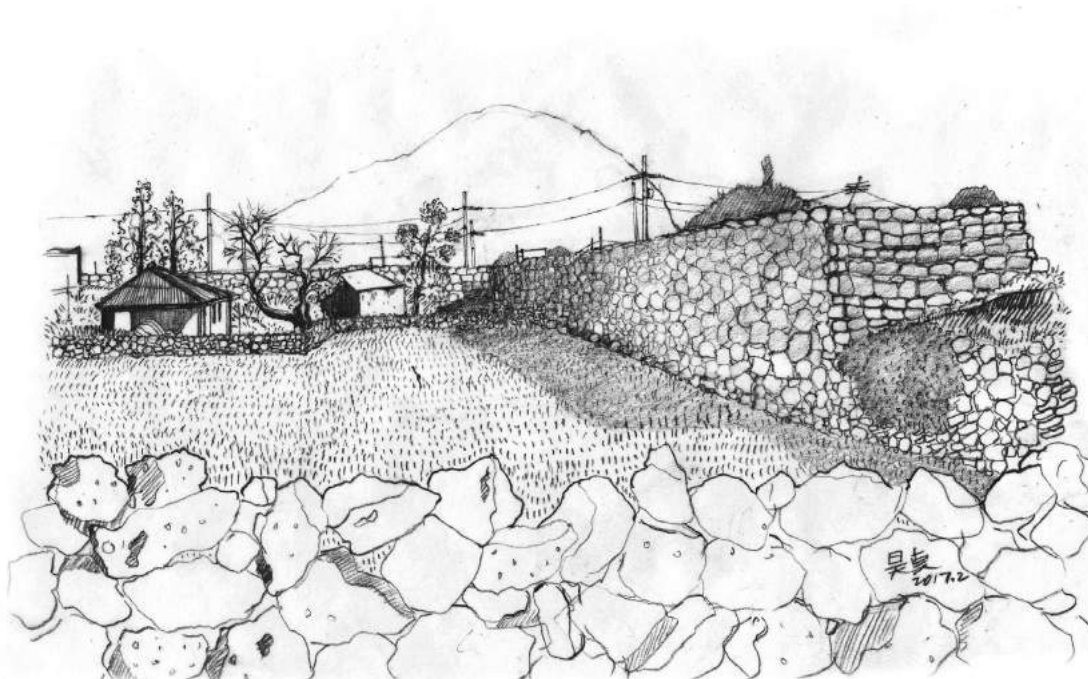
기존의 도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도시로 진화되어 간다. 

대정으로 가는 길

제주 대정읍성과 추사유배지

먼 봄을 기다리다

계절이 변하는 계절은 어수선하기도 하고, 싱숭생숭하기도 하다. 바뀌는 것은 다 그렇다. 겨울과 봄의 경계가 하나의 선이라서 변화란 것이 선 하나를 폴짝 뛰어넘는 것과 같다면, 2월이라는 계절도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때론 우리의 변화무쌍한 계절을 이렇게 겨울, 봄, 여름, 가을로 단순하게 나누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도 싶다. 어쩌면 2월이란, 아직은 쌀쌀한 날씨에 걸칠 두툼한 옷을 사러 옷가게에 갔다가 정작 봄 신상들로 가득한 진열대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의 당혹감 같은 것은 아닐까. 당장은 입지도 못할 꽃무늬 블라우스를 얼떨결에 사들고는 우리는 아직도 먼 봄을 기다린다.



남문에서 바라본 대정읍성과 산방산 풍경 ©이호정

2월의 여행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호함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 땅에서 가장 특별한 여행지로 떠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길에 걸친 두터운 외투가 행여 짐스러워질 것을 걱정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겨울의 끝자락, 오름에서 불어오는 산바람은 얼음처럼 차디차고, 수월봉의 까마득한 단층 아래로 전해지는 바닷바람엔 몸을 가누기조차 어렵다. 한편으론 투둑 투둑 땅바닥에 떨어진 동백꽃이 짓물러가고, 담장 아래 핀 흰 수선화는 세찬 바람을 비웃기라도 한 듯이 활짝 만개했다. 그렇게 여기저기 봄이 멀지 않음을 눈치챌만한 것들이 부지런히 봄을 부추기고 있다. 도대체 봄은, 어떻게 그 단단한 겨울 틈새를 비집고 찾아오는 것일까.



추사관 앞 기태연네 미용실 풍경 ©이호정

사흘간의 제주 여행

한밤중이 다 되어 중산간 어느 오름 아래 숙소에 도착했을 땐 칠혹같이 어두운 밤중이었다. 구름 하나 없이 맑은 밤하늘에는 분명 수만 개의 별이 그저 “보석같이 빛났다”라고 밖에 표현할 길 없는 모양새로 자리 잡고 있다. 도시에 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게 별스런 일이 되고 말았지만, 먼 옛날 밤하늘이 지금과 달리 맑고 어두웠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별들을 매일 밤 쳐다보며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의식세계에 저 검푸른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은 두렵고도 경이로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름도 모르는 저 별자리들에 손이 닿을 것만 같다. 오래전 부암동 환기미술관에서 보았던 김환기화백의 그 점화(點畵)들이 생각났다.

우리는 사흘간 제주의 서남쪽에 자리를 잡았다. 여행 전부터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몇몇 여행지들은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들이었다. 해안도로를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리거나 한라산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그런 여행은 그만 하고 싶었다. 그마저도 오후나절이 되면 체력이 바닥나버려 마치 먹이사냥에 실패하고 은신처로 되돌아가는 짐승처럼 기진맥진한 채 숙소로 돌아왔다. 지난 1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묵은 피로가 봄을 앞두고 넘쳐흐른 모양이다. 어쩌면 2월의 모호함에 대한 얼마간의 내려놓음 때문이었을지도…… 숙소와 마주한 오름의 역새 사이로 고라니 한 쌍이 후다닥 지나간다.

비록 생각했던 일정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지만, 사흘간의 제주 여행 중에는 관광버스 북적대는 관광지도 있었고, 언제 또 먹어보냐 하는 심정으로 찾은 비싼 레스토랑도 있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건축가가 지은 멋진 건축물도, 세련된 시설이나 규모를 자랑하던 박물관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제주에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은 언제나 제주다운 것. 육지의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생생한 제주의 풍경과 번드르르함을 뻗 소박한 일상에서였다. 굴밭이든 채소밭이든 목장이든 검은 현무암으로 정겹게 쌓아올린 밭담들, 그 사이로 누가 심었는지도 모른 채 드문드문 핀 유채, 언제나 가까이서 때론 멀리서 제주만의 배경을 만들어주는 이름 모를 오름들, 좁디좁은 올레를 따라 2층도 버거워 낮게 웅크린 작은 집들, 너무도 맛있어서 공기밥을 5개나 시켜먹게 한 고등어조림, 지나가던 슈퍼에서 사 온 만원어치 레드향 한 봉지, 그리고 대정, 그 옛날 자취가 허망하게 사라진 오래된 마을.

조선시대에 제주 세 고을이란 제주목과 동북쪽의 정의현, 남서쪽의 대정현을 일컫는다. 그 중 제주목은 제주목 관아가 있고, 정의현은 읍성자체가 남아있어 성읍민속마을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될 정도로 옛 모습이 남아있다. 그러나 대정현의 자취는 허망할 정도로 거의 다 사라졌다. 오직 대정읍성의 한 자락과 대정향교가 남아있어 여기가 옛 고을이었음을 말해줄 따름이다¹⁾.



대정읍성 안 마을풍경 1 ©이호정

1) 유흥준, 2012, 『나의문화유산답사기 7』 창비, 335쪽.

대정으로 가는 길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대정읍성으로 향했다. 원래는 읍성을 한 바퀴 둘러보고 단산아래 대정향교까지 답사한 후 해안도로를 따라 시내로 올라갈 작정이었다. 전날부터 쏟아지던 비는 얼추 그쳐가고 있었지만, 우산이 훌쩍 뒤집히도록 불어대는 거센 바람은 제주에서 가장 바람이 세다는 이곳 실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오죽하면 지척의 모슬포는 거친 바람 때문에 '못살포'요, 귀양 온 추사 김정희선생께서도 이 바람을 '독풍(毒風)'이라 불렀다니 말해 무엇 할까. 오늘날 대정읍의 중심은 그 모슬포지만, 모슬봉을 끼고 아담한 굴밭과 푸른 작물이 심겨진 너른 밭을 지나 북동쪽으로 잠시 올라가면 지금까지 술하게 보아온 밭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높고 반듯한 담을 만나게 된다. 오래 전 제주의 세 고을 중 하나였던 대정현의 자리이자, 추사유배지와 추사관이 오붓이 자리 잡은 '대정읍성'이다.

대정으로 가는 길의 절반은 순전히 돌길이어서 사람과 말이 발을 붙이기 어려웠고 절반을 지난 뒤부터는 길이 약간 평탄하였네. 간혹 모란꽃처럼 빨간 단풍숲도 있었네. 이것은 육지의 단풍잎과는 달리 매우 사랑스러웠으나 정해진 일정에 황급한 처지였으니 무슨 아취가 있겠는가?²⁾

동문을 지나자마자 작은 돌하르방 하나가 우리를 맞이한다. 이 대정골 돌하르방은 세찬 바람에 닳고 닳아 얼굴도, 손의 모양도 희미하지만 오랫동안 여기 이렇게 있었을 거였다. 추사관에서 비록 영인본이지만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보았던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와 그의 제자 이상적이 청나라 학자 16명에게 받아왔다는 시와 글이 적힌 길고 긴 두루마리를 볼 수 있었다. 날이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어쩐지 착잡하게 여겨졌다. 추사관과 정갈하게 복원된 유배지를 둘러보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동선을 따라 읍성 안쪽으로 들어갔다. 올레를 따라 이어지는 작은 집들, 오래된 묵은 나무와 밭담으로 둘러싸인 굴밭, 허물어가는 몇몇 집들이 읍성 아래에 웅기종기 붙어있었다. 이 길은 마을을 다시 돌아 나와 「추사유배길」이라는 이름으로 단산아래 대정향교까지 이어지지만, 비와 독풍이 불어대는 곳은 날씨에 그만 기약 없는 다음을 기약해 본다.

이 여행을 돌아보니, 나는 대정읍성에서 그 옛날 대정현의 모습, 아니 제주의 원래 그러했을 모습을 얼핏 엿본 것도 같았다. 우리에게 여행이란 일부러라도 일상과 거리를 두고 싶은 것이겠지만, 이곳 제주에서 우리 여행자가 스스로 질문해야 할 여행의 본모습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나는 곳은 날씨 속에서 허둥거리며 대정읍성의 마을 안을 서성거렸던 기억을 떠올릴 것이다. 이 스산한 유배지에서 추사는 시도 때도 없이 부는 기막힌 바람에 얼마나 진저리를 쳤을까. 아무도 가꾸지 않는 오래된 동백나무에서 후줄근한 동백꽃이 바람에 잔뜩 떨어지고 있다.³⁾



대정읍성 안 마을풍경 2 ©이호정

2) 추사 김정희가 아우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추사유배지 안내판에서 적어왔다.

마을생존법 : 아빠와 오지라퍼 사이

동대문구 자생단 간담회를 통해 본 서울시 마을중간지원조직 정책의 뒷이야기

마을을 중간으로 쪼개는 서울시 마을정책

문자가 하나 온다.

“동네에 김정호 씨가 마을넷을 박멸한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비공개로 하던지 폐친 좀 정리하든지. 동네에서 이런 게 돌아댁기네…… 쫓”

서울시 마을사업 6년차, 이젠 마을의 에프킬라가 되어 간다. 이게 또 무슨 문자더냐? 알고 보니 작년 한 해 고생하며 마을일을 했던 활동가가 마을의 슬픈 다른 얼굴들에 대해 두 달 전 페이스북에 쓴 글이 누군가에 의해 캡처가 되어 마을에 공유가 되었고, 내 댓글이 함께 돌아다니고 있던 거다. 댓글 내용은

“세력이 없는 운동권 마을백수는 마을 파시스트가 되어 주민들을 선동하고, 허술한 마을사업의 틈새에서 기생하며 생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품고가야 할 마을생태계라면 함께 박멸하자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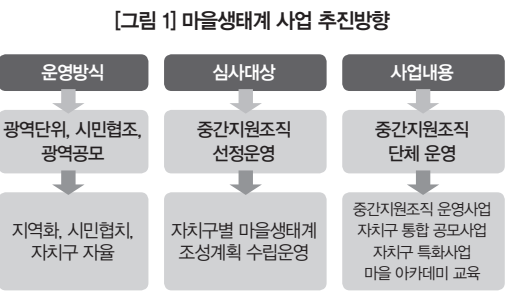
2017년 자생단의 방향을 논의하는 3차 간담회가 끝나고 반대 세력에게 모멸감을 받아 상처 받은 마을활동가를 응원하기 위해 쓴 댓글이었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마을생태계조성단(이하 자생단)이라며 구 단위로 마을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있다. 마을의 생태계기반을 무시한 일방적인 하향식 정책은 마을생태계 조성은 커녕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치구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민간 위탁을 일거리가 아닌 먹거리로 인식한 웃자란 마을조직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번 봄 계간지에는 동대문구 자생단 간담회를 통해 현재 서울시가 자행하고 있는 마을중간지원조직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주변 마을활동가들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과 세력들로 인해 전사하는 모습을 보고 동네에서 아이와 함께 마을일만 해서는 아니 되는 현실을 목도한다. 박멸하자며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말과 지지의 마음 뿐. 전투력을 상승해 가며 마을오지라퍼가 되어 시의원과 국회의원을 만나가며 삶터를 넘어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다. 마을사업 휴식기인 봄이지만 쉬지 않고 마을아빠는 또 달린다. 도시와 마을은 결국 정치임을 깨닫고 마을의 진짜 주인이 되는 훈련을 하고 있는 듯하다.

자치구의 도움 없이 6년 간 열심히 서울시 마을사업을 받아 와서 활동했던 것들이 자치와 분권이라는 그들만의 탁상 마을행정으로 말미암아 영혼 없는 자치구로 내려오면서 예산이 반으로 쪼개지고 마을조직이 둘로 쪼개져 가슴 아픈 지금, 우리의 불합리한 마을행정이야기다. 그간 소멸의식을 갖고 마을에서 헌신하는 마을활동들이 모멸감을 받으며 상처받고 지쳐가는 슬픈 현실의 이야기, 하지만 그 결핍의 역설 속에서 시민들이 조직되고 연대해 가는 아름다운 희망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유형

마을생태계조성사업이란? 지역현안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치의 주민참여 방법으로 마을여건에 맞는 현장중심의 지속가능한 자치구 주도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쉽게 말해 기존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울마을센터)의 사업들이 구 단위로 위임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운영할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마을센터가 주관했던 사업 중 6개 사업(우리마을사업, 우리마을활동지원, 이웃 만들기, 행복한 골목, 주민모임연합, 마을과 학교)이 자치구에서 공모를 하게 된다. 이를 어려운 말로 ‘자치구 통합공모사업’이라 하는데 2017년부터는 이 통합공모사업과 지역에 맞게 마을아카데미와 새롭게 자치구특화사업 등을 만들어 민과 관의 중간에서 운영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표 1] 2016 서울시 자치구마을생태계조성사업 유형

구분	운영	사업비	역할	해당 자치구
직영형	자치구	1억 원 내외 (인건비제외)	통합공모사업 수행 (선정, 상담, 컨설팅) 자치구 특화사업 수행 마을아카데미 수행	종로, 서대문 동작
민간위탁 센터형	비영리법인격을 갖춘 단체	4억 원 이내		도봉, 금천, 은평, 성동, 성북, 노원, 강동
네트워크 자생단형	비영리법인격을 갖춘 단체	2억 원 이내		미확정

서울마을센터가 민과 관의 중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광역단위 마을중간지원조직’이였다면, 현재 진행되는 일명 자생단(‘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단)은 ‘구 단위 마을중간지원조직’이다. 크게 자생단 유형으로 세가지로 분류된다. 자치구 직영형, 민간위탁센터형, 네트워크형(자생단)이다.

2016년 현재, 서울에서 용산과 서초를 제외한 총 23개구가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동대문의 경우 그간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지 못하다가 2016년 민간네트워크형으로 처음 만들어졌다.(대표단체 : 동네방네, 대표 : 박내현)

1차 간담회 : 마을의 역량이란 없다

민간네트워크형 자생단은 1년마다 공모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 올해 사업 공모를 위해 어떤 사업을 구상할지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1차 간담회가 있는 날. 돈 많이 받는 센터형으로 가자는 마

을리더들의 다수 의견과 네트워크형으로 가자는 구청의 다른 의견으로 긴장감 땀도는 회의장에서 한 마을사업지기의 말.

“올 해 1년간 중간지원조직이 예산을 다 못 쓴 거로 안다. 이걸 역량부족이다.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이다. 사람이 중간에 나갔는데 왜 채용을 못했나? 아직 동대문구는 자원이 없다. 역량이 부족하기에 센터형으로 가면 안 된다. 강북은 17년이나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멀었다”

뛰쳐나가고 싶었다. 계획대로 될 수 없는 게 마을 생태계인 것을. 그리고 못쓰면 남기는 것이 마을인 것을. ‘마을’이 아닌 ‘사업’으로 키워진 주민은 카더라 통신을 근거로 이제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히 이야기 한다.

“우리끼리 역량 말하지 말자.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자. 사업비를 다 썼다면 그건 마을이 아니라 사업을 한 것이 아닐까? 자기검열을 해봐야 한다. 예산을 남긴 스토리나 이유를 모른 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목소리 톤이 조금 올라갔다. ‘조급하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고…… 예산을 남길 수 있는 배짱이 마을의 역량이다’. 욱!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흥분해서 놓쳤다.

지난 6년간 마을이 사업을 거친 우리의 현실이다. 마을활동가가 아닌 마을사업 선수로 키워진 주민. 그리고 그걸 뻔뻔하게도 1년간 고생하며 일한 분들 앞에서 입이 있다고 함부로 발설하는 회의.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착한 마을활동가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 그리고 구청 담당자는 사진 찍으며 뒀 소리인지 뒷집 지고 있다.

결국 행정은 향후 서울시 예산이 끊기면 모든 예산은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하니 예산이 적은 네트워크형으로 하자며 결정을 내린다. 자생단의 운영하는 유형이 뭐라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며 역량이 낮은 집단이 되어 버렸다. 결국 이미 정답이 정해진 문제를 풀게 한 것이니 주민참여가 대상화되는 과정에 순진하게 동원되고 있음을 뒤늦게 확인한다.

이 덕분에 마을의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형과 예산의 차이를 공부하게 된다. ‘센터형’ 예산 4억과 ‘민간네트워크’ 예산 2억의 차이는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마을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지원하느냐의 차이이다. 서울시에서는 25개구 다 센터형으로 지원하고 싶지만 한정적 재원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사업을 구분한다. 따라서 센터형 지정은 마을의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관의

관심과 의지로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치구와 마을활동가의 안정적인 기반으로 센터형을 만든 경험이 있는 단체가 주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둘의 차이는 크다.

유형이 역량과 무관하다는 것을 서울시는 지자체를 돌며 설명해야 했다. 왜 이 모든 숙제는 주민들의 몫인 걸까? 센터형과 민간네트워크형으로 가는 선택은 아쉽게도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말이다. 선택의 고민은 정치인들이 해야 한다. 마을이 정치임을 학습하는 순간이다. 굳이 마을의 역량을 말한다면 관심과 열정이 역량이다. 관심 없는 정치인들에게 마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억지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건 마을의 역량이라 할 수 있겠다. 마을은 정치의 팩트 체크라 민기에 최근의 서울시 마을행정의 변화와 간담회에 있었던 팩트들을 정리해 같은 당 시위원과 국회의원에게 카톡으로 공유했다. 그 반향이 컸다. 역으로 구청장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 함께 걱정하게 되었다. 정치적인 반응이기는 했지만 일단 관심 갖기는 성공이다.

2차 간담회 : 마을엔 자격이 없다

서울시 자생단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비영리 민간단체 이상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 최근 3년간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실적이 있는 단체로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가능함” 법인과 시민단체들만이 자격이 되는 현실이다. 이런 자격요건 덕분에(?) 시민단체와 기존의 법인들이 마을에서 감이 되는 마을생태계로 변질 되고 있다. 법인이 없는 기존 조직들은 부랴부랴 조급하게 주민 100명을 동원해 사인을 받아야 한다.



동대문구 마을생태계조성사업 민관협력 1차 간담회

법인이란 무엇인가? “법인이란 일정한 사람의 집합(사단)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합체(재단)에 마치 살아있는 자연인과 같은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corporation’. 어원은 라틴어 ‘corporare’에서 왔다. 그 뜻은 ‘한 몸을 이루다’의 의미라고 웹스터 사전은 설명한다.

이렇듯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일이다.” 따라서 법인의 전제는 우선 그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되고, 나와 한 몸, 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만남과 과정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은 중간지원조직이 무엇인지도 또 왜 필요한지도 따라가기 바쁘는데, ‘법인’이라는 생소한 법적 절차까지 공부해야 한다. 이제 단체, 법인, 조합을 해야 마을을 할 수 있다. 관주도의 헬리콥터 돈 뿌리기에 빈 그릇을 만들어 담기에 바쁘다. 반면 기존의 마을법인과 시민단체는 편히 그릇에 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5년간 서울시 ‘마을사업’은 ‘마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점점 ‘사업’에 무게를 두는 행정으로 바뀌어 왔다.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마을살이 계획에서는 ‘출발’을 가볍고 쉽게 해주는 구도를 짜야 하는데, 이 변화는 너무 무겁고 준비된 자만이 출발할 수 있게 한다. 준비된(?) 조직만이 진입할 수 있게 진입장벽만 높아간다.

‘누적적 플래닝’과 ‘경과적 실천’이라는 말이 있다. 함께 궁리하며 공동의 아젠다를 협력해가며 과정을 실천하고 누적되는 결과물을 확인해 가는 게 마을의 큰 작동원리인데 그 반대로 역행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 마을살이 특성을 모르는 기업에서나 하는 관리를 하고 있다. 이 흐름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안정적 장치가 더 중요하고, 그

속에서의 역량은 초기 제안서대로 ‘변경 없이’ 사업비의 세입과 세출을 남김없이 맞아 떨어지게 하는 ‘사업적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이 ‘물의 변화’는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떼는 공무원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행정의 변화’지 ‘마을의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을사업이 자금과 조직을 가진 사람만이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아쉽지만 ‘적응의 시간’보다 ‘변화의 시간’이 더 빠른 마을행정속도에에선 선수만이 살아남는 생태계만 존재한다. 현재 이 상황은 ‘건강한 삶’들이 조직되는 생태계가 아닌 돈의 “+, -”만 고려되는 비즈니스다. 가볍게 모여서 출발하는 구조를 만들자. 굳이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면 마을스럽게 누적적 플래닝을 통해 경과적 실천의 결과물로 법인과 단체가 나올 수 있게 조건을 걸자. 향후 연속사업의 조건으로 걸면 된다. 영혼 없이 동원되는 조직이 아닌 마을리더들이 지지받고 자생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게 시간을 주자. 그 안에서 마을생태계는 건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마을생태계란 무엇일까? 법인 같은 조직을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마을. 어떤 조직에 가입하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을. 멀리가지 않아도 바로 내 이웃과 집 앞에서 할 수 있는 마을. 이런 다양성들이 존중받고 서로 힘을 실어주는 마을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다.

3차·4차 간담회 : 통합이라 외치는 자가 외부자다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관련 논의로 말미암아 동대문구는 중간에서 크게 쪼개졌다. 3차 간담회가 되니 그 쪼개짐이 더욱 명백히 보인다. 마을넷을 중심으로 한 팀과 기존 자생단 조직으로 뭉친 조직으로 크게 두 갈래다. 3차 간담회가 있는 날, 두 개로 쪼개서 가지 말고 ‘통합’ 컨소시엄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온다. ‘통합’이란 말은 참 좋은 의미인 듯 하지만 조심히 써야 한다. ‘통합’의 다른 이름은 ‘배제’다. 왜냐면 통합이란 우산을 펼치고 여기 붙이라 소리치면 그냥 비 맞기가 좋은 사람, 다른 우산을 쓰고 싶은 사람, 아니 그냥 서 있거나 멀리 있어 소릴 못 듣기만 하여도 자연스럽게 배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 컨소시엄이란 말 속에는 마을의 다양성과 자유의지가 억압되는 암묵적 배제가 있기에 조심히 써야 한다. 우산이 없을 때 비가 오면 우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모르는 사람이 우산을 펼친다고 다 가진 않는다. 젤 먼저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나와 같은 ‘방향’인지 확인해야 함께 가지 않는가? 따라서 통합이란 우산을 펼치기 전 ‘사람’이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하다. 이제 먼저 다뤄지지 않았기에 서울시에서 지역네트워크 조직을 해야 한다며 만든 마을넷들이 방황하는 것이다. 마을넷은 어찌면 서울시 마을행정의 피해자들이다. 왜 우린 또 다른 마을넷을 만들려 하는가?

어찌면 우린 이미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율타리에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통합을 방해하며 기생하는 이들을 먼저 체크해야 하지 않을까? 통합을 외치지 않아도 5년 간 함께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율타리에서 발품으로 마음이 통한 이들을 확

인하자. 이 통합 안에 다른 통합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외부자’라고 자기 고백하는 것이다.

모두의 견해가 같아질 수는 없다. 단지 대화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단지 따로 함께하는 마을만 있으면 된다. 견해를 하나로 모으고 마을을 하나로 만들 때 소리치고, 뒤통수치고, 야합하고, 동원을 하게 된다. ‘따로 또 같이’가 마을의 가치임을 잊지 말자. 통합이란 불필요한 큰 우산은 필요 없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작은 우산이면 충분하다. 우산이 없을 때 다른 우산이 필요하다. 통합이란 큰 우산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만의 마을 우산이 없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면 된다. 통합이란 단어로 마을의 가치를 덮어 버리지 말라.

자생단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통합’을 하려고 모인게 아니라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기 위해 모인 것이다. 통합이라는 껍데기에 몰입하지 말고, 중간지원조직이란 알맹이에 집중해야 한다. ‘지원’이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원이란 관리(통제), 보조, 대행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지원이란 ‘타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empowerment)’이다. 따라서 홀로 마을살이를 할 때 나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저 사람과 함께라면 비를 맞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비바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기꺼이 나의 ‘방향’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사람과 먼저 이야기 나누자.

1주일 후 4차 간담회가 있는 날.

“이 사업하면 1억이 남나요? …… 나이드신 분들은 사업제안서를 못 쓰고…… 당연히 운동권 젊은이들이 마을사업에 유리하죠…… 통합은 있을 수 있으나…… 저 사람이 단장하면 난 안 할 거예요”

헐! 역시 ‘통합’을 외치는 이들의 민낯은 그러했다. 기다리면 마을폭탄들은 스스로 자기 고백하며 터짐을 확인한다. 지원조직을 밥그릇으로 보는 이들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연대의 힘을 확인한다. 1차에서 4차까지 간담회를 통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마을에서 배우고 마음으로 확인하는 값진 기억을 했다. 차악이지만 동대문구 중간지원조직 선정은 컨소시엄이나 통합이 아닌 공정한 경선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2월 초 25개 마을공동체중간지원조직 예산이 선정됐다. 예상은 했지만 동대문구가 더불어민 주당 지자체장 중 꼴찌다. 박원순 시장의 정책인 마을공동체에 관심도가 적은 새누리당 서초구, 중랑구보다도 적은 예산이다. 구 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 인해 서울시 마을예산이 자치구로 위임되면서 구청장의 관심과 의지가 더 명명백백 팩트체크가 된다. 주제넘게 25개 총 예산을 정리해 또 시·구의회원과 국회의원에게 진단 처방까지 적어 카톡으로 보냈다.

한 시의원에게서 문자가 왔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네요. 오늘 오전에 구의원님들과 상의했습니다. 분권, 자치, 사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점차적으로 지방의원과 지역민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표 2] 동대문구 유형별 5개 중간지원조직 현황					
분 야	교 육	사회적경제	자 치	협 치	마 을
중간지원 조직	혁신교육실무추진단 -허브단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사업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민협력 플랫폼	마을생태계조성 사업단
주체	동대문구청교육진흥과/ 동부교육청/민간	동대문사회적 경제네트워크	푸른사람들	열린사회동대문 시민회	2017년미정
주요 내용	●서울시혁신교육 우수지구 사업 운영 ●민관학거버넌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육성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마을계획단 및 주민참여지원 사업지원	●시민의제발굴, 지역 내 시민력 강화 사업 ●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및 발굴, 마을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
사업액	-	2억	-	1억(년)	2017년 미정
구행정 조직	교육진흥과	일자리창출과	자치행정과 공유마을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공유마을팀
시작시기	2017. 02.	2017. 02.	2016. 07.	2016. 11.	
위탁기간	구 직영	1년	2년	1년	10개월

마을과 도시는 결국 정치다. 알고 싶지 않은 카톡을 보내는 이런 주민이 싫겠지만 주민의 심부름꾼인 정치인들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것인가는 주민의 몫이다. 뽑아 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고 주민들의 실시간 문제를 공유해 주어야 한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정치인은 이때 감별이 되는 것이다. 주민은 팩트만 잘 체크해 표로 실천해 주면 된다. 마을아빠가 지역 오지라퍼가 되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면 주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주민들이 마을을 바꿀 수 있다. 권력과 마을을 돈으로 보는 사업가들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다른 이름의 중간지원조직들

현재 서울시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중간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교육 : 혁신교육단
자치 : 찾동지원단(‘찾’아가는‘동’주민센터 지원단)
마을 : 자생단(‘자’치구마을‘생’태계조성단)
협치 : 시민협력플랫폼
협동조합, 마을기업 : 사경단 (‘사’회적‘경’제사업단)

일단 동대문구에서 확인된 민간 지원단이 이정도 된다. 1~2년 사이에 쏟아지듯 내려오는 중간지원 조직들이다. 자치와 분권도 압축성장하며 학습되는 나라다. 중간지원조직은 그 구조상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관료화될 수 있고, 마을에 파벌과 라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민

과 행정 중간에서 건전한 정신과 뜨거운 심장이 있는 도덕적 양심이 있어야한다. 누가 검증하고 감시할 것인지 또 다른 사회적 과제로 남는다. 서울 마을공동체사업의 미래는 지난 5년간의 시간을 꼼꼼히 과제화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직은 광역이 중심이 되어도 된다.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자치와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으로 내리기에는 5년이란 시간은 여전히 짧다. 중간지원조직들을 새롭게 만드는 에너지로 지역사회에 옷자란 폴뿌리들을 잘 더 관찰하고 보살피 뿌리내림을 지원해야 한다. 항상 혼란스러운 건 주민들의 몫이고 이젠 그 책임도 주민이 가져가는 구조이기에 걱정이다. 서울시가 중간지원조직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을 또 만들지나 않을지. **2017**

“인간은 어떤 외적인 기준의 강요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딘가에 귀속될 수 있다. 인간은 인종의 노예도, 언어의 노예도, 종교의 노예도, 강물의 흐름의 노예도, 산맥의 방향의 노예도 아니다. 인간의 건전한 정신과 뜨거운 심장이 민족이라고 부르는 도덕적 양심을 창출한다. 이 도덕적 양심이 공동체를 위해서 바친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의 힘을 증명할 때 민족은 정당하게 존재할 권리가 있다”(에르네스트 르낭)¹⁾

1) 유시민, 2011, 『국가는 무엇인가』, 돌베개, 129쪽.

폭력의 도시와 로지스틱스

데보라 코웬(Deborah Cowen)의 『로지스틱스—전지구적 물류의 치명적 폭력과 죽음의 삶』(이하 로지스틱스)¹⁾은 로지스틱스(logistics)의 기원을 추적하고, 이 산업에 의해서 재구성되는 경제, 정치, 사회 영역의 양상과 이와 결부된 갈등/폭력의 지리를 문제화하고 이론화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로지스틱스’란 상품 공급 사슬을 말하며, 상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흐름을 의미한다.

전쟁에서 군대의 배치와 보급을 다루는 병참술(Military Logistics)에서 기원하는 로지스틱스는 1960–70년대 경영학 담론 내에서 재구성되며 성장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세계화(Globalization) 담론이 등장한 시기와 겹친다. 데이비드 하비(Harvey)에 따르면 세계화라 불리는 경제적 흐름은 자본의 이윤을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시·공간의 압축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 시기 자본은 하락하는 이윤율을 상쇄하기 위해서 상품의 생산—유통—소비 과정, 즉 상품 순환 주기를 단축하고 상품 유통과 소비의 공간적 장벽의 최소화(시·공간의 압축)를 진행한다²⁾. 이제 자본에 의해 작동되는 모든 경제활동은 시·공간 압축을 통해 상품의 순환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으며, 따라서 상품 공급 사슬(로지스틱스)은 자본의 이윤 창출의 토대로 등장한다.

1970년대 전까지 생산의 합리화는 생산, 유통, 소비의 영역으로 독립적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상품 순환에 대한 강조는 경영학 내에서 이 영역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급 사슬 시스템을 구상하게 한다. 소위 로지스틱 혁명이라 불리는 공급 사슬 시스템은 각 영역이 개별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저효율성의 문제, 즉 각 영역에서 연결될 때 적체되는 시간 비용(저장 비용, 운송 비용, 재고 유지비용 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상품이 매끄럽게 순환하며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로지스틱스 혁명은 생산과 소비

에 걸쳐있는 관국가적(Transnational) 순환 시스템을 낳으며 오늘날의 지리를 순환의 흐름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이처럼 로지스틱스 산업은 상품 순환의 중요성이 재발견되며 나타났고, 이는 자연스레 이러한 순환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안전)의 문제와 국경(국민국가 주권)의 문제를 중첩시킨다. 상품의 순환을 강조하는 로지스틱스는 흠 없는 흐름을 요구하는데, 이 흐름을 교란하고 흠을 만드는 것을 매꾸기 위해 다양한 보안 기술들을 작동시킨다. 예컨대 로지스틱스의 결절점인 항구, 공항, 터미널 등은 공공/민간 보안 업체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 관리되며 노동자들의 파업과 같은 교란이 일어났을 때는 군대까지 동원된다. 따라서 상품 공급 사슬은 필연적으로 보안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시장(민간)과 군사의 영역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신자유주의적 폭력적 탈취와 축적 체계를 강화한다.

“
상품의 순환을
강조하는
로지스틱스는
흠 없는 흐름을
요구하는데,
이 흐름을 교란하고
흠을 만드는 것을
매꾸기 위해 다양한
보안 기술들을
작동시킨다.

로지스틱스의 보안의 중요성은 영토에 기반한 국민국가의 주권을 흐리게 한다. 상품 순환을 교란하는 기상 악화, 파업, 그리고 해적 등의 위협들은 이제 한 국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순환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중 해적의 사례는 특히나 흥미로운데, 코웬에 따르면 해적은 국민국가의 주권을 재구성하는 하나의 문제계로 나타난다. 바다는 크기와 유동성으로 인해 어느 국가로부터도 통치 받지 못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적은 영토에 기반한 국민국가의 구성적 외부로서 등장한다. 국가의 주권 외부에 해적이 놓임으로써, 이들은 역설적으로 모든 국가들에 의해서 기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적들은 국민국가에서 보장하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거세당한 채, 아감벤(Agamben)의 표현을 빌리면 주권 권력의 물러섬으로 인한 ‘예외 상태’에 놓인 호모사케르(벌거벗은 생명)로 나타난다³⁾. 이러한 의미에서 코웬은 해적을 반정치적(Anti-political) 사법 기술로 범주화한다.

반정치적 사법 기술은 상품 순환의 효율성을 위해 노동자를 규율하고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며 작동한다. 특히 ‘로지스틱스 도시’에서 이 반정치적 사법 기술은 극명하게 나타난다. 순수하게 로지스틱을 위한 허브로 구성된 도시(바스라, 두바이)는 민간 기업들의 운송 최적화와 로지스틱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두 가지 모두는 공간의 생산을 통해서 효율적인 상품 운송을 기본 원칙에 두고 작동한다. 여기에 상품 흐름을 보안하기 위한 다양한 반정치적 사법 기술들이 도시에 접합된다. 예컨대 두바이

1) Cowen, D. 2017, 『로지스틱스 – 전지구적 물류의 치명적 폭력과 죽음의 삶』, 권범철 옮김, 갈무리.

2) Harvey, D. 2000,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 · 박영민 옮김, 한울.

3) Agamben, J. 2008, 『호모 사케르 –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박진우 옮김, 새물결.

의 경우 로지스틱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90% 이상은 외국인으로, 이들은 어떤 시민권도 없이 임시 취업 상태에 있다. 이들은 집합적 교섭, 파업과 같은 노동의 기본권도 인정받지 못하며 정치적 행동과 같은 교란을 유발할 경우 외부로 추방된다.

또한 이들은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감시당하며,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 는 상품 순환의 최적화에 맞춰 규율되고 배치된다. 보안 자격 증명의 근간이 되는 생체 정보, 그리고 카메라를 통한 노동자 움직임의 감시에서부터 군사 및 민간 보안 업체를 통한 폭력적 신체 상해까지, 보안화의 무수한 형태들은 노동자의 신체를 표적으로 삼는다. 즉 신체의 모든 움직임이 상품 순환에 맞춰 조율, 통제 되고 이들은 숫자화, 데이터화되어 상품 흐름의 부속품으로 전환된다. 결국 시민 권 강탈을 통한 로지스틱스 도시의 축적은 상품 흐름을 위해서 봉쇄를 요구하는 역설을 낳는다. 이 도시들은 상품 흐름을 위해 정치적 시민권이 미치지 않는 외부로 봉쇄되어야 하며, 예외 상태로 끊임없이 유예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물론 두바이의 사례는 로지스틱스 도시의 극단적인 사례다. 그러나 두바이의 사례는 다른 로지스틱스 결절점과 도시에 하나의 모델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세계가 로지스틱스 도시로 점차 재구성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령, 9·11 이후 미국 항구 도시는 테러로부터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인증 증명서를 도입 하며 노동자들을 인증화했으며, 순환의 효율성 논리로 노동 조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노동자의 정치적 행위는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되어 폭력적으로 거부되고 있다.


결국 로지스틱스 혁명으로 확산된 전지구적 순환 축적체계는 보안(안전), 규율, 주권에 관한 푸코의 권력 논의를 포개어 놓는다. 영토를 경계로 작동하는 주권 권력, 그리고 개인들의 신체에 작용하는 규율 권력, 그리고 인구의 항상성을 위해 교란(리스크)들을 관리하며 안전(보안)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생명 권력⁴⁾은 로지스틱스 도시에 이질적으로 변주되며 결합한다. 주권 권력은 예외 상태로 유예된 상태로 결합하며 여기에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이 교차한다. 규율 권력은 상품 흐름의 효율성을 위해 인간 신체에, 생명 권력은 순환을 위한 리스크 관리에 개입한다. 그러나 여기서 작동하는 생명 권력의 대상은 푸코가 말한 인구가 아니라 사물로 대체된다. 따라서 이제 상품의 흐름은 이것 자체가 애초부터 생명을 가지고 진화한 것으로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대이주〉가 보여주듯 자연화되며,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의 리스크로 관리되며 규율과 보안(안전)의 대상(사물)이 된다.

4) Foucault, M. 2012.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옮김. 난장.

“
결국
로지스틱스
혁명으로 확산된
전지구적 순환
축적체계는
보안(안전), 규율,
주권에 관한
푸코의 권력
논의를 포개어
놓는다.”

따라서 코웬에게 정치적 대안은 인간의 신체와 생명을 강탈적으로 축적하는 상품 순환에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 개입 지점에서 코웬은 퀴어(Queer) 이론을 들고 나온다. 자본주의 상품 순환 경제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경제를 상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다른 경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퀴어 이론은 우리가 로지스틱스 관계에 대한 대안적 질문과 이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욕망의 자원으로 작용한다고 코웬은 주장한다. 그러나 나의 퀴어 이론의 무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코웬이 이야기하는 대안으로서의 퀴어 이론은 매우 추상적이고 난해하다. 퀴어 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품 순환 경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지, 퀴어적으로 상상한다는 것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제시가 되지 않아 아쉽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저자가 이야기하듯 상품 흐름의 공급 사슬이 확대되면 될수록, 오히려 역으로 광대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대할 수 있는 공통체(Commons)의 기반도 더욱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런 공통체의 힘의 장에서 퀴어 이론은 그 의미를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실천해야 할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코웬은 이처럼 로지스틱스의 역사와 지리를 쫓아가며 경제(민간) 영역과 군사술이 상동하는 모습과 그 폭력의 지리를 폭로한다. 시민권 강탈, 생명의 억압으로부터 추출되는 로지스틱스 도시는 비단 이 도시만의 성격으로 제한될 수 없다. 도시가 자본축적을 위해 끊임없이 파괴되고 창조될 수밖에 없기에, 축적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빈번히 폭력적으로 제거된다는 것은 수많은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례를 본다면, 우장창창, 옥바라지 골목, 아현포차 등 부동산 가치의 순환을 위해 발생한 분쟁의 장소에는 항상 용역들의 폭력적인 개입이 있었으며, 이 개입의 장소는 역시나 봉쇄된 ‘예외 상태’의 공간으로 재현됐다. 여기서 공권력은 폭력의 방관자 혹은 조력자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국가가 보안하는 것은 단지 상품 가치의 순환이라는 것을 가시화했다.

코웬의 시각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평화롭게 보이는 도시와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폭력과 예외 상태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도시는 자본의 순환을 위해 봉쇄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으며, 이 봉쇄 공간은 현재 서울 여기저기에 비가시적으로 편재하며 자본의 순환을 매끄럽게 한다. 따라서 코웬의 『로지스틱스』는 상품 공급 사슬의 확장과 이로 인해 변형되는 공간과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탁월한 텍스트임과 동시에 현재 서울과 같은 도시의 이면을 이해할 수 있는 충실한 텍스트다. 오늘날의 도시를 이해하기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꼭 책장 맨 앞에 꽂혀 있어야 할 책이라 생각한다. 



봄에 울다

추위에 멈춰선
꽃잎 지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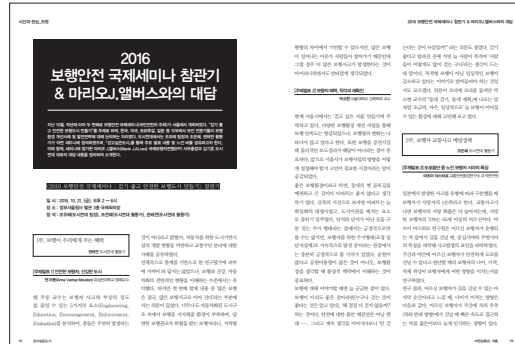
고독의 빈자리
눈물로 채우고

가지에 물오른
눈부신 봉오리

나무의 눈물진
사연을 담았네

『검고싶은도시』 2016년을 떠올리며

모인 날짜 17. 02. 15. 수요일.
모인 장소 도시연대 사무처 회의실
모인 사람 독자위원회 : 김민보, 김하진, 송효웅, 유대영, 최지은
 편집위원회 : 김민수, 안현찬
 기관지 담당자 : 조은혜
적은 사람 조은혜



『검고싶은도시』 2016년 겨울호 (통권 제89호)



특집 : 영도

조은혜 3개월 만에 뵈네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검고싶은도시』 2016년 겨울호를 되먹임하는 날입니다. 지난 독자위원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특집 주제를 미리 말씀드렸죠. 부산 영도, 어떻게 읽으셨나요?

송효웅 재미있게 읽었어요. 『검고싶은도시』가 전문적인 잡지처럼 느껴졌어요.

김을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읽은 『검고싶은도시』 중에서 가장 짜임새가 완벽했어요. 영도의 역사로 시작해서 여러 마을의 현재 상황까지 차곡차곡 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김하진 저는 「절영도의 역사」가 어려웠어요. 영도에 가본 적이 없는데, 글의 내용은 과거라서 여러 번 읽게 되더라고요.

김민보 저는 오히려 지난 호(특집 주제 : 진안)보다 쉽게 느꼈어요. 처음에 개괄적으로 영도를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유대영 저도 『검고싶은도시』를 읽기 전에는 영도를 전혀 몰랐어요. 몰랐던 곳을 알아가는 게 즐거웠어요.

최지은 저에게 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상적으로 느껴졌어요. 마포, 인천 배다리, 진안을 읽을 때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지역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영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도가 어렵게 느껴졌어요.

조은혜 네. 작년에는 『검고싶은도시』 특집 주제를 지역으로 정했죠. 마지막 지역이자 겨울호 특집 주제는 영도였습니다. 영도를 준비할 때 도시연대 회원이신 태운재님이 든든한 조력자였어요. 저희 편집위원회에서 지문을 요청하면 열정적으로 답해주시고, 1박 2일로 영도에 답사하러 갔을 때 모든 일정에 함께 해주셨어요. 이미 영도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다양한 분들이 교류하고 있었는데, 그분들과의 접점을 만들어주셨고요, 직접 글도 적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어요. 물론 계간지 발행과



정도 비교적 수월했고요. 결과적으로 마포, 인천 배다리, 진안 때와 달리 알음알음 필자를 찾아서 섭외한 글을 신지는 않게 됐어요. 또 현장의 언어보다 정제된 언어로 적힌 글이 많이 실리게 됐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문적'으로 또 누군가에게 '피상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겠네요.

최지은 네. 송교성 님이 쓰신 「강강이예술마을 사업을 소개합니다」 글이 생동감 있었어요. 같은 내용을 적더라도 사람에 따라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글을 쓰신 분의 경험이 많이 묻어났어요. 문화예술과 도시재생의 접점을 알려주신 것도 좋았어요.

조은혜 최근에 강강이예술마을 누리집(홈페이지)을 일컫는 순우리말¹⁾이 개설됐어요. 제가 반가운 마음에 누리집에 응원하는 글을 적



었는데, 에코백과 달력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오늘 챙겨왔습니다. 에코백과 달력 표지에 '근대수리조선 1번지 대평동 강강이마을'이라고 적혀있어요. 영도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소식과 정보를 쉽고 세련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였어요. 또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서 더 기대하게 됐어요.

송효웅 사실 제가 5일 전에 일본으로 떠났다가 오늘 한국에 왔어요. 일본에서는 도시재생이나 공간재생을 할 때 행정, 부동산, 건축가, 시각디자이너를 중요한 주체로 생각한대요. 부동산과 건축가만큼 시각디자이너의 비중이 커서 놀랐어요. 저도 앞으로 자료의 형태나 정보 전달 방식을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오늘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니 다시 떠올리게 되네요.

최지은 보여주기 식의 디자인에 대한 우려도 하게 되지 않나요? 물론 강강이예술마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디자인에 갇힌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금, 오래된 영도는 젊다」를 읽다보면 해돋이마을에서는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빈집 철거 행사가 실제로 주민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어요.

김율 저도 비슷한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을 화두로 여러 시도가 진행되는 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을지 우려되기도 해요.

조은혜 네. 최지은 님과 김율 님의 의견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영도에서 도시재생을 하려는 분들도 같은 고민을 진지하게 논의하셨어요. 도시재생 사업 과정이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그런 고민을 개개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저는 영도의 도시재생을 눈여겨봤어요. 지역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거든요. 물론 영도의 도시재생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겠죠. 다

만 저희는 『견고한도시』를 통해 영도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색과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세련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은 저의 주된 화두이기도 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장점을 부각하는 디자인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활동하면서 얻거나 재가공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공유하는 건 중요하죠. 그걸 '잘' 하는 방법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달하려는 자료는 무엇보다 이해하기 쉬워야한다고 생각해요.

김민수 네. 영도에서 삼진어묵이라는 지역기업이 도시재생 사업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영도의 도시재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이 『견고한도시』 겨울호 기획의 핵심이었어요. 영도의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람들의 글을 주로 싣다보니 결과적으로 영도를 포장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영도에서 어떤 시도가 진행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 결과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한 권의 계간지 발행으로 영도라는 지역을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후로도 꾸준히 지켜보는 방법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율 지역을 꾸준히 보면 좋죠.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삼진어묵처럼 지역재생에 동참하는 기업의 사례가 해외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삼진어묵이라는 반가운 사례가 생긴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삼진어묵

1) kangkangee.com

이 유명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김민수 삼진어묵이 맛있어요. (모두 웃음) 저도 부산에 가면 꼭 사와서 먹어요.

최지은 네. 영도에서 뉴타운 해제 지역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정말 신선했어요.

시선과 관심 : 보행

김울 저는 이 글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최지은 저도요. <2016 보행안전 국제세미나>의 내용을 특집 주제로 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방대한 내용이 하나의 글로 함축돼서 분량이 적은 게 아쉬웠어요. 조은혜 님이 써주신 마크이 야스히로 연구원의 발제 주제가 노인인 것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최근에 70대 노인으로 분장한 20대 남성이 하루를 보내며 찍은 영상을 SNS로 공개했어요. 그 영상에서 “도시에서 노인으로 살면 외롭겠다”고 했는데, 저도 공감했어요. 도시에서는 모든 게 너무 빠르잖아요. 신호등 신호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걷고싶은도시』에서 노인과 보행에 관한 글을 읽으니 좋았어요.

김민수 『걷고싶은도시』2017 봄호 특집 주제가……은혜 님, 미리 말하면 안 되나요? (모두 웃음)

조은혜 원래는 괜찮았는데 오늘 생각을 바꿨어요. (모두 웃음) 저희 독자위원분들이 『걷고싶은도시』 겨울호를 배송 받기 전에 특집 주제가 영

도라는 걸 미리 아셨잖아요. 기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실망이 컸는지, 오늘 반응이 별로예요! (모두 웃음)

김민수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마세요. (웃음) 다음 『걷고싶은도시』 특집 주제는 ‘노인과 도시’거든요.

조은혜 특히 김하진 님은 보행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김하진 저는 ‘시선과 관심’에 실린 세 편의 글을 모두 즐겁게 읽었어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라 더 좋았어요. 그런데 보행 지면에 실린 글이 짧아서 저도 아쉬웠어요. 작년에 다른 일로 바빠서 보행안전 국제세미나에 가지 못했거든요.

최지은 그런데 쉼어드 스페이스(Shared Space)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김민보 자동차 속도 줄이기, 불법주차 방지 등의 효과가 있어요.

김울 모든 도로에 쉼어드 스페이스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안현찬 그렇죠. 남부순환도로나 올림픽대로 등이 있고, 간선도로가 있잖아요. 간선도로에 쉼어드 스페이스를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동네의 학교 앞에서 쉼어드 스페이스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등의 여러 사업을 하는데, 저는 펜스를 치고 어린이들이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조은혜 네. 그나저나 유대영 님이 『걷고싶은도시』를 굉장히 열심히 읽으셨어요. 밑줄도 치시고, 담당자로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모두 웃음)

안현찬 모든 글을 밑줄 치면서 읽으신 거예요?

유대영 네. 재미있는 문장이 있으면 밑줄을 치면서 읽었어요.

조은혜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쓴 글 부분을 확인해볼까요. (모두 웃음)

최지은 이후로 다들 계간지에 밑줄 쳐서 읽을 것 같아요. (웃음)

유대영 저는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특히 <2016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참관기처럼 글쓴이의 생각이 많이 적힌 글이 좋았어요. 저도 이 글이 짧아서 아쉬웠어요.

김울 참고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유튜브에 <2016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영상을 올려뒀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서 보세요.

유대영 네. 글에서 마리오J. 앨버스와의 대담 내용을 보면 자동차 위주의 도로환경에 반대하는 행위로 무단횡단을 한다는 이야기가 실렸잖아

요. 저도 어릴 때 무단횡단을 많이 했지만 서울에서는 차가 많아서 위험하더라고요. 작년에 유럽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무단횡단을 하고 차들은 멈춰서 정말 놀랐어요. 아! 제가 지난 토요일에 처음으로 촛불집회에 나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를 수많은 사람과 걸으며 다른 각도에서 건물을 보는 경험을 했어요. 굉장히 신선한 즐거움을 느꼈어요. 도시를 차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느꼈던 즐거움이 보행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송효웅 맞아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 도로를 점령한 차를 쫓아내고 걷는 기분이었어요.

시선과 관심 : 마을만들기

최지은 마을활동가의 정의를 확립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자의 말에는 공감했어요. 그런데 마을활동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게 꼭 필요할까요? 마을 활동의 일을 직업으로 만들면 다른 직업을 가진 마을 주민의 활동이 제약되진 않을까요. 또 다른 장벽이 생기는 게 아닌지 걱정도 돼요. 주변에 아기를 낳고 자투리 시간에 발톱이 빠질 정도로 마을 활동을 재미있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돈을 받고 마을코디네이터로 살아보니 전과는 달리 마을에서 좋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마을 활동의 주체가 누구이고 어디 소속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게 정말 좋은 건지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율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공적인 업무라고 하기에 모호한 일이 점차 생기니 마을활동가라는 직업을 따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활동가에게 ‘급여를 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난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안현찬 물론 ‘마을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어나 정의를 전부 통일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스스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국한해서 보면 ‘마을활동가’들이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일이 몰리기 시작하다 보면 직업 수준으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생업 수준으로 일을 하면서도 수당, 인건비 등의 처우가 직업이 아닌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마을활동가를 직업화해야 한다는 건 그러한 현장의 실태를 연구에 담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송효웅 저도 ‘마을 활동’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또래 친구 2명과 작년 말에 대화한 적이 있어요. 현재의 상황, 정권의 변화, 분위기 등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느낀 공통점은 “불에 타는 수레에 타고 있는 것 같다”였어요. 빨리 이 수레에서 내려야 한다는 친구도 있었고, 누가 들어와야 하는데 “할만 해!”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솔직히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셋 다 작년 연말에 활동을 그만 뒀어요. 우스갯소리로 “활동가의 몸을 갈아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김민수 ‘마을만들기’가 제도화돼서 운영되기 보단 사업화돼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마을활동가들이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실제로 보수나 소속감이 적기도 하고, ‘공동체’라는 당위로 묶일 수 있는 많은 것이 없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치는 사람이 생기고 구성원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지속하는 것도 쉽지 않죠.

안현찬 저는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을활동가’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봐요. 과거에 지역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헌신, 열정 등을 강요하는 나쁜 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 아니고 애정과 신념으로 활동하는 운동가이기 때문에 너무 돈 따지지 말자”라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 마을활동가에게도 제대로 된 처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좋아져야 좋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세대 교체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인터넷으로 구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OO기업 연봉은 얼마예요?” 질문하는 글이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OO구 마을활동가예요”라고 인사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장이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조은혜 동감해요.

유대영 저는 ‘좋고 나쁘다’라기 보다는 지금이 과도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 마을활동가라는 직업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명칭이 좋을지 지

금은 혼란스럽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감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시선과 관심 : 생활문화

안현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견고싶은도시』 2015년 여름호에서 “마을을 팔아먹자”라는 특집 주제로 여러 글을 실었어요. 그 때 ‘투어리스트 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이란 용어를 처음 다뤘는데, 1년 만에 논의가 확장됐다고 느낀 글이었어요. 나름 저희에게는 연속기획입니다.

김율 우리가 여행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세계적으로 나쁜 공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특정한 도시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비해 비행기 샀도 저렴해졌고, 예전만큼 여행이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세계적으로 여행 규모가 엄청 커졌어요. 전에는 동남아시아에 가면 대부분 일본사람이거나 한국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사람과 러시아사람도 정말 많아요. 관광이란 세계적인 흐름은 당분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최지은 물론 세계적인 흐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서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책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나쁜 경제 상황을 관광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게 저는 싫어요.

안현찬 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행하는 비행기 노선을 아세요? 제주-김포래요. 7분에 1대 씩 하늘에 뜬다고 해요.

송효웅 관광객을 유입하려는 것만큼 어떻게 관광객을 수용할지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특구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업지에서 관광객이 돈을 안 쓴다고 주거지까지도 상업지로 바꾸려고 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걱정이 돼요.

고정칼럼

최지은 「여행하는 삶과 사람」을 연재하시는 이호정님은 자비로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조은혜 네. 이호정님이 여행을 좋아하세요.

안현찬 이호정님은 어디를 다녀오는 것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의 라이프스타일이 음~청 부럽습니다. 아무리 못 가도 3개월에 1번은 가신다는 거잖아요. 여행에 관련된 책도 보시고요. 뭔가 내 삶과는 달라. (모두 웃음)

최지은 사진도 좋아요. 저는 이 문구가 웃겼어요. “원룸에 사시는 게 꿈이라는 종부님과 아쉬운 인사를 나누며 마을을 나선다” 아. 원룸에 살고 싶어하셨구나…….

김율 원룸에 가끔 가는 사람과 매일 살아야 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모두 웃음)

유대영 글이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사진이 글 맛을 못 담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흑백이라서 그럴까요?

김민보 지난 가을호에는 그림을 넣지 않으셨어요?

조은혜 네, 사진이 마땅치 않아서 직접 그리셨다고 했어요. 좋았죠?

김민보 네, 사진보다 그림이 더 좋았어요. (웃음)

최지은 이번에 집중해서 읽었는데 글이 재미있었어요. 좋았어요.

안현찬 김민수님의 「도시의 매체」에는 사회학 개념이 소개되고는 하죠. 나중에 원고를 묶어서 책으로 만든다면 ‘사회학용어사전’으로 책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요?

김민수 그럴까요? 아니면 ‘용어사전으로 보는 도시’?!

최지은 김민수님의 글은 조금 어려워요. 이해를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돼요. (웃음) 김민수님의 글을 읽으며 공감했던 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정해진 구획에서 집회를 하는 게 정말 착한 걸까? 착해야 하는 건가?’라는 고민을 했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김민수 문제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다면 내일 도시연대 사무처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도시다움> 세미나에 오세요. (모두 웃음)

유대영 시기적절하고 생각해볼만한 글이었어요.

안현찬 저희가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거잖아요.

『견고싶은도시』발행을 한 지 2개월이 훌쩍 지났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글이 시기적절해서는 안 되거든요. (모두 웃음)


조은혜 그렇습니다. 화가 솟구치네요. (모두 웃음)

최지은 시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견고싶은도시』를 받자마자 읽어서, 사실 내용을 좀 까먹었어요.

조은혜 그러면 일찍 만날까요? 일찍 만나면 또 일찍 만났다고 못 읽었다고 하실 것 같은데. (모두 웃음)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만남을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안현찬 아니면 최지은님에게는 『견고싶은도시』를 늦게 보내주세요.

김율 독자위원 모임에 오기 전에 한 번 더 읽어야 해요.

안현찬 참. 『견고싶은도시』2016년 겨울호는 영도구청의 주문을 받아 100권을 따로 인쇄해서 판매했어요. 이후로도 계간지 대한 호응이 좋다면 기사를 대상으로 한 구독회원을 모집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독자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허윤선 회원에게는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독자위원 의견서 전문을 추가로 실습니다. 더 나은 기관지 발행을 위해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담당자 조은혜)

『견고싶은도시』2016 겨울호에 대한 의견서

허윤선 견고싶은도시 독자위원

우선, 이번 모임에 함께 하지 못하여 아쉽고 죄송해요. 둘째 임신으로 아무래도 심야 외출이 제한적이라……. 이번 호, 정말 관심 있게,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부산이기도 하고! 글도 모두 유익하였습니다. 모두 글을 어쩌나 잘 쓰셨는지, 흡입력이 있어 단숨에 읽었습니다.

어릴 적, 저희 할아버지 댁은 부산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본가는 경남 진주의 씨촌마을이지만, 제 기억 속의 할아버지 댁은 부산 대연동입니다. 낚시와 등산을 좋아하는 할아버지를 따라 종종 갔던 영도는 조금 따분한 곳이었습니다. 건설업을 하시던 할아버지는 영도 근처에 가면 항상 ‘옛날에는’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마도 한창이던 시절을 떠올리셨겠지요.

저에겐 그저 따분하던 영도에 대해, 이번 특집은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글 간의 구성이 좋았습니다. 집필진, 내용, 관점 구성도 모두 좋았습니다. 현장의 주체들이 직접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삼진어묵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네요!!)

특히, 태윤재·오광석 선생님의 글이 참 좋았습니다. 앞부분에서 영도에 대해 (저처럼 문외한인 사람들을 위해) 특징을 요약조목 살펴봐준 것 같아서 특히 좋았습니다. 잘 읽히는 좋은 글이었던 것은 두말 할 나위없고요.

읽으면서 했던 생각은 역시 핵심은 ‘사람’이구나 였어요. 우리 마을이고, 우리 주민이고, 우리 공동체라는 것. 인프라를 만들거나 환경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채워야 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참 연구실에서 농촌마을의 마을만들기, 커뮤니티재생,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주체 간(행정, 주민, 전문가 등)의 인식과 가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프라 구축(건축물 건립, 산책로 등 환경 개선)과 지역활성화, 관광가치와 예술산업, 가계 수입(경제적 이익)과 당장의 이익 간에 많은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아니, 사실 더 많이, 왕왕) 나타났습니다.

송교성 선생님이 강강이예술마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획 초부터 지금까지 사업단과 주민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왜 재생

사업에 문화예술이 필요할까’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하고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고, 이것이 공동체의 복원으로 연결(사회적 자본)되기를 기대하는데, 여기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지요. 저 또한 우려와 기대, 그리고 궁금함이 많은 지점입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더 많이 보고 싶다는 궁금증도 생겼고요. (사실 좋은 점만 접할 수 있어서…… 진짜배기가 궁금해요.)

홍순연 선생님의 글도 좋았습니다. 영도 가운데 대동전수방의 사례가 가장 궁금하던 찰나였는데, 요목조목 잘 서술해주셨습니다. 읽으면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많은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봉래시장과 삼진어묵을 중심으로 국수, 손두부, 맞춤형복 등 노포들이 활성화되고, 전통이 전수되는 모습을 상상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힘을 가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어지는 이만식 선생님의 글을 통해 삼진어묵이라는 지역기업의 의지와 지역과 기업의 윈윈전략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직 여러 우려가 남아있는 영도이지만, 이번 특집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민관협의체를 탄탄히 구성하여,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움직이며, 예술인도 동참하고, 무엇보다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라니. 조금 더 궁금하고 조금 더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시연대에 참 감사한 것은, 마포, 배다리, 진안, 영도 모두 제가 잘 모르던 곳에 대해, 제가 이해하고 관심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글들, 감사합니다! 쓰다 보니, 또 두서없이 적었네요. 함께 얼굴 보며 이야기 나누어야 좋은 내용일 터, 제가 혼자 생각하며 적다보니 더욱 말이 두서없네요.

모두, 2017년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잔뜩 받으세요! 전 곧 둘째 출산소식을 전할게요. :) 멀리서나마, 서면으로나마, 계속 참여하며, 도시연대를 항상 응원합니다. :) 보고 싶은 얼굴들, 다음에 (곧) 봐요!

청계산 아래에서, 허윤선 드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정말 많습니다

보행자를 존중하는 도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생활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며 어울려 사는 도시

도시연대가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으로 우리 도시의 모습이 바뀔 수 있습니다
도시연대 회원으로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연대 회원이 된다면]

회원회비 납부를 통해 견고 살고 싶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각종 소모임과 자원활동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 및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연대의 회의실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간지 『견고싶은도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연대 발간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연대의 모든 행사에 초청되고, 행사참가비가 있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연대 회원이 되는 방법]

도시연대 홈페이지(www.dosi.or.kr/memberpage)에서 회원되기
도시연대 사무처(02-735-6046, dosi1994@daum.net)로 연락하기

2016. 12

평생회원

강병기, 권시형, 김금자, 김기남, 김성주, 김연금, 김은희(a), 김정민, 김한준, 김홍일, 노관섭, 류주억, 문홍길, 배기목, 안상욱, 여경락, 윤인숙, 이종원, 이주일, 전병선, 조은경, 조한세, 최용석, 최인환

2017 연회원

200,000원

08월 윤기철

100,000원

01월 김영국, 방구량, 이춘홍, 채문숙

02월 김승현, 유상훈, 윤세형, 이동숙, 정지혜, 조영국

03월 원용준

04월 최순복

05월 윤전우, 이형석, 최인환, 최호진

06월 소보영, 송숙란, 정성빈

07월 박소현

08월 강민구, 신재훈, 허윤선

10월 이주영

11월 임희지

12월 이한복, 이규복, 배기택, 조진성

50,000원

08월 김민보

2017 일시후원

20,000원

고소미, 김민식, 김성은, 김지혜, 박상아, 소준철, 이선욱, 천주현

10,000원

이영선

회비 납부 회원 명단

▶ 5,000원

강대균, 강연주, 고광욱, 구민지, 권범철, 기 일, 김간현, 김갑봉, 김대욱, 김병규, 김수경, 김수정, 김아영, 김원숙, 김재영, 김지우, 김하진, 노유진, 류상규, 류태희, 모숙자, 민경태, 박광범, 박세훈, 박화청, 백초롱, 손관영, 손광식, 손희정, 송경호, 신경미, 신세철, 심승희, 안태호, 안현진, 양경진, 양창화, 엄홍석, 오정선, 오태돈, 유대영, 윤 진, 이소현, 이 숙, 이영석, 이영은, 이왕기, 이은정, 이주희, 이지원, 이지경, 이태욱, 이한울, 임명택, 임명희, 임성빈, 임철희, 장남중, 장누리, 장윤영, 장정화, 전정옥, 정경모, 정병순, 조현준, 주관수, 천주현, 최원아, 최지은, 한동규, 한상준, 한승은, 한흥구, 홍순필, 황한음

▶ 7,000원

황아미

▶ 10,000원

강동진, 강미란, 강선호, 강승연, 강현수, 강호철, 고정민, 고정우, 고찬욱, 구자인, 권은지, 권 일, 권태연, 권 한, 김경민, 김기현, 김기호, 김남근, 김다윤, 김도년, 김도형, 김도훈, 김동주, 김동환, 김민수, 김병진, 김삼일, 김상규, 김상렬, 김상수, 김선호, 김성욱, 김성일, 김세웅, 김수경, 김수성, 김수현, 김숙희, 김신성, 김애란, 김영옥, 김용기, 김유란, 김은정, 김은희(a), 김은희(b), 김은희(c), 김인희, 김재영, 김재철, 김정대, 김정민, 김정빈, 김정연, 김정호, 김종규, 김종동, 김주식, 김주환, 김지유, 김지혜, 김진범, 김천곤, 김한배, 김한울, 김현수, 김혜승, 김효선, 남궁지혜, 노영순, 노희철, 류민환, 류승한, 류인목, 맹기돈, 명진우, 문병선, 문정석, 박미희, 박상위, 박상필, 박승배, 박영민, 박영옥, 박용연, 박인권, 박정진, 박종기, 박종철, 박준환, 박지연, 박진경, 박현영, 박홍근, 박화량, 박호진, 박 훈, 박훈영, 방영운, 방이정, 배명수, 배용규, 배인영, 배중철, 백선혜, 백호정, 변창흠, 서순탁, 서승환, 서한림, 설정임, 성수연, 송미령, 송상석, 송양선, 송여진, 송영석, 송은서, 송지현, 송효웅, 신병윤, 신지현, 신현오, 심경미, 심동석, 심보영, 심은주, 안승우(a), 안승우(b), 안인섭, 안인향, 안정연, 안정희, 안창모, 안치우, 안치환, 안현찬, 안화연, 양기용, 양재섭, 양재혁, 양정필, 엄철호, 오대진, 오선영, 오순희, 오승재, 오재혁, 오주한, 오효경, 우희집, 원선미, 유나경, 유재완, 윤서연, 윤정현, 윤혁경, 윤혜영, 윤효규, 이광재, 이권형, 이명구, 이미경, 이미란, 이병설, 이보라, 이상민, 이상준, 이성진, 이소영, 이승지, 이영동, 이영선, 이영희, 이왕재, 이웅연, 이원강, 이유경, 이윤지, 이은엽, 이의민, 이의중, 이인재, 이인혜, 이일우, 이재수, 이정민, 이정훈, 이주연,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준영, 이준희, 이지경, 이지연, 이지영, 이진형, 이진호, 이재관, 이재륜, 이충기, 이태문, 이태중, 이필용, 이현선, 이혜연, 이호근, 이호정, 임유경, 임은미, 임현진, 장영희, 장옥연, 장재삼, 장준호, 전미현, 정문수, 정상영, 정 석, 정수현, 정재훈, 정지범, 정현승, 정혜영, 정희선, 조미연, 조미연, 조상은, 조영태, 조위래, 조은혜, 조재용, 조현지, 주민선, 지경민, 진영환, 진희선, 차주영, 천의영, 최강림, 최돈용, 최만순, 최명실, 최문환, 최보경, 최성용, 최성은(a), 최성은(b), 최승범, 최승희, 최영식, 최완규, 최재용, 최지연, 최현욱, 태윤재, 하 춘, 한국희, 한상욱, 한상진, 한수경, 한정곤, 한정훈, 허 억, 허윤주, 홍미영, 홍수진, 홍승모, 황경수, 황명주, 황석민, 황성연, 황영수, 황희연, 황희정

▶ 20,000원

강미선, 강수남, 김성미, 김수현, 김연희, 김찬호, 김현호, 김혜정, 류영재, 문승규, 박재신, 백남철, 서준규, 심병찬, 윤주선, 이경자, 이석우, 이영범, 이은숙, 인태연, 전은호, 정철주, 조현세, 최성혁, 최치환, 한동명, 해 람, 황수연

▶ 30,000원

김창근, 노상주, 유규상

▶ 50,000원

김 울

2017.01

회비 납부 회원 명단	
▶ 5,000원	강대균, 강연주, 고광욱, 구민지, 권범철, 기 일, 김간현, 김갑봉, 김대욱, 김병규, 김수경, 김수정, 김아영, 김원숙, 김재영, 김지우, 김하진, 노유진, 류상규, 류태희, 모숙자, 민경태, 박광범, 박세훈, 박화정, 백초롱, 손관영, 손광식, 손희정, 송경호, 신경미, 신세철, 심승희, 안태호, 안현진, 양경진, 양창화, 엄홍석, 오정섭, 오태돈, 유대영, 윤 진, 이소현, 이 숙, 이영석, 이영은, 이왕기, 이은정, 이주희, 이지원, 이지경, 이태욱, 이한울, 임명택, 임명희, 임성빈, 임철희, 장남중, 장누리, 장윤영, 장정화, 전정욱, 정경모, 정병순, 조현준, 주관수, 천주현, 최원아, 최지은, 한동규, 한상준, 한승은, 한홍규, 홍순필, 황한음
▶ 7,000원	황아미
▶ 10,000원	강동진, 강미란, 강선호, 강승연, 강현수, 고정민, 고정우, 고찬욱, 구자인, 권은지, 권 일, 권태연, 권 한, 김경민, 김기현, 김기호, 김남근, 김다윤, 김도년, 김도형, 김도훈, 김동주, 김민수, 김병진, 김삼일, 김상규, 김상렬, 김상수, 김선호, 김성욱, 김성일, 김세용, 김수경, 김수성, 김수현, 김숙희, 김신성, 김애란, 김영욱, 김용기, 김유란, 김은정, 김은희(a), 김은희(b), 김은희(c), 김인희, 김재영, 김재철, 김정대, 김정민, 김정빈, 김정연, 김정호, 김종규, 김종동, 김주석, 김주환, 김지유, 김지혜, 김진범, 김천곤, 김한배, 김현수, 김혜승, 김효선, 남궁지희, 노영순, 노희철, 류민환, 류승한, 류인목, 맹기돈, 명진우, 문병섭, 문정석, 박미희, 박상위, 박상필, 박승배, 박영민, 박영욱, 박용연, 박인권, 박정진, 박종기, 박종철, 박준환, 박지연, 박진경, 박현영, 박홍근, 박효진, 박화량, 박훈영, 반영운, 방이정, 배명수, 배웅규, 배인영, 배중철, 백선혜, 백호정, 변창흠, 서순탁, 서승환, 서한림, 설정임, 성수연, 송미령, 송상식, 송양선, 송여진, 송영석, 송은서, 송지현, 송효웅, 신병윤, 신지현, 신현요, 심경미, 심동석, 심보영, 심은주, 안승우(a), 안승우(b), 안인섭, 안인항, 안정연, 안정희, 안창모, 안치우, 안치환, 안현찬, 안화연, 양기용, 양재섭, 양재혁, 양정필, 염철호, 오대진, 오선영, 오순희, 오승재, 오재혁, 오주환, 오효경, 우희집, 원선미, 유나경, 유재완, 윤정현, 윤서연, 윤혁경, 윤혜영, 윤효규, 이광제, 이권형, 이명규, 이미경, 이미란, 이병설, 이보라, 이상민, 이상준, 이성진, 이소영, 이승지, 이영동, 이영선, 이영희, 이왕재, 이용연, 이원강, 이유경, 이윤지, 이은엽, 이익민, 이익중, 이인재, 이인혜, 이일우, 이재수, 이정민, 이정훈, 이주연,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준영, 이준희, 이지경, 이지연, 이지영, 이진형, 이진호, 이채관, 이채륜, 이충기, 이태문, 이태중, 이필용, 이현선, 이혜연, 이호근, 이호정, 임유경, 임은미, 임현진, 장영희, 장옥연, 장준호, 전미현, 정문수, 정상영, 정 석, 정수현, 정재훈, 정지범, 정현승, 정혜영, 정희선, 조미연, 조상은, 조영태, 조위래, 조은혜, 조재용, 조현지, 주민선, 지경민, 진영환, 진희선, 차주영, 천익영, 최강림, 최돈용, 최만순, 최명실, 최문환, 최보경, 최성용, 최성은(a), 최성은(b), 최승범, 최승희, 최영식, 최완규, 최재용, 최지연, 최현욱, 태윤재, 하 춘, 한국희, 한상욱, 한상진, 한수경, 한정근, 한정훈, 허 역, 허윤주, 홍미영, 홍수진, 홍승모, 황명주, 황석민, 황성련, 황영수, 황희연, 황희정
▶ 20,000원	강미선, 강수남, 김성미, 김수현, 김연희, 김찬호, 김현호, 김혜정, 류영재, 문승규, 박재신, 백남철, 서종균, 심병찬, 윤주선, 이경자, 이석우, 이영범, 이은숙, 이태연, 전은호, 정철주, 조현세, 최성혁, 최치환, 한동명, 해 람, 황수연
▶ 30,000원	김창근, 노상주, 유규상
▶ 50,000원	김 울

2017.02

회비 납부 회원 명단	
▶ 5,000원	강대균, 강연주, 고광욱, 구민지, 권범철, 기 일, 김간현, 김갑봉, 김대욱, 김병규, 김수경, 김수정, 김아영, 김원숙, 김재영, 김지우, 김하진, 노유진, 류상규, 류태희, 모숙자, 민경태, 박광범, 박세훈, 박화정, 백초롱, 손관영, 손광식, 손희정, 송경호, 신경미, 신세철, 심승희, 안태호, 안현진, 양경진, 양창화, 엄홍석, 오정섭, 오태돈, 유대영, 윤 진, 이 숙, 이영석, 이영은, 이왕기, 이은정, 이주희, 이지원, 이지경, 이태욱, 이한울, 임명택, 임명희, 임성빈, 임철희, 장남중, 장누리, 장윤영, 장정화, 전정욱, 정경모, 정병순, 조현준, 주관수, 천주현, 최원아, 최지은, 한동규, 한상준, 한승은, 한홍규, 홍순필, 황한음
▶ 7,000원	황아미
▶ 10,000원	강동진, 강미란, 강선호, 강승연, 강현수, 강호철, 고정민, 고정우, 고찬욱, 구자인, 권은지, 권 일, 권태연, 권 한, 김경민, 김기현, 김기호, 김남근, 김다윤, 김도년, 김도형, 김도훈, 김동주, 김민수, 김병진, 김삼일, 김상규, 김상렬, 김상수, 김선호, 김성욱, 김성일, 김세용, 김수경, 김수성, 김수현, 김숙희, 김신성, 김애란, 김영욱, 김용기, 김유란, 김은정, 김은희(a), 김은희(b), 김은희(c), 김인희, 김재영, 김재철, 김정대, 김정민, 김정빈, 김정연, 김정호, 김종규, 김종동, 김주석, 김지유, 김지혜, 김진범, 김천곤, 김한배, 김현수, 김혜승, 김효선, 남궁지희, 노영순, 노희철, 류민환, 류승한, 류인목, 맹기돈, 명진우, 문병섭, 문정석, 박미희, 박상위, 박상필, 박승배, 박영민, 박영욱, 박용연, 박인권, 박정진, 박종기, 박종철, 박준환, 박지연, 박진경, 박현영, 박홍근, 박효진, 박화량, 박 훈, 박훈영, 반영운, 방이정, 배명수, 배웅규, 배인영, 배중철, 백선혜, 백호정, 변창흠, 서순탁, 서승환, 서한림, 설정임, 성수연, 송미령, 송상식, 송양선, 송여진, 송영석, 송은서, 송지현, 송효웅, 신병윤, 신지현, 신현요, 심경미, 심동석, 심보영, 심은주, 안승우(a), 안승우(b), 안인섭, 안인항, 안정연, 안정희, 안창모, 안치우, 안현찬, 안화연, 양기용, 양재섭, 양재혁, 양정필, 염철호, 오대진, 오선영, 오순희, 오승재, 오재혁, 오주환, 오효경, 우희집, 원선미, 유나경, 유재완, 윤정현, 윤혁경, 윤혜영, 윤효규, 이광제, 이권형, 이명규, 이미경, 이미란, 이병설, 이보라, 이상민, 이상준, 이성진, 이소영, 이승지, 이영동, 이영선, 이영희, 이왕재, 이용연, 이원강, 이유경, 이윤지, 이은엽, 이익민, 이익중, 이인재, 이인혜, 이일우, 이재수, 이정민, 이정훈, 이주연,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준영, 이준희, 이지경, 이지연, 이지영, 이진형, 이진호, 이채관, 이채륜, 이충기, 이태문, 이태중, 이필용, 이현선, 이혜연, 이호근, 이호정, 임유경, 임은미, 임현진, 장영희, 장옥연, 장준호, 전미현, 정문수, 정상영, 정 석, 정수현, 정재훈, 정지범, 정혜영, 정희선, 조미연, 조민숙, 조상은, 조영태, 조위래, 조은혜, 조재용, 조현지, 주민선, 지경민, 진영환, 진희선, 차주영, 최강림, 최돈용, 최만순, 최명실, 최문환, 최보경, 최성용, 최성은(a), 최성은(b), 최승범, 최승희, 최영식, 최완규, 최재용, 최지연, 최현욱, 태윤재, 하 춘, 한국희, 한상욱, 한상진, 한수경, 한정근, 한정훈, 허 역, 허윤주, 홍미영, 홍수진, 홍승모, 황명주, 황석민, 황성련, 황영수, 황희연, 황희정
▶ 20,000원	강미선, 강수남, 김성미, 김수현, 김연희, 김찬호, 김현호, 문승규, 박재신, 백남철, 서종균, 심병찬, 윤주선, 이경자, 이석우, 이영범, 이은숙, 이태연, 전은호, 정철주, 조현세, 최성혁, 최치환, 한동명, 해 람, 황수연
▶ 30,000원	김창근, 노상주, 유규상
▶ 50,000원	김 울

회비를 납부했지만
명단에서 성함이 누락된
분들은 도시연대 사무처
(02-735-6046,
dosi1994@daum.net)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연대 발간 도서 목록 1994-2017년

● 다문화사회	2015	경기도 다문화공동체 활동사례집
● 도시	2007	역사문화학교 가이드교실
	2006	공간으로서의 서울
● 마을만들기	2014	주인이 주도하는 단지·도시재생의 가능성
	2013	주민참여를 통한 월계1단지 생태마을 만들기
	2013	마을공동체시범사업의 쟁점과 과제
	2012	마을만들기로 가는 교남동
	2011	시흥시 마을리더 심화과정 교육
	2011	단독, 다세대 주거지의 지속성을 위한 '고치며 살자'
	2010	영구임대아파트 barrier free 마을 만들기
	2007	휴식과 소통이 있는 작은 쉼터 조성_경로당에서 여는 마을만들기
	2006	임대 및 일반 아파트 주민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장소만들기
	2006	독산3동 거리미술관 만들기 - 주민과 학교가 함께 사는 동네이야기
	2003	주민자치센터와 마을만들기
	2003	소도읍 육성사업 정책과 지역활성화 전략에 대한 워크샵
	2002	'음악'을 매개로한 지역기반 문화축제의 모범사례 - 전주 '산조예술제'
	2002	마을만들기 2000+2 - 마을만들기의 지속 가능성
	2001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구민화관을 위하여
	2001	나는 '주민참여 마을학교'에 참가한 적이 있다-주민참여 마을학교 자료집-
	200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시행정 방안에 대하여
	2001	우리가 꿈꾸는 마을, 우리 손으로!! 고양 마을 학교
	2000	주민과 상인이 만들어 가는 우리 거리 광진구 마을학교에서 시작합니다.
	2000	마을을 알고 이웃을 만나는 관악마을학교
	2000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도전, 마을헌장제정운동
	2000	마을만들기 2000 (마을만들기 사례모음집)
	1999	살기좋은 봉천동 만들기
● 한평공원	2014	한평공원 심포지엄
	2014	한평공원 편람
	2013	[심포지엄] 더 나은 도시를 위한 한평공원-11살이 된 한평공원, 제대로 컸나? 어떻게 키울까?
	2013	2013년 한평공원 만들기
	2012	2012년 한평공원 만들기
	2011	2011년 한평공원 이야기
	2010	2010 한평공원 만들기
	2009	2009 한평공원 이야기
	2007	한평공원 2007

2007	주민참여를 통한 한평공원 만들기
2006	주민참여 한평공원 만들기 사례를 통해 살펴본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2006	한평과 골목길, 그리고 마을만들기(성서한평공원)
2005	한평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
2005	주인이 만드는 우리동네 2005 한평공원 만들기
2004	한평공원 만들기는 주민참여입니다
2004	한평공원 만들기 _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민참여공간 만들기
2003	한평공원 조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주민참여 공간만들기
2002	주민 참여형 한(一) 평(坪) 공원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 보행·교통	2005	지하철 및 수도권전철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2004	길의 주인은 사람
	2004	편리한 버스, 안전한 보행을 꿈꾼다
	2002	청소년 교통학교
	2002	생활도로의 보행안전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성 조사연구
	2002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을 위하여
	2001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의 교통
	2001	어린이에게 안전한 서울 만들기
	2000	무장애 보행공간을 만들기 위한 매뉴얼
	2000	한강 시민공원 접근성에 관한 조사연구
	2000	서울시 무장애 공간 만들기 - 장애인 보행로와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개선방안
	200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도로 정책에 관하여
	1999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사업평가 연구 - 종로지역 3개 가로를 중심으로
	1999	지하철, 이제는 서비스다
	1998	어머니와 함께하는 녹색어린이 교통안전지도
	1998	서울시 지하철 정책에 관한 보고서 - 지하철, 대중교통수단인가?
	1998	기업체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1998	교통혼잡관리협회 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1997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1996	교통사고 장애아의 사회적응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1996	어린이 보호구역의 문제점과 현실화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1996	걷고싶은 서울 만들기 워크숍
	1995	자치시대를 위한 교통계획개선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1995	생활교통환경과 보행권회복을 위한 시민운동
	1994	주택가 생활도로 정책 개선방안 및 학교권역 설치에 관하여
	1994	주거지 이면도로에서의 교통행동 및 사고특성
	1994	우리나라 이면(지구)도로 특성을 고려한 과속방지턱의 기초연구
	1994	철도청 환경오염 실태 조사 보고서
	1994	철도안전 실태조사 자료집 (1)
	1994	시민의 철도, 지하철 만들기 대토론회



도시연대 발간
도서 목록
1994-2017년

● 자전거	2009	자전거 도시 만들기
	2008	가게 앞 소규모 자전거보관대 만들기
	2007	상업지역에 작은 자전거보관소 만들기 - 가게 앞 자전거
	2006	자전거조례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한 조건
	2005	하천변 자전거도로 교통로 활성화 방안 연구
	2004	자전거 임대제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2003	5개 도시 자전거 이용시설 및 이용자 모니터링 조사결과
	2003	지하철과 연계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2002	자전거 조례 표준화를 위한 연구
	2002	인천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2002	대형마트 자전거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2001	자전거를 달리게 하자
	2001	자전거 보관소 실태 조사결과 및 이용 활성화 정책 제언
	2000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2000	5개 도시 자전거 도로 현황 및 정책방향에 관한 제언
	1999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가 없다
	1999	서울시 자전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1998	걷고싶은 도시, 달리고 싶은 자전거도로
	1994	제1회 교통과 환경 포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안(내무부 입법안) 평가 및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	2002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의견조사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1999	제2회 전국워크숍 자료집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주민참여에 대하여-사례발표를 중심으로」
	1999	제1회 전국워크숍 자료집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주민참여에 대하여-사례발표를 중심으로」

● 커뮤니티디자인	2014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천호3동 이야기가 흐르는 골목길 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2012	2012 봄, 커뮤니티 디자인 워크숍 “함께 만드는, 더불어 사는 세상”
	2009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옥상녹화를 통한 커뮤니티 장소 만들기
	2009	공공디자인 커뮤니티 장소디자인
	2009	친환경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 - 남양주시 도농 4호 어린이 놀이터
	2005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디자인

● 놀이터	2015	모든 어린이를 위한 통합놀이터 만들기 “무장애 통합놀이터 매뉴얼”
	2009	남양주시 도농 4호 어린이놀이터

● 인사동	2005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2005 인사동 학교 자료집)
	2005	인사동 뉴스레터 vol.2
	2004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2004 인사동 학교 자료집)
	2004	인사동 뉴스레터(영문판)
	2004	인사동 뉴스레터
	2003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2003 인사동 학교 자료집)
	2002	인사동, 사람과 이야기
	2002	인사동 다가가기 (2002 인사동 학교 자료집)
	2002	5월 5일 어린이와 함께 인사동 역사문화 배우기
	2001	인사동 학교2001 - 인사동 바로알기 그리고 느껴보기
	2000	인사동 거리문화축제
	2000	2000년 인사동 학교 - 인사동 바로알기
	1999	인사동「작은가게 살리기 운동」자료모음
	1999	인사동 살펴보기 - 브로셔
	1999	인사동 살펴보기 - 가이드북
	1999	5월 5일 어린이날 인사동 살펴보기
	1998	인사동 역사문화탐방지도 「인사동 살펴보기」
	1997	인사동거리 활성화 방향과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북촌	2008	엄마가 만드는 북촌 마을계획
	2003	애들아, 북촌 가자
	2002	Bukchon Culture - Tour 2
	2002	어린이와 함께 우리동네 북촌 살펴보기
	2002	북촌이야기-시간과 공간, 공간과 사람 이어가기
	2002	2002 북촌문화학교
	2001	Bukchon Culture - Tour
	1999	역사와 문화가 있는 종로가꾸기는 시민의 손으로

● 한강시민공원	2000	한강시민공원 안내지도 - 잠실지구
----------	------	--------------------

● 인천	2003	인천 중구 구도심권 지역활성화와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2003	인천 바다이야기(인천 바다에 숨어있는 열가지 이야기)
	2003	인천 개화기 풍속도
	2002	인천 이야기- 인천 근대 개항장 가이드 북

● 부평문화거리	2008	주인과 함께 하는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2001	부평 문화의 거리, 새로운 출발을 향하여
	2000	부평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1999	문화의 거리 조성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 부평문화의 거리를 사례로

『걷고싶은도시』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과 답변

질문 : 『걷고싶은도시』를 구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걷고싶은도시』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PDF
읽기

도시연대에서 발행하는 모든 자료는 회원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만큼
누구라도 필요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도시연대 홈페이지(www.dosi.or.kr)
‘서재’ 게시판(종류별 보기-기관지)에서 무료로 배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쇄본
읽기

도시연대 회원 되기

『걷고싶은도시』가 인쇄되는 즉시 도시연대 사무처에서 회원에게 1부 씩
보내드립니다. 도시연대 회원이 되면 도시연대에서 발간되는 자료집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걷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도시연대 회원이 되는 방법

도시연대 홈페이지(www.dosi.or.kr/memberpage)에서 가입하기
도시연대 사무처(02-735-6046, dosi1994@daum.net)로 연락하기

『걷고싶은도시』 구매하기

비회원은 『걷고싶은도시』 1권 당 15,000원(회원이 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연대 사무처로 연락해 주시면 사무처에서 주소와 연락처,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걷고싶은도시』를 보내드립니다.

『걷고싶은도시』 고정필진 되실래요?

사단법인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는 1994년부터
‘보행, 마을만들기, 생활문화’ 운동을 3대 주요 의제로 삼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도시연대에서 발행하는 『걷고싶은도시』는 2015년부터
1년에 4번 발행하는 계간지로 개편하여, 많은 시민의 참여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연대에서는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고자 『걷고싶은도시』 고정칼럼
과 회원기고의 지면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연대 홈페이지
(www.dosi.or.kr 접속 → ‘서재’ 게시판 → ‘종류별’ 게시판 → ‘기관지’
게시판)에 발행물 PDF를 올림으로써 다수의 자료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걷고싶은도시』에 글을 쓰고 싶은 분이 있다
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걷고
싶은도시』 고정필진 혹은 회원기고에 도전해보세요! 도시연대 사무처
(02-735-6046, dosi1994@daum.net)에서는 간단한 문의부터 꼭지
기획서까지 받습니다.

신중한 심사를 통해 『걷고싶은도시』 고정필진으로 선정되면 계간지에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해 드립니다. 하나의 주제로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화두를 던지셔도 좋습니다. 글
이나 사진 등을 신고,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도시연대
조은혜 활동가에게 연락주세요.

쓰고싶은도시

발행처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54, 세종아파트 902호 | 전화 02-735-6046 | 전승 02-735-6045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1994년부터
보행권 확보, 마을만들기, 생활문화 보존 등을 통해
걷기 편한 도시를 넘어서

시민 누구나 걷고 싶어하고
삶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연대 홈페이지 www.dosi.or.kr

도시연대 페이스북 www.facebook.com/urbanactionnetwork

도시연대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10-150820 (예금주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값 15,000원